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

여 성 학 과

이 정 주

199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여성학과 이 정 주

이 정 주 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김 은 실

審査教授

김 성 례

조 지 형

김 은 실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제 목 차 례

논 문 개 요	iv
 제1장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6
2.1 연구방법 : 구술 생애사	6
2.2 연구과정	9
2.2.1 현지조사지	9
2.2.2 현지조사과정 : ‘4·3’ 연구의 윤리적·정치적 문제	10
2.3 연구참여자의 특성	16
 제2장 ‘호미’마을	19
1. 자연환경	19
2. 역사적 배경	20
3. 사회경제적 배경	22
4. 교육적 배경	27
5. 주민들의 마을 정체성과 마을의 권력구조	29
 제3장 ‘4·3’ 발발과 전개과정에서의 여성 경험	36
1. 해방공간에서의 갈등과 ‘4·3’ 발발	36
2. ‘떡’사건을 둘러싼 증언의 차이	53
3. 마을공동체 파괴와 주민 이동	57
4. 여성에 대한 폭력	65
5. 생계 부양자로서의 여성	73

6. 전략촌 생활	79
제4장 '4·3' 극복과정에서의 여성 경험	86
1. 돌아온 마을 : '남성이 없는 공간'	86
2. 남성노동력의 대체 : 여성들의 '수놓음'	89
2.1 집짓기	89
2.2 농사짓기	92
2.3 홀어명가구와 남성가구와의 경제적 격차	98
2.4 홀어명들의 현금 수입 자구 노력	100
3. 친족사회 붕괴로 인한 여성 지위의 변화	103
3.1 친족사회의 붕괴	103
3.2 토지의 박탈	107
3.3 '재가'를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	110
3.4 친족사회의 여성 성원권 자격 : 아들	113
제5장 마을의 재건	118
1. 복원된 마을공동체의 리더쉽 구조와 혼인 관행의 변화	118
2.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을 '역사'	123
제6장 결론	129
참 고 문 헌	135
영 문 초 록	142

표 차 례

<표 I-1> 생애사 구술자의 일반적 특성	18
<표 II-1> 인구세대가옥 및 피해복구상황조사서(1955)	24
<표 II-2> 인구 변동상황	24
<표 II-3> 토지 이용 현황(1975)	25
<표 II-4> 1913년 총인구에 대한 수산업 종사 비율(겸업 포함)	30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제주 여성들의 '4·3' 경험에 대한 구술 진술에 기초하여 '4·3'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여성학적 시도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가 국사라는 지배 담론으로 '4·3' 역사를 국유화하는 것에 대항하여, '4·3' 폭력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4·3'에 대한 제주 여성들의 기억과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제주 민중들의 '4·3'에 대한 경험이 '공산폭동'이라는 국가의 공식 역사와 어떻게 다른지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별을 역사 분석의 기본 범주로 설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그들이 가진 성별에 따라 '4·3'이라는 동일한 현실을 다르게 경험하였음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4·3' 연구는 성중립성을 가장한 채 제주도민이라는 하나의 보편 범주로 남녀를 묶어 '4·3'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 방식은 남성의 경험과 관점에 기반하여 여성을 남성과 동일시, 일반화하는 것으로서, 여성들의 역사적 역할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 경험을 왜곡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4·3' 서술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활동을 가시화시키고자 하며, 여기에서 나아가 '4·3' 서술 전반에 걸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성을 문제 삼고 이에 도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4·3'을 겪은 여성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주도 중산간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현지조사를 행하였다. 현지조사 동안 연구자는 '4·3'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생애사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과 제주에서 있었던 '4·3' 관련 학술행사와 문화행사에 참여하였고, '4·3'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들과 영화 및 각종 출판 자료를 보조자료로서 참고하였다.

내용은 연대기적 서술 방식을 따라 5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은 연구문제와 연구관점, 연구방법 그리고 현지조사과정에 관한 것이다. 현지조사과정은 '4·3'이라는 특수한 주제가 갖는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2장은 현지조사지에 대한 일반적 민족지 기술을 통해 조사 마을의 성별분업체계

를 다루고 여성의 삶이 전통적으로 어떠했는가를 설명한다.

3장은 여성 경험을 중심으로 '4·3' 발발과 전개과정을 재구성한다. 해방공간에서의 갈등이 조사마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출됐으며, 이후 '4·3' 전개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어떤 경험들을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4장은 '4·3' 후 마을에 어떤 변동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4·3' 생존자들은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여성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4·3'으로 마을의 물리적, 공동체적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비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별분업체계와 가부장적 질서가 어떤 식으로 재조직화되고 유지되는지를 분석한다.

5장은 재건된 마을에서 '4·3' 이전의 리더십 구조가 어떻게 재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혼인관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4·3'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4·3'을 중심으로 한 마을 역사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드러낸다.

'4·3'은 제주도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그러나 기존 '4·3' 연구는 진상 규명이라는 당면 과제 아래 정치사 중심의 역사학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4·3'에 접근함으로써 '4·3'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4·3' 연구에서 잃어버린 반이었던 여성을 '4·3' 역사에 포함시킴으로써 '4·3' 역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우며, 성별을 주요 분석 범주로 설정하는 역사이론들을 만들기 위한 경험적 자료가 된다.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주 '4·3'은 미군정 시기 남북 분단을 확정짓는 5·10 단독 선거를 거부하여 일어난 민중들의 무장봉기와, 이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토벌로 발생한 양민 학살을 가리킨다. '4·3'은 1948년 4월 3일의 발발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된 때까지 6년 6개월동안 지속되었다. 당초 토벌대가 파악한 무장대 숫자는 5백명 안팎이었으나 이 5백명을 토벌하기 위한 작전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체 희생자 수는 3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다.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4·3' 당시 죽은 사람들도 병고(病故)로 사망 신고된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인명피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4·3'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도 기아와 질병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4·3'은 한국전쟁과 더불어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무게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망각과 금기의 주제로 간혀 있었다. 지난 50년 동안 '4·3'은 국가의 해석과 공식입장에 따라 '공산폭동'으로 불리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으로 엄격하게 제약하였다. '4·3'에 관한 글은 판금되었고¹⁾,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군부 정권은 '4·3'을 은폐시켰을 뿐만 아니라 논의 자체를 철저히 금기시켰다. 다만 당시 죽은 자들의 제사의식이나 무속굿과 같은 비공식적·일상적 삶의 맥락을 통해서만 그 이야기가 전승되어 왔다(김성례 1991b, 12). 그러나 1980년대 사회 민주화 운동의 전개에 따라 1988년부터 '4·3'에 관한 연구물들과 문학작품들이 잇따라 출판되면서 '4·3' 연구는 본격화되었다.

'4·3'에 관한 연구물들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오랜 기간동안 금기시되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4·3'이 제주도라는 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4·3'

1) 현기영은 1978년 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해 '4·3'의 실상을 처음으로 공개하였으나, 이 소설은 곧 판금되고 현기영은 '빨갱이 작가'로 명명되어 대공분실에 끌려가고 초를 겪었다.

에 관한 논의들은 거의 제주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88년 '4·3' 40주년을 맞아 중앙 학술대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에야 '4·3'은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석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일반 연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제주 '4·3' 관련 학술논문을 집필한 사람 중 비제주인이 거의 없다는 점은 '4·3'에 대한 제주 이외 지역의 무관심을 상징한다(박명림 1999, 427, 455). 현재까지도 대다수 국민들은 '4·3'을 알지 못하고 있고, 안다 하더라도 '전체' 한국사와는 무관한 제주도만의 사건쯤으로 여기고 있다²⁾. 그러나 '4·3'은 분단시대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건으로서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³⁾

지금까지 나온 '4·3'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초기 '4·3' 연구는 '4·3'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는 국가의 공식 역사 서술에 대항하기 위해 민중항쟁으로서의 '4·3'을 부각시켰다. 국가가 반공주의라는 효과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였다면, 민중항쟁론은 폭동으로 규정된 민중들의 저항을 외부에서 제주도로 들어온 극우세력(미군정, 경찰,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으로 해석하여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는 폭력의 행위자의 입장에서 '4·3'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다(김성례 1999, 240, 253). 이 논의들에서 경험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시 항쟁을 주도하였던 제주 좌파 조직, 극우세력이었던 서북청년단, 그리고 미군정이다. 이

2) 이에 대해 제민일보의 한 기자는 전국 인구 1% 지역에 대한 '종족 차별'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는 제주의 변방성이, 당시 무차별 학살극이 거리낌없이 자행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거니와 지금껏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뉴스 플러스』 1998. 4. 9.).

3) 제주 출신도 아닌 연구자가 '4·3'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해 [여성과 인권 연구회]에서 개최했던 「여성 인권과 평화 세미나」에서 '4·3'의 고통을 재현한 작품들을 만나게 되면서이다. [여성과 인권 연구회]는 기존의 인권 개념이 사법 제도, 노동, 정치 등 주로 공적(公的) 영역에만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음을 비판하면서, 기존의 인권 개념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재해석, 재개념화하여 사적(私的)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에서 사적(私的) 관계의 형태로 행해지는 여성의 억압과 고통을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러한 담론적 실천으로 [여성과 인권 연구회]는 1998년 2월부터 매월 「여성 인권과 평화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이 세미나에서 제기되었던 '4·3' 논의와 여성 인권 침해에 관한 여러 사례들과 토론에서 연구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얻어 시작되었다.

논의들에서는 '4·3' 폭력의 희생자의 입장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경험은 배제되었으며, 정치적 공간에서 일어났던 남성의 활동들만이 역사적 사실로 기술되었다. '4·3' 연구에서의 이러한 남성 중심성은 증언 기록 작업과 증언 자료의 활용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990년대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마을별 현지조사가 시작되면서 '4·3' 연구는 '4·3'의 저항의 측면보다는 학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의 희생자의 관점에서 '4·3'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기 시작했다. 기존 '4·3'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별 현지조사는 진상 규명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서로 비교하여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다.⁴⁾ 연구자들이나 증언 채록자들은 각 마을 단위에서의 '4·3' 전개 과정과 피해 사례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장대나 토벌대 활동을 했던 사람, 조사 마을의 대표적 피해 사례를 말해 줄 사람을 증언자로 찾는다. 그리고 증언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힐 수 있는 질문만을 한다. 이 때 증언자로 선택된 여성은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과 느낌, 태도, 가치, 의미 등을 말하고자 하지만 기록자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여성 개인의 '신세타령'이나 고생담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할머니들은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혼자서 자식들을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유철인 1998b, 40)에, 남성 연구자들은 여성을 중요 정보자로 선택하지 않았다.

여성과 남성은 단순한 사회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성⁵⁾이 다름으로 인해 서로 다

4) 이런 성격의 연구들로 제민일보 4·3취재반의 마을 증언 시리즈인 『4·3은 말한다』 4·5권과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펴낸 4·3 유적지 기행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그리고 제주 4·3연구소의 현장채록팀이 기술한 「한림면 현장조사서」 등이 있다.

5) 우리 사회에서 성이라는 말은 그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과학이나 여성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을 세 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김은실 1998, 74). (1)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기술하는 개념으로서의 섹스(sex), (2)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개념인 젠더(gender), (3) 성적 욕망과 성관계, 성적인 관념을 의미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 본 연구에서 성이란 젠더를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성별'이라고 표현하였다.

른 역할을 맡게 되고,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가지게 된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는 성별 정체성은 개인의 사회적 삶과 내적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문화를 다르게 경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축이다. 성별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여성과 남성이 '4·3'이라는 동일한 현실을 다르게 경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4·3' 이후에도, 여성과 남성은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였고, 다른 형태로 삶을 구성해갔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은 '4·3'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이지만, '4·3'에 대한 기억의 내용이나 증언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성 기록자들은 성별을 역사 분석의 기본 범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의 관점과 경험에 기반하여 '4·3'을 기술한 후, '제주도민'이라는 하나의 보편적 범주로 묶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남성의 것과 동일시하여 일반화했다. '4·3'은 다양한 층위들이 중첩된,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성별, 연령, 태도와 입장, 그리고 중산간(中山間)이나 해안이나라는 마을의 위치에 따라 '4·3'의 피해상황은 다르다. 따라서 '4·3'을 경험한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4·3'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 경험의 주체는 특정한 지역적 맥락 속에 위치해 있는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민을 모두 동일한 '4·3' 피해자로 전제하여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험의 차이를 덮어버리고 '4·3' 경험을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4·3' 경험에 있어 사회 내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묻혀지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개인과 '4·3'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4·3' 연구는 '4·3'에 대한 진상규명에만 집중함으로써, '4·3'을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르게 하였다. '4·3'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전히 제주도민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다. '4·3'이 야기한 대량 살상과 마을 공동체 파괴, 그에 따른 인구 이동은 제주 지역 공동체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4·3'의 대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뿌리깊은 피해의식을 내면화시켰다. '4·3'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4·3'이 제주 지역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변화들을 초래하였는가라는 '4·3'의 현재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여성주의적 역사 서술⁶⁾의 시각에서 '4·3'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여성의 삶을 역사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의 경험을 역사에 포함시킴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틀과 방법론을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하다(Haggis 1990, 67).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 관점과 여성 경험의 기록에 대한 원자료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⁷⁾

본 연구는 여성 경험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념틀을 설정하였다. 먼저 비가시화되고 주변화되었던 여성의 경험을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하는 것이다. 조각난 기억들로 흩어져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조각보를 깐듯이 서로 연결하여 전체 사회구조 속에 맥락화시켰을 때, 그 경험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본 연구는 성별을 역사 분석의 기본 범주로 삼아 '4·3'에서의 여성 경험을 가시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는 '4·3'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있어, 여성과 남성간에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역사 서술은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시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여성 경험의 인정이나 가시화로는 성별간 경험의 차이를 가져오는 내부적인 역학과 기제를 밝힐 수 없다. 따라

6) 기존 역사 서술에서 여성들의 역사적 역할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과 편견도 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것이 여성사(Women's History/Gender History)이다. 여성사는 기존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활동을 가시화시키고자 하며, 여기에서 나아가 역사 서술 전반에 걸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성을 문제 삼고 바로잡고자 한다(이남희 1994, 211-213). 본 연구에서는 여성사라는 용어를 '여성주의적 역사 서술'이라고 표현하였다.

7) The Personal Narratives Group, 1989, pp. 2-15. The Personal Narratives Group은 미국 미네소타(Minnesota)대학의 진보 여성학센터(the center for advanced feminist studies)에 속해 있는 연구 모임이다. 이들은 "인간 경험은 성별화된"는 사실이 페미니스트 이론의 급진적 함의의 핵심이며, 바로 이것이 페미니스트 연구와 사상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여성의 삶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성별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개인적 서사(personal narratives)는 페미니스트 연구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의 생애사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을 모임의 목표로 삼는다.

서 여성주의적 역사 서술은 여성의 삶이 왜, 어떻게 그런 형태로 구성되었는지, 여성의 경험을 생산하는 여성 주체의 위치를 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여성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들에 의해 형성된 여성 개인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게 억압적·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조건들에 대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념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가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미’마을에서 ‘4·3’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과 경험을 하였는가? 그리고 여성들의 역할과 경험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은 무엇인가?

둘째, ‘4·3’으로 인해 ‘호미’마을에는 어떤 변동들이 일어났는가? 일할 수 있는 청장년 층의 남성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가정과 마을 공동체를 재건하고 유지해 나갔는가? 이 과정에서 성별분업체계는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셋째, 여성들을 친족체계 속에, 사회조직 속에 매개해 주었던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여성들은 개인적 지원을 위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였는가? 이 과정에서 성별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넷째, 이같은 역사적 경험들이 현재 여성들의 삶과 의식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

2.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2.1 연구방법 : 구술 생애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4·3’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들은 군정의 정보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4·3’ 경험자들이 남긴 기록이나 증언에 기초한다⁸⁾. 그런데 ‘4·3’ 당시에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단혀 있던 시기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글을 알

8) ‘4·3’ 연구에서 1차 자료로 삼는 것은 항쟁 주체들이 남긴 기록, 경찰의 문건, 미군정의 보고서, 당시의 신문 등이다(양정심 1999, 51).

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일기나 메모, 회고의 형식으로 '4·3'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기록으로 남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록된 자료들만을 토대로 '4·3'에 접근한다면, 여성들의 경험은 상당 부분 묻혀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자나 기록에 기반한 문헌 중심적 역사 쓰기 이외의 새로운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4·3' 연구에 있어, '통계적 수치'의 수집 뿐만 아니라 '측정 불가능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숫자, 피해 정도는 '4·3'이라는 사건의 크기와 역사적인 무게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러나 수치로 측정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경험들이 존재하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4·3 피해 신고실'에 접수된 피해 정도를 보면, '4·3' 당시 남성 사망자는 9,192명이며 여성 사망자는 2,443명이다(제주도의회 1997, 49). 이 숫자는 '4·3' 당시 남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피해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들은 직접적인 죽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성적 폭력들을 겪었으며, 남자형제나 집안을 위해 토벌대와 강제결혼을 해야 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자로서 모진 고통을 감내했다. 이런 경험들은 수치화될 수 없는 것들이다.

'4·3'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헌 자료나 기존 연구가 극히 적기 때문에 증언과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한다⁹⁾. 그런데도 이들은 구술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부족한 문헌 자료를 보충하거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그 위치를 한정짓는다. 구술 자료는 역사적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주관적이며 사적(私的)이고 부분적

9) 「제주민중항쟁 논의의 현단계」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좌담에서, 구술 증언 채록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정짓고 있다. "4·3 진상의 역사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실증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3은 항쟁주체들의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이나 미군정의 자료도 입수하기가 힘들죠. 지리산 토벌대장이었다는 '차일혁의 수기' 정도만 있어도 4·3 진상규명에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이렇게 4·3에 관한 1차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방법이 증언채록을 통한 연구입니다....저희 증언작업은 어디까지나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유독 지워진 1차 자료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4·3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제주4·3 연구소 1991, 35-36)."

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역사연구가 실증주의적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술 자료를 역사적 자료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4·3’ 연구의 성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애사¹⁰⁾ 자료와 같은 구술 자료는 ‘4·3’과 같이 기록된 자료가 부족한 사건이나 통계적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경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원으로, 그 자료적 가치가 크다. 생애사 자료의 유용성은 그동안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주관적인 의미에 대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에 제한되지 않는다. 생애사 자료는 삶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누려온 이론들이 특정 인종이나 성, 계층 집단의 당파성을 가진 부분적 진실이었음을 지적하고, 삶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을 해체하는 이론적·방법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Reinharz 1992, 126-131; Geiger 1986, 336).

이러한 점에서 여성 생애사는 두가지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 생애사는 국가가 국사(National History)라는 지배 담론을 통해 ‘4·3’ 역사를 국유화하는 것에 대항하여, ‘4·3’에 대한 제주 민중들의 기억과 경험을 재현하는 한 양식으로서, 실제적으로 제주 민중들의 ‘4·3’에 대한 경험이 국가의 공식 역사와 어떻게 다른지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국가가 ‘4·3’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고 망각을 강요하는 현 상황에서 하나의 정치적 실천 행위가 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관점과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여성 생애사는 기존 ‘4·3’ 역사 서술이 갖는 남성 중심성을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여성 생애사는 그동안 ‘제주도민’이라는 보편 범주로 묶여 왔던 여성과 남성이 실제적으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영역에서 각각 다른 경험세계와 의식세계를 이루고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기존 ‘4·3’ 역사 서술은 이 경험의 ‘다름’을 간과해왔다. 여성 생애사는 남녀간의 경험의 ‘다름’을 생산해내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이를 변화시킬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

10) 생애사는 전기, 자서전, 구술사 및 개인 자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생애사는 다른 사람에게 구술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된,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의미한다.

2.2 연구과정

2.2.1 현지조사지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제주도의 한 마을을 선정하여 세 차례 현지조사(fieldwork)를 하였다.¹¹⁾ 두 번의 현지조사는 마을 밖에 거주하면서 마을 내에 들어가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모았고, 세 번째 현지조사는 1999년 1월부터 2월까지 6주동안 마을 안에 머물면서 참여관찰을 하였다.

본 연구는 '4·3' 당시 피해가 컸던 중산간 마을¹²⁾ 중의 한 마을을 연구 대상지로 정하였다. 그 마을의 이름은 '호미'¹³⁾라 부를 것이다. 마을은 자연공동체로서 보통 2~3개, 많으면 10여 개가 하나의 면리체계 속에 묶여 있는데, 현재 '호미'마을은 7개의 자연마을들이 '호미'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리' 단위로 묶여 있다. 본 연구는 '호미'라는 리 단위의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중산간 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해안 마을에 비해 중산간 마을이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무장대가 주로 산간 지대와 중산간 마을을 무대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토벌대는 이들 중산간 마을을 적성지대로 간주하여 중산간 마을 초토화를 행하였다. 중산간 마을 주민을 모두 해안지대로 소개(疎開)한 다음,

11)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이외에, 1997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 지원 과제인 “분단 이후의 역사적 경험과 지역공동체의 변화: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마을 역사 공동연구의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얻은 자료들에 기초한다. 마을 선정은 연구자가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했던 연구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자들이 모여, '4·3'의 피해 상황과 복구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마을마다 비교 검토하고 여러 번 토의한 끝에 결정했다.

12) 제주도 마을은 해안 주변 지역의 마을과 해발 200미터 이상의 중산간 지역의 마을로 나뉘는데 이를 각각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이라 부른다.

13)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마을 이름 대신 '호미'라는 가명을 쓰고자 한다. 제주도에서 호미는 육지의 낫을 가리키는 말이며, 육지에서 호미라 불리는 농기구를 제주에서는 골쟁이라 부른다. 제주에서 호미는 모든 농작물의 수확에 사용되며, 특히 여성들의 김매기 작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농기구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조사 마을이 어디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무기명으로 기재하였다.

무장대가 은거할 수 없도록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린 것이다. 이 전략으로 인해 ‘호미’마을도 모두 불태워졌으며, 주민들은 근처 해안 마을로 소개되었다.

중산간 마을 중에서도 ‘호미’마을을 선택한 것은 피해가 컸던 마을이지만 비교적 재건이 잘 된 마을이기 때문이다. 소개 후 마을이 다시 복구된 곳은 유림촌이거나 비교적 오래 전에 형성되어 살기가 괜찮았던 마을들이었다. ‘호미’마을은 10여 개의 자연마을들이 모여 이루어진 마을인데, ‘4·3’ 당시 350호 정도의 가구가 있었던 큰 부락으로서 양반촌이라 불리웠던 마을이다. 농토가 좋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이어서 빈부의 차가 없이 고루 잘 사는 편이었다. 그러나 ‘4·3’을 거치면서 300여명의 마을 주민이 희생되었고, 전체 가구의 70%가 홀어명 가구가 되었다. ‘4·3’이 끝난 후 마을 재건이 이루어졌으나, 100여 가구가 넘는 옛마을 일부는 끝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 지금은 집 한 채 없는 옛마을터로 남아있다.

2.2.2 현지조사과정 : ‘4·3’ 연구의 윤리적·정치적 문제

민족지적 정보의 성격은 현지조사자(fieldworker)와 주제 대상(subject people) 간의 정치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조사자의 입장과 현지조사의 맥락에 대한 서술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진실성을 더해 주며, 독자의 민족지적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므로 조사자의 연구 과정에 대한 기술은 본 연구의 민족지적 지식이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Kim EunShil 1998, 69-73).

연구자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간 것은 1998년 5월 8일이었는데, 그때 연구자의 위치는 마을 역사 공동연구의 연구 보조원으로서였다.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으므로 마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모셔 놓고 노인회관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세 분의 교수님들과 한 명의 연구 보조원과 함께 참여하여 경로잔치와 인터뷰, 그리고 마을의 당을 비디오(video recorder)로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연구자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드러나는 존재는 아니었다.

두 번째 현지조사는 11월달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연구자의 위치는 연구 보조원으로서였다. 이때는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몇몇 할머니들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

를 녹음기로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연구자는 방문한 집의 가족들과 얼굴을 익힌 뒤, 다음번 현지조사 때 연구자가 머물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세 번째 현지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마을로 들어간 날은 마침 노인회 총회가 있던 날이었다. 이 때는 마을 역사 공동연구의 연구 보조원으로서가 아니라 연구자의 학위 논문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연구자의 위치로 들어간 것이었다. 연구자가 노인회관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호미’마을의 60세 이상 노인들이 모여 있었고, 부녀회에서 이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었다. 그날 연구자를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시키고 연구자의 신분을 마을 내에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 마을에 잘 알려져 있던 제주 출신의 공동 연구 보조원이 동행해 주었다. 연구자가 모여 있던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자, 지난번 현지조사 때 인터뷰를 했던 할머니 몇 분이 연구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아는 체를 해 주었다. 할머니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연구자를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그때 교수님 따라 왔던 학생’인데 ‘우리 마을이 좋은 마을이라 조사하려고 온 것’이라고 소개해 주었고, 마을 내에서 연구자의 정체성은 그렇게 공식화되었다.

곧 마을 내에 연구자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연구자가 마을 주민들을 관찰하고 조사할 때 마을 주민들도 연구자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연구자가 이전에 교수님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왔던 경력이 연구자의 신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면서도 연구자의 위치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연구자는 연구 보조원으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이중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호성은 연구자와 마을주민 간의 관계 만들기에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해주기도 했다. 이장이나 마을 유지들을 만나 인터뷰할 때는 연구 보조원으로서의 위치로 가장하여 마치 ‘서울 교수님’의 대행인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할머니들이나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할아버지를 인터뷰할 때는 개인 논문을 위한 연구자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위치를 넘나들 수 있었던 조건으로 인해 연구자는 마을 내에서 운신의 폭을 좀더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마을에 거주한 지 2주일쯤 후, 9시 저녁뉴스(제주지방뉴스)의 ‘4·3’ 관련 보도에 연구자가 참석하였던 ‘4·3’ 세미나 장면이 보도화면으로 나갔는

데, 그때 연구자의 모습도 뉴스 화면에 비쳤다. 9시 저녁뉴스에서 연구자의 모습을 발견한 마을 주민들은 이 사실을 마을 내에 퍼뜨렸고, 연구자는 마을 내에서 ‘4·3’ 관련 전문가 줌으로 인식되어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몇몇 마을사람들은 연구자를 볼 때면 먼저 ‘4·3’ 얘기를 꺼냈고, 자기집에 보관하고 있던 ‘4·3’ 관련 서적들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상황들은 ‘4·3’으로 피해의식을 굳게 가지고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 연구자가 접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들은 연구자가 마을 내 머무르는 동안 계속해서 연구자를 피했고, 연구자가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은채 연구자가 그냥 나가주기를 바랐다.

현지조사 기간동안 연구자가 머물렀던 집의 할머니는 대단한 이야기꾼이었으며 부인회장, 노인회 부회장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의 대소사(大小事)에 영향력을 끼치는 마을 내 주요 인물이었다. 할머니 집에는 거의 매일마다 동네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이 마실을 왔고, 이를 통해 연구자는 마을 주민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리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하는 미혼 여성이 연구자와 동갑이었던 인연으로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여성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사람들을 알려 주었다.

그런데 마을 내에서 연구자가 특정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연구자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가 머물던 집의 할머니는 ‘4·3’ 당시 사촌오빠들이 무장대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무장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4·3’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국가의 공식 입장과 일치했다. 따라서 할머니는 ‘4·3’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노인회관과 같은 공식적 자리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4·3’ 당시 남편이 토벌대에게 살해된 여성들은 ‘4·3’에 대해 말할 때면 늘 불편해 했고, 어떤 이들은 아예 입을 닫기도 했다. 이들은 연구자가 질문을 하면 “○○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더냐”고 확인한 다음 말을 꺼냈다. 현지조사 초기에 연구자는 마을 내 이런 관계와 역학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집주인 할머니와 함께 다녔으나 나중에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뒤로 연구자는 마을 내에서 특정인과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생애사 연구의 질은 기록자와 구술자간에 형성된 신뢰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¹⁴⁾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초기에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었다. 생애사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의 집으로 찾아가 일대일의 개인 인터뷰를 하였고, 연구자가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방식은 연구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출생에서 현재까지의 생애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허락 아래 녹음하였고, 연구참여자가 녹음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록만 하였다. 연구자가 제주 출신이 아닌 관계로 제주 방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출신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다. 녹음한 내용은 모두 재생하여 문서화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본문에 인용하는 경우 가급적 원문을 신뢰, 제주 이외 지역의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번역을 곁하였다.

세차례의 현지조사 외에 서울과 제주에서 있었던 '4·3' 관련 학술행사와 문화행사에 참여하였고, '4·3' 관련 신문기사와 잡지 기사를 모두 참조하였다. 그리고 '4·3'으로 인한 제주지역 공동체의 변화과정과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제주 관련 신문기사들과 '4·3' 관련 문학작품들을 배경지식으로 하였다.

'호미'마을에서 '4·3'은 일종의 단허진 세계, 비밀스런 세계였다. '4·3'의 대량학살과 인권 침해, 그리고 마을 파괴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마을 공동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 마을 주민들은 '4·3' 이후 40년간 지속된 반공 군사정권 하에서,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피해를 밝히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 경험을 숨긴 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왔다. 1987년에 일어난 'KAL기 폭파 사건'의 폭파범 중 한 명이 '4·3 폭동'에 가담했던 제주 출신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1992년에 일어난 이른바 '이선실 간첩 사건'에서 남파 간첩 이선실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안기부의 발표 등 대통령 선거 때를 맞춰 벌어진 이러한 사건들로 제주 민중들은 최근

14) 생애사 구술의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해석자, 대담자, 연구대상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운다. 그런데 구술자는 연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록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술자의 행위성,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명명할 것이다.

까지도 지독한 레드 콤플렉스를 겪어야 했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 밖으로 표출될 수 없는 정서와 한은 안으로 쌓일 수밖에 없었고, '4·3' 생존자들은 의식적으로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고 억압하였다. 억제는 흔히 증언 거부로 나타났다. 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 “한 5년 전에 MBC에서 와서 날 보고 '4·3'사건 때 어땠는지 말해 달래. 나는 분시[분수]도 모르고 그냥저냥 말하면 간첩으로 잡아갈까 봐, 그땐 무서워 말도 못했지” 마을 주민들 중에는 “세상이 다시 어지러워지면 내 발언이 문제가 될 게 아니냐”며 공식적 자리에서 '4·3'을 증언하기를 꺼리고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4·3 특위가 피해조사를 벌일 때 신고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건 일절, 아무 피해 신고도 하지 마라, 아무 것도”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4·3'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누가 질문하는가, 옆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구술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였다. 연구자는 6주간 '호미'마을에서 연구참여자와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연구 동기를 설명한 뒤, 그들이 자신에 관해 이야기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제까지 말하지 않고 숨겨왔던 '공공연한 비밀'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연구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의 대화가 비공식적·일상적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대화의 맥락성은 부분적으로는, 미혼의 젊은 여성이라는 연구자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누워 잠을 자면서, 혹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에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로 형성되었던 신뢰관계 속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본 연구는 많은 윤리적, 정치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가 현지인들과 어떤 관계를 갖든 간에 연구자가 현장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현지 사회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다. 연구자는 마을 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찾게 되고, 자신의 일을 도와 주는 연구참여자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을 정보원으로 대상화

15) 안기부는 정권교체 후인 1998년 10월 14일 '북풍공작'의 의혹이 가는 대표적 사건으로 이 두 사건을 지목했다(김종민 1999, 370).

시켜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기억해내고 싶어하지 않는 경험들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때, 연구자는 심한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4·3'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또 어떤 이는 '4·3'이 남긴 공포와 고통으로 '4·3'을 기억하기조차 싫어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그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이 겪었던 '4·3'에 동참하고자 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입장 뿐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4·3'에 관한 기억은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미 50년이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그 기억은 과거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의 사실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며, 그 기억에는 개인의 상상과 해석이 개입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연구자는 마을 내에서 연구참여자들간의 증언의 차이를 비교 검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공식적인 장에서 발언된 '4·3'에 관한 언설들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될 때 야기될 갈등과 분열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간의 증언의 차이는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될 뿐 결코 함께 얘기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연구자는 증언의 진실성을 밝힐 수 없는 정치적·윤리적 어려움을 가졌다. 본 연구는 하나로 통일된 '4·3'의 역사적 진실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4·3' 연구와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는 '4·3'의 진실성 자체보다는, '4·3'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4·3'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4·3'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4·3'에 대한 각 개인들의 기억의 차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즉 본 연구는 마을 내에서 '4·3'에 대한 기억들이 '진실'을 둘러싸고 어떻게 공존하고 있으며, 그 기억과 증언 중 어떤 이야기는 공식적 이야기가 되고 어떤 이야기는 공식적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맥락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어떤 연구참여자의 특정한 이야기가 과연 실제

로 일어난 '사실'인가 하는 식의 질문은 논외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내용들은 기존 '4·3'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관점이나 내용에 있어 많은 비판과 수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까지 '4·3'에 관한 논의에서 이런 성격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4·3' 연구자들의 남성 중심적 관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4·3' 연구자 대부분이 제주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제주인들에게 있어 '4·3'은 일차적 경험성으로 인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화두이다.¹⁶⁾ 많은 제주인들이 오랜 동안 '4·3'에 관해 연구하며 글을 써 왔지만, 그들은 제주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숨기고 싶어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덮어두는 부분이 많았다. 제주인들은 '4·3'과의 직접적 이해관계 때문에 '4·3'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지가 더 좁다. 한 예로 오랜 동안 '4·3'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과 연구를 하고, 문학작품을 발표해 온 어느 시인은 정작 제주도에서는 '폭도 자식'이라는 오명으로 여러 제약을 받는다고 했다. '4·3'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제주 이외 지역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제기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4·3'에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4·3'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 연구참여자의 특성

'호미'마을은 친족 유대가 마을구조와 마을질서의 기본 근거가 되는 농촌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정체성은 친족구조와 성별분업 체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제주도는 마을 내혼(內婚)의 풍습을 가졌기 때문에 '호미'마을 주민들은 복잡한 친인척 관계들로 얽혀 있다. 또한 '호미'마을은 10여 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알호미'와 '웃호미'로 나뉘고, '웃호미' 내에서도 알동네와 큰동네로 구

16) 제주 출신의 작가 현기영은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주의 거친 땅에서 용출(湧出)한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사랑과 증오, 분노와 좌절의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꼭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이다. 그 악몽의 현장, 가위눌림의 세월, 그게 나의 고향이었다. 그러니 고향은 한마디로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의 전부였고 행복과 출세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내 소설의 모태는 4·3항쟁」, 『역사비평』, 1993년 봄호, 163-164.

분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부락간에는 위계화가 존재하였으며, 위계화에 따른 갈등과 세력다툼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알력은 '호미'마을 내의 중심과 주변집단 사이에 위계적 차별을 둠으로써 마을 구성원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과거 안氏 집성촌으로서 '호미'마을이 가졌던 혈연적 공동체의 전통적 권위와 정통성을 재구축해가는 과정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남성(아버지, 남편)을 매개로 하여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한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사회적 정체성의 차이가 '4·3' 과정에서 여성들간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각각 다른 집단의 여성들을 구술자로 선정하였다. '호미'마을은 부계 조상 제사의 규범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들의 존재 유무는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들이 있는 여성과 아들이 없는 여성을 구별하였다. 또한 재가(再嫁)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재가를 선택하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4·3' 이후 재가한 여성과 재가하지 않은 여성의 차이를 두었다. 그리고 여성의 삶과 비교하기 위해 남성 두 사람을 포함시켰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I -1>과 같다.

<표 1-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 별	연 령	결혼 상태	거주상황	거주 마을	자녀 수	경작 형태	비고
사례 1 부○○	여	74	배우자 '4·3' 당시 행방불명. 재가(첩) 후 이혼	독거/자택	알동네	1남	자작	대한부인회 회 장 역임. 현 노인회 부회장
사례2 고○○	여	77	배우자 '4·3' 당시 사망. 재가(첩) 후 이혼	독거/ *밖거리	큰굴왓 → 웃동네	1남	자작	
사례 3 조○○	여	78	배우자 '4·3' 당시 사망. 이후 홀어명으 로 살아옴.	독거/밖거 리(임대)	웃동네	2남	소작	대한부인회 회 장 역임. 현 노인회 부회장
사례 4 차○○	여	78	이혼 후 재가한 상 태에서 배우자 '4· 3' 당시 사망. 이후 홀어명으로 살아옴.	독거/밖거 리(임대)	알호미 → 알동네	1녀	상속	양자를 들임.
사례 5 한○○	여	80	배우자 '4·3' 당시 사망. 이후 홀어명으 로 살아옴.	큰아들가 족과 동거	알동네	1녀2 남	상속	사례4와 사돈관 계
사례6 고○○	남	68	배우자 있음	핵가족/자 택	웃동네	2녀 2남	자작	현 노인회 총무
사례7 김○○	남	78	배우자 있음 첩은 사고로 사망	부부/자택	알동네 → 웃동네	6남 매	자작	이장·면의원· 노인회 회장 역 임

*제주도 민가는 일자형 가옥으로서 반드시 둘담으로 울타리가 둘러져 있다. 한 울타리 안에 가옥이 한 채 있는 형과 두 채가 있는 두거리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거리집의 경우 안쪽 건물을 안거리라 부르고, 바깥쪽 건물을 밖거리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밖거리보다 안거리 건물이 더 크다. '호미'마을에서는 두거리형인 경우 안거리에는 아들 내외가 살고, 밖거리에는 어머니가 독거하거나 동네 할머니에게 세를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안거리와 밖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더라도 독립되어 있으며, 화장실(물론 실외에 있다)을 같이 사용하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안거리 건물들은 현대식으로 신축되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나 밖거리 건물들은 60년대 지어질 당시의 형태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제2장 ‘호미’마을

1. 자연환경

‘호미’마을은 제주도 해안 마을에서 한라산 쪽으로 6~7km 가량 올라가야 하는 중산간 마을로서, 읍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이다. ‘호미’마을은 10호 미만의 작은 자연마을부터 50호 규모의 큰 자연마을까지, 10여 개의 자연마을들이 흩어져 이루어진 마을이었다. 그러나 ‘4·3’ 이후 규모가 작은 마을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규모가 컸던 마을들을 중심으로 집촌(集村)의 형태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현재는 알동네와 웃동네가 ‘8’자 모양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본동네(웃‘호미’)¹⁷⁾, ‘4·3’ 당시 전략촌이 되었던 창선동(알‘호미’)¹⁸⁾, 본동네와 창선동 사이에 이재민 복구 주택으로 만들어진 신선동, 목장 가까이에 있는 선산동과 신설부락인 ○○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진입로가 되는 본동 입구의 너삼거리 동산에 마을회관과 리사무소가 위치해 있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생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해안가 마을은 대부분 용천을 통해 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중산간 지대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런 사정은 ‘호미’마을도 마찬가지여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곳에 빗물이 고이면 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4km가 넘는 길을 걸어가 허벅¹⁹⁾으로 식수를 길어 날라야 했다. 그래서 “낮 씻을 때 물 하영 쓰민 저승강 그 물 다 먹어사 한다(세수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면 저승가서 그 사용한 물을 다 먹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은 큰 식당이 생겨 연못으로 꾸며져 있는 ‘반못’이 옛날에는 공동 빨

17) ‘웃’이란 말은 ‘위’라는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본동네를 웃‘호미’라고도 부르고 있다.

18) ‘알’이란 말은 ‘아래’라는 의미이다. ‘4·3’ 이전 알‘호미’는 여러 개의 자연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4·3’과정에서 모두 불에 타 폐허가 되어버렸다. ‘4·3’이 끝난 후 전략촌을 중심으로 마을이 복원되면서 알‘호미’는 ○○동으로 개명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명된 이름을 창선동이라 부르겠다.

19) 약 20ℓ의 물이 들어가는 웅기 그릇으로 원거리를 등짐 운반하여야 하므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둥이가 매우 좁다.

래터이자 목욕터였다.

마을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숲은 난대성 상록 활엽수 지대로 면적이 광활하고 주변에는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1971년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한 숲 속에는 수십 개의 자연동굴들이 있어 돼지를 치는데 이용되기도 하고 여름철 피서처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 동굴들 중에서 ○○굴을 문화재 신청중이다. 또한 '호미'마을 내에는 '오름'이라 불리는 기생화산이 7개 솟아있는데, 이 오름들은 이웃마을과의 경계선을 따라 한라산과 연결된다. '호미'마을이 갖는 이러한 지형적 조건과 자연환경은 '4·3' 당시 무장대에게 좋은 은신처가 되었다. 무장대는 '호미' 숲에서 토벌대의 눈을 피해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고, 숲 속의 수많은 자연동굴에서 피신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주변의 해안 마을 사람들도 상당수가 '호미'마을의 숲으로 피신을 왔었다. 마을주민들은 '4·3'에 관해 말할 때면, "'호미'숲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동굴만 없었더라도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제주도 마을 중 우리가 피해가 제일 컸을 것이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호미'의 자연환경이 '4·3'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면서 마을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호미' 숲은 마을의 공동자원으로서 옛부터 마을의 이해관계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해방이 되어서는 숲의 벌채권을 두고 마을 내에서 알력과 다툼이 있었고, 이것이 '4·3'과 맞물리면서 경찰세력과 무장대세력의 충돌을 가져왔다. '4·3' 직후에는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마을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 되었고, 이후 상산림계·하산림계로 구분되어 마을주민들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숲의 개발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장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은 숲을 유원지로 개발하고 주변에 산책로 등을 만들기 위해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반면, 일부 산림계원들과 노인세대들은 개발의 방식이나 혹은 개발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향토지에 따르면, '호미'마을은 1250년 경 현氏 할머니에 의해 설촌(設村)이 되었

다고 한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알‘호미’ 일대와 마을 곳곳에서 고려시대의 기와 조각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설촌 연대를 6백 50여년 전으로 추측하고 있다. 마을의 설촌 신화는 당곳을 통해 구전되고 있는데, 신화의 내용은 구술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대정에서 살기가 힘들었던 안氏 조상 삼형제는 사냥이라도 해서 먹고 살기 위해 한라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호미’마을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인가를 찾아 해마다가 우연히 현氏 할망을 만나게 되어 오막살이에 사는 현氏 할망에 의지해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용의 형상을 한 산신이 삼형제 앞에 현신하였는데, 산신은 큰형도 막내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째가 자신의 행장을 기울이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나타났거든 이 속으로 들어오면 청룡백호 명당 좋은데로 모셔 위하겠습니다”하고 말하자 그 산신은 둘째의 행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한라산신은 알‘호미’의 당동산에 좌정하게 됐고, 둘째는 ‘호미’마을에 남아 부귀영화를 누렸다(『학구향토지』 1984).

그런데 이 설촌신화는 안氏 집안의 수호신과 연관이 있다. 안氏 집안 수호신의 내력을 살펴보면, 안동에서 입도(入道)하여 ‘호미’마을에 정착한 선조 삼형제가 어느날 비를 피해 바위 밑에 앉아 있는데 귀 달린 큰 뱀이 나타났다. 막내동생이 상의를 벗어 “저의 조상이로구나. 이리 오르십시오”하니 뱀이 기어올라 와 누웠다. 곧 모셔 가서 집터 윗밭에 모시니 일시에 거부가 되고 벼슬이 대대로 나서 집안이 번창했다고 한다(현용준 1986). 설촌신화와 일가수호신의 연관성은 ‘호미’마을 부락 공동체의 신이 본래는 안氏 일가의 수호신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안氏 집안의 수호신이 전체부락의 수호신으로 변모한 사실은, 이 마을이 안氏 선조에 의해 개척된 마을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개척 씨족인 안氏에게 마을 내에서 특별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행정 체계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이루어졌을 때, ‘호미’마을은 정의현(현재의 제주시)으로 왕래하는 중심 행로였다. 그리고 이 지역 땅이 매우 기름지고 오곡이 잘 되었으므로 주민의 생활이 윤택하여 큰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안氏가 알‘호미’에 정착한 후 문氏와 김氏들이 동네를 이루어 이웃마을들과 왕래하며 생활하는 동안 교통이 점차 발전하였다. 이들 안氏, 문氏, 김氏 등이 문과에 급

제하여 중앙 요직에 등용됨으로써 ‘호미’마을은 제주 삼읍에서 유명해졌다. 그래서 각지의 명가문들이 본 리로 이주했고, 안氏 가문의 사위로 본동에 정착하는 이들이 많았다. 1674년, 1727년 각각 여름 한발로 흉년이 들었을 때, 안氏가 나라에 진휼미를 기민하여 벼슬을 받기도 하였다. 1892년에는 안승관이 제주관관에 도임되어 교육열을 일으켜 김홍두 선생이 해산제 서원을 설치하였으며 본 부락을 중심으로 학당 및 서당을 설립하여 후진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본리 유림들이 제주향교를 출입하여 훈장, 도훈장, 반수 등 많은 학자들을 배출함에 따라 이때부터 ‘호미’마을을 양촌 또는 양반촌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호미’마을은 점차 호수가 늘어나 350여호에 이르는 큰 부락으로 발전하였고, 인구도 1500여 명에 달하였다. ‘호미’마을은 생수가 없어 식수난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농토가 비옥하여 오곡이 고루 잘 되었으므로 ○○읍에서 농토와 집값이 가장 높은 마을이었다. ‘호미’마을에는 옛지명들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병사의 교련장이던 병대왓과 승리의 개가를 올린 개선발, 진을 쳤던 진터, 활을 쏘던 사장발 등이 있다. 다른 곳들은 모두 개인 소유의 밭이나 과수원으로 변했으나 사장발은 군(郡)소유지로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구기장으로 관리 이용되다가 1993년도부터 리소유지로 바뀌어 이용되고 있다 (『○○읍지』 1975).

3. 사회경제적 배경

‘4·3’ 당시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었기 때문에 ‘4·3’ 이전의 마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모두 소실되고 없다. 또한 ‘4·3’ 이후의 자료들도 리사무소에서는 1년 동안만 보관하고 모두 폐기해버리고 있었다. 매년마다 읍에서 ‘현황’이란 제목으로 읍 내의 마을들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각 리사무소로 보내고 있는데, 그 자료들에는 이장과 부녀회장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해가 바뀌어 이장과 부녀회장이 바뀌면 이 자료들은 그냥 폐기된다. 따라서 마을의 변동상황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마을사람들의 기억이나 신문 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현재 ‘호미’마을은 상·하동, 창선동, 구선동(가명임), 선산동(가명임), ○○단지 등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예로부터 마을의 중심을 이루어온 것은 상·하동을 합

친 본동과 창선동이며, 선산동은 ○○에 가깝고 나머지 4개동은 신설부락이다. '4·3' 당시 마을 내 모든 가옥들이 전소되어 주민들은 주변 해안 마을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3~4년 동안 '호미'마을은 일시 폐촌이 되었다. 그러다 1951년에는 창선동에 성을 쌓고 소위 '함바집'이라는 연립 가건물을 지어 마을 주민들을 모두 이곳에 살게 하였다. 창선동에는 '4·3' 당시의 석성(石城)의 잔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1954년 입산금지가 풀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올라가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전처럼 흩어져 살기보다는 모여 살기를 원했고, 노동력과 축력(畜力)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서로 모여 살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마을 규모가 컸던 본동과 창선동을 중심으로 마을 재건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작은 규모의 동네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사라진 동네에 집을 가졌던 사람들은 본동이나 창선동에 자신의 집을 지을 땅이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본동에서 방을 빌어 셋방살이를 해야 했다.

'4·3' 당시 제주도 당국은 '4·3'으로 피해를 입고 해안 마을에 살고 있던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2,074세대로 파악하고 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복귀농 정착사업을 추진하였다. 『난민정착(4·3 사건 피해상황 조사)』이라는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제주도 당국과 정부는 1954년부터 복귀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존 마을 중 일부를 다시 복구시키면서, 여기에 기존 주민뿐 아니라 피난민들 중에서 희망자를 모아 함께 복구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제주에 살고 싶지 않아, 또는 혹시 빨갱이나 폭도로 몰리카 두려워 일본으로 유지로 흩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복구 계획을 세웠더라도 자기 동네를 복구할 사람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못했다. 그 때문에 살기 어려운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전쟁 피난민들이 새로운 중산간 지대 주민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을들이 조성되었다.

<표 II-1> 인구세대가옥 및 피해복구상황조사서(1955)

(단위: 호, 명)

里名	部落名	'4·3' 이전*		복구상황(1955)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호미 마을	본동	305	1,567	123	554
	백해동	24	143	-	-
	선산동	65	331	-	-
	창선동	38	195	25	114

자료: 『난민정착(4·3사건 피해상황조사)』. 1955. 정부기록보존소 필름복사자료, 재구성.

*‘4·3’ 이전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조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표 II-1>을 보면, 1954년 입산금지가 풀리면서 마을 재건이 이루어지지만 본동과 창선동만 재건될 뿐 나머지 두 부락은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동과 창선동 또한 재건된 규모가 이전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못한다. 현재 ‘호미’마을에는 본동과 창선동에만 ‘호미’마을 출신의 토박이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신설 부락들에는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토박이 마을과 외지인 마을간에는 구별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리행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컸다. 이런 이유로 본동과 창선동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진 신설 부락인 신선동은 ‘호미’1리로 구분되어 ‘호미’ 출신의 토박이들이 주로 살고, 선산동 외 나머지 신설부락들은 ‘호미’2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외지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표 II-2> 인구 변동상황

(단위: 호, 명)

연도 행정구역	'4·3' 이전		1990		1996		1999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호미1리	약350	약1,500	190	813	224	723	228	716
호미2리			63	257	106	296	140	367
계	350	1,500	253	1,070	330	1,019	368	1,083

자료: 『○○읍지』, 『학구향토지』, 『리사무소 현황표』를 기초로 구성.

<표 II-2>를 보면, 토박이들이 살고 있는 ‘호미’1리는 ‘4·3’ 이후 가구수나 인구수에 있어 큰 변화 없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나, 외지인들이 살고 있는 ‘호미’2리는 가구수와 인구수에 있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호미’1리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정체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하며, ‘호미’2리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표 II-3> 토지 이용 현황(1975)

(단위: ha)

구분	합계	농지(경지)	초지	임목지	기타
호미1리	1,968.8	290.4	466.8	1,150.1	61.5
호미2리	1,241.2	81.2	527.8	596.0	36.2
계	3,210.0	371.6	994.6	1,746.1	97.7

자료 : 『○○읍지』, 245, 재구성.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마을의 전체 토지 중 경지 면적은 371ha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땅은 임목지인 숲이며, 주민들은 1960년대 초까지 이 숲에서 솥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을 만들거나 쌀로 바꾸어 생활하였다. 그런데 이 숲이 1971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벌목과 벌채가 법으로 금지되었다. 초지는 목장으로 이용되는데 ‘4·3’ 이전까지는 공동목장으로 마을주민들에 의해 운영되어왔다. 알밤오름과 윗밤오름 사이의 넓은 목장은 예전에는 국장으로서, 나라에 진상할 말과 소를 키우던 곳이었다. 축산(畜産)은 몽고가 제주도에 마장을 설치하여 군마(軍馬)를 기른 이래 적지(適地)로 널리 알려져 왔고, 이후 한라산 주위의 넓은 목장에서 소와 말떼를 방목하여 왔다. 특히 ‘호미’2리는 경지가 적고 초지가 넓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목축을 하며 생활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마을 명의로 등재된 마을 공동재산을 시·군의 소유로 이전해버렸다. 따라서 ‘호미’마을의 경우 주민들 다수의 공동 명의로 등록되었던 초지들은 여전히 마을공동 목장으로 남아 있으나, 마을 명의로나 마을 대표자 명의로 되어있던 초지들은 공유지가 되거나 외부

의 토지 브로커들에게 넘어가 버렸다. 초지를 잃은 사람들은 소나 말을 키울 곳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목축을 하지 못했고, 또 경운기가 도입되면서 소나 말이 하던 일들이 상당 부분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인구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발붐이 일면서, 주민들 다수의 공동 명의로 등록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자 그 토지를 마을 명의로 바꾸어 등재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그렇게 해서 토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농지의 경우 모두 밭이며 주요 작물은 조와 보리였다. 1966년 밀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채나 콩, 무, 수박, 배추 등의 재배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밀감 재배(농가수입의 70% 차지)를 하고 있다.

1962년 6월 9일 제주도 당국은 '호미'마을 '4·3' 이재민 원주지 복구 기공식을 갖고, 이재민들에게 5월부터 12월까지 양곡 배급과 개간 사업비를 융자하여 도로 정비, 음료수 시설 등 복귀를 위한 기초 사업을 마련하였다²⁰⁾. 이에 따라 1962년에는 4개년 계획으로 간이공동 급수시설 사업을 시작하고(1969년에 완성되어 4개의 공동 수도가 생긴다), 1963년에는 수원 개발을 위한 심정굴착 사업을 벌였으나 수맥을 찾지 못해 실패하였다. 수원개발이 실패하자 식수난을 덜기 위해 다음해에 봉천수를 받기 위한 지붕 슬레이트 개량 사업을 하였고,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도로 포장을 하였다. 마을 안까지 길이 닦이게 되자 드디어 1965년부터 제주시-‘호미’간 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에 시까지 18.5km의 길을 걸어다녀야 했다. 1974년 지하수 개발에 성공하여 지하수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기공사를 함께 함에 따라 ‘호미’마을은 개인 수도가 가능해지고²¹⁾ 전기불까지 들어

20)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융자한 돈은 한일 수교에 따른 한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였다. 군사정권은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근대화를 위해 많은 자금을 융자했었기 때문에, ‘호미’마을 주민들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무척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때가 가장 좋았다’는 아련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

21) 1961년 애월읍 수산리를 시작으로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하수에 의해

오게 되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20리 길을 걸어가 물을 길러와야 했던 ‘호미’마을 여성들의 삶에 개인 수도의 도입은 삶의 양식을 바꾸어 놓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4. 교육적 배경

일본 제국주의는 1922년부터 제주의 각 면마다 1개의 공립 보통학교를 세우는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 보통학교 출신자들은 각 마을 내에서 ‘공부 깨나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항일운동시에나 ‘4·3’ 당시 이들이 활동의 주축이 되었다. ‘호미’에서는 안집(안氏 가문)의 젊은 남자들 중에 보통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4·3’을 겪으면서 모두 살해되었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을 ‘참 똑똑하여났주’라고 기억한다. 안氏에게 시집가서 ‘4·3’으로 남편을 잃은 사례3은 “다시는 그런 똑똑한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재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편 여자들은 보통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그때는 향사집[당시 공립보통학교 고학년들을 따로 마을 향사에 모이게 해서 일본 유학 출신 청년들이 이들에게 사회주의 사상과 조선독립사상을 가르쳤다]에 나가는 여자는 쓰일 곳이 없다고 했죠. 여자가 보통학교를 다니면 요즘 술집 여자처럼 취급을 당할 때였어요”²²⁾라는 증언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개량 서당을 만들어 한문을 가르쳤고, 간이학교라는 사립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우리 한자 서당이 있었다구. 한자 쓰는 건 괜찮았어. 우리 한글 쓰는 건, 그거 쓰려 하면 한사람 저리 가 보초 세우고. 자꾸 왜정학교에서 와서 감시, 감독 하라 해서 그 주변생이 자꾸 감시하러 오더라구.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저리 가 학교에서 누가 오는가 해서 보초 세워 ‘가까거겨’ 쓰고. 서당에는 남자들만 다녔어. 여자들은 안 다니고. 여자들은 다닌 것 없어. 서당은 해방 전까지 계속 있었어. (사례6)

1980년대 초에는 그 이전 전국 최하위의 상수도 보급률이 역전되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평균 80%) 최고의 보급률(100%)을 갖게 되었다(송성대 1996, 146-148).

22) 제주 한림면의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당시의 교육 상황에 대해 증언한 내용에서 인용하였다. 「한림면 현장조사」, 『제주항쟁』, 1991. 214-215.

‘호미’마을에도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에는 남자들만 갈 수 있었다. 서당은 마을의 집들 중에서 집이 크고 주인도 학식이 있는 집을 골라 옮겨 다니며 했었다고 한다. 간이학교는 2학년까지 있었으며, 간이학교를 나오면 보통학교 4학년이나 5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호미’ 간이학교는 1936년도에 세웠었는데 인근 마을과 해안 마을인 H에서도 올라와 다녔었다고 한다. 1학년에 40명, 2학년에 40명 정도 있었으며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이 중 여자는 졸업한 사람이 3명이었고, 10명 정도가 학교를 다녔었다.

나만 학교를 못했지. 먼저 [태어]나니까 심부름하고 다른 것들 하나까. 우리까지는 간이학교가 ‘호미’에 있어났주게. 열 다섯에 학교를 붙였으면 될껀디 그 해에 못 붙어 뒷해, 또 뒷해 해가니까 중매도 뭐시구 해가니까[중매도 들어오고 하나까]. 중매[장이]들이 [여자가 학교 다니면] 일 못한다고 학교를 아니 붙여 줘. 지집아 학교를 뺏하리[여자가 공부해서 뺏 하리]. 경해[그래서] 아니 붙여 줘 못해연, 이젠 또 시집가고. (사례3)

여성노동 중심의 발농사 체제를 발달시켜 온 ‘호미’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경제 활동을 담당하여 왔다. 척박한 토지 생산성으로 인해 부족한 식량을 마련하고자, 여성들은 탕건 등을 만드는 일에도 종사해야 했다.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주요 노동력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잣집 딸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게다가 ‘여자가 공부하면 시집 못 간다’는 통념은 여성 교육을 방해하는 또 다른 걸림돌이었다.

올래에서 노는데 [친구가 학교가자고] 오라고 막 해도 안 갔지. 요만한 고사 입고 뺄쓰를 입었냐 뭐 입었냐 그 어릴 때. 막 가자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저기 산에 가서 고인 물에다가 비누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벗어 놓고 나대로 빨아 입고 갔다. 학교는 며칠 못 다녀. 며칠 못 다닌 이유가 있지. 아버지가 욕하니까. 자꾸 곱아서[숨어서] 학교 안 간다고 해서 가고. 책보를 저기 들어오는데 감춰놓고. 딸은 옛날에 공부를 시켰냐? 그때 월사금 내는 거 닳돈 지금 같으면 십전이야. 그것도 못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주질 안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몰래 어떻게 탕건 팔 때 조금 덜 받았다고 해서 그 돈 조금 주면 갖다 내고, 책은 손에 들고 오다가 저런데 감춰놔, 아버지 몰래. 오빠는 서당에도 다니고 공부 많이 했어. 지금 대학생 보단 낫지. 한문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대학생보다 나아. 아들들이사 철저하게 [돈을] 주지. 선생님이 와서 간이학교 끝날 무렵에 날 국민학교에 보내시라고 막 몇 번 오갔다. 내가 남자 성격[처럼] 팔팔했는가봐. 저렇게 머리도 명칭 안한테 시키면 여자라도 쓸만할꺼다해서 선생님이 설득해도 아버지가 허락을 안하셔.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사정사정해도 아버지가 절대 안된다고 했었어. 돈도 없었고 집안에. (사례1)

여성들이 김매기, 탕건 만들기, 물 길어오기, 동생 돌보기 등 가족을 위한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에 종사할 때, 남성들은 서당이나 간이학교, 보통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다니며 유교 교육과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호미’ 간이학교는 1944년 국립국민학교로 승격되어 해방 후 학교 건물도 새로 지어졌으나, 1948년 10월 18일 ‘4·3’으로 전교사가 소실되어 폐교되어버렸다. 이후 전략촌인 창선동에 살 때 초가로 가교사를 지어 1950년 8월에 H의 ‘호미’ 분교로 세워졌다가, 1954년 4월 마을재건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지어져 ‘호미’국민학교로 다시 승격되었다.

5. 주민들의 마을 정체성과 마을의 권력구조

‘호미’마을 주민 중 나이 드신 분들을 붙잡고 마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한결같다. ‘호미’마을은 양촌이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마을 정체성은 양촌에 산다는 자부심이다.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중산간 마을의 상당수가 양반촌이라면, 바닷가 해안 마을은 ‘갯촌’으로 천시되었다. ‘호미’ 주민들 또한 양반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안 마을과는 혼인조차 거절하였다.

제주의 마을은 대체로 해안 주변 지역의 마을과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 마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당시 해안가는 왜구의 잦은 공략과 노략질로 인해 위험하였으므로 많은 마을들이 바닷가를 피해 중산간 지대로 옮겨갔다. 특히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을 잇는 내륙의 도로 주변에 양반 유림촌이 형성되었고, 이들

마을이 제주도의 중심 마을로 번영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의 농촌은 토지생산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자기 농토를 가지고 있더라도 보조적인 생계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해안 마을은 반농반어로 농업과 수산업을 겸하였고, 중산간 마을은 농업과 목축업을 겸하였다. 그러나 양반들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극히 꺼려 바닷가 마을을 기피하였다.

<표 II-4> 1913년 총인구에 대한 수산업 종사 비율(겸업 포함)

구분	총계	수산업	비율(%)
가구수(호)	48,100	8,752	18.2
인구(명)	196,774	12,388	6.3
여성	104,684	8,391	8.0
남성	92,090	3,997	4.4

자료: 남석진,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9권, 1989, 226쪽.

출처: 濟州郡勢一斑 <全羅南道 濟州郡廳, 大正3(1914)년간>

<표 II-4>를 보면 일제시대 초기까지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매우 적었으며, 수산업 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볼 때 해녀활동 위주의 수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의 제주인의 생활 중심지는 해안지역이 아닌 중산간 지역이었으며, 농업을 주업으로 했었다. 당시 해안 마을의 주민들은 경지 면적이 적고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생활 자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은 축산과 화전으로 인해 해안 마을 주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있었다. 이같은 환경이 중산간 마을이 전통사회에서 생활권의 중심이 되게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조선시대의 행정 중심지였던 대정과 정의를 비롯한 중산간 마을은 서서히 쇠퇴한 반면 해안 마을이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제시대에 해안부락을 연결하는 일주도로가 개설되고 자동차 교통이 시작되면서, 면사무소 등의 행정체계가 해안 마을로 이전되었다. 또한 수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제

력의 중심이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의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나는 여기 안 오고 싶었는데, 마을사람들이 하르방에게 그 당시 이장을 썩워 버린거야[남편을 이장으로 선출한거야]. 하르방이 내가 이장할 동안 밥이나 해여 달래서 왔다가 그냥 여기 있는거라. 경허연[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거라. 나는 너무 고생해여 막 맨날 울기만 했어. 이 동네 물도 나쁘고 이제는 수도나 있지. 비 와서 받은 물을 먹자면 물에 버려지 뜨고. 그것도 먹는거냐며 말짱 버려버리고. 외도는 물 좋다고 소문난 곳이야 제주도에서. 서귀포 다음으로 외도가 제일 커. 외도에는 다 생수밖에 없어. 경헌데[그런 곳에서] 살다 여기완 살려니 눈물로 지새고. 참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지. (이○○)

이○○氏(72세)는 외도(제주도의 해안 마을) 출신이다. '4·3'으로 인해 경찰이 되어 외도지서로 가 있던 박○○氏를 중매로 만나 주로 해안 마을에서 살다가, 박○○氏가 경찰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들어올 때 함께 '호미'마을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氏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호미'마을이 무척 싫었다고 한다. 특히 '호미'는 수도시설이 없어 물 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눈물로 지새워야 할 만큼 고생스럽고, 뒤쳐진 마을이었다.

연애할 때는 허벅(물을 길어 나르는 용기 그릇)으로 물길어 시집에 가져가고 그랬어. 남편이 좋아서. 몰라, 그냥 막 좋대. H에서는 '호미'로 시집 안 와. 수도도 없지, 전기도 없지, 버스도 없지. 살기가 안 좋거든. 그때 우리마을은 그런게 다 있었거든. 그러니 여기로 아무도 시집오려고 안하지. H서 여기로 시집온 사람은 나뿐이라. 나도 남편이 좋아서 연애했으니까 왔지. (안○○)

50대 나이의 안○○氏는 그 당시로는 드물게 연애 결혼을 해서 '호미'마을로 들어왔다. H는 '호미'마을 바로 아래에 위치한 해안 마을이다. 과거 '호미'마을사람들은 H를 갯촌이라 해서 천시하였으며, H 사람들이 땀감을 구하기 위해 '호미'마을로 들어오기라도 하면 마을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쫓아내곤 했다. 따라서 '호미'마을과 H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일제시대부터 H로 지나가는 일주도로가 생기

면서 H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었고, 특히 60년대부터 개발붐과 함께 관광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지금 H는 유명한 해수욕장이 되어 한 해 평균 소득이 ‘호미’마을보다 조금 더 높다. 그리고 교통 편에 있어서도 ‘호미’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H와 ‘호미’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 버스는 하루에 8대 정도가 다닌다.

‘호미’마을은 여러 면에서 개발이 뒤쳐져 있지만 그래도 마을 주민들은 오랜 역사와 양반촌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호미’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학구제’이다. 1969년 3월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라 2학군 22학구제가 발표되면서 ‘호미’마을은 주변의 세 마을과 함께 H학구제로 묶이게 되었다(제주실록 1997). ‘호미’마을 사람은 무조건 H 중학교에만 가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H에는 1965년에 중학교가 생겼는데, 이를 두고 ‘호미’ 주민들 중 나이 든 이들은 “[그]절로 당한 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호미’에만 간이 학교가 있어서 H 사람들이 ‘호미’에 올라와 다녔었는데, 이제는 ‘호미’ 사람들이 H에 내려가서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학구제가 생기자 젊은 사람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구제가 마을을 망하게 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호미’마을 내에서는 “‘호미’에서 나간 사람은 안되고, 외지에서 ‘호미’로 들어온 사람은 잘된다”는 언설과 “‘호미’는 움푹한 지형이라 공무원이 안난다”는 언설이 존재하여, 마을 주민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런 언설들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주민들은 “하는 말이 그래” 혹은 “옛날 하르방들이 그랬어”라고만 알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언설들을 신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점차 이 언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처음 연구자가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말도 바로 이것이었다. ‘호미’는 외지에서 들어오면 잘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들어와서 살면 좋을 것이라며, ‘호미’에 들어와 잘된 외지인들을 소개해주었다. 어떤 이는 이런 언설들에 대해, ‘호미’가 옛부터 양촌으로 잘 살았으므로 주민들이 콧대가 세어서 외부에 나가면 적응을 잘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첫번째 언설은 조선시대 말기 중산간 마을의 전반적인 쇠

퇴와 더불어 ‘호미’마을이 점차 세력을 잃어가자, 주민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관리가 많이 배출되었던 마을의 전통과는 달리 풍수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공무원이 나올 수 없다는 언설은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시대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은 곧 친일을 의미하였다. 항일의 전통이 강했던 ‘호미’지역에서는 자연히 공무원이 없거나 적었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 요인들이 풍수지리 담론에 의해 결정론적으로 강화되어 ‘호미’ 주민들의 의식을 더욱 통제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4·3’으로 인한 연좌제로 또다시 공무원이 되는 기회가 차단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들로 인해 이들 언설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970년대 시작된 근대화로 마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언설들의 예외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 언설들도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호미’마을 내 자연마을 간에는 마을의 설촌 역사와 경제 활동에 따라 위계가 존재하였는데, 이런 위계적 차별화를 통하여 마을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호미’마을 내 10여 개의 자연마을 중 가장 먼저 설촌된 곳은 알‘호미’와 웃‘호미’이다. 이 둘 중 어느 곳이 먼저 설촌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만나는 이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마을 리지(理誌)를 만들 때에도 마을의 설촌장소를 두고 웃‘호미’의 ‘실물가름’과 알‘호미’의 ‘문구례 집터’ 중 어느 곳이 먼저인지 계속 다투다가 결국 리지를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²³⁾.

23) 알‘호미’와 웃‘호미’의 알력관계를 반영하는 전설이 있다. 웃‘호미’와 알‘호미’는 호수와 인구가 비슷하게 살았는데 글짓기, 씨름 등을 할 때마다 언제나 알‘호미’가 우세하였다. 어느 날 풍수신이 웃‘호미’ 너삼거리를 지나가다가 혼잣말로 ‘산도 수려하고 아름답고 좋구나. 그런데 상하가 고르지 않아 다툼이 많겠구나’하고 지나갔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이 동네 훈장에게 아뢰었다. 훈장은 급히 그 풍수신을 청해 주안상을 차려놓고 술을 권하며 ‘좀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하여 주시고 조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하였다. 그러자 풍수신은 좌우를 물리치고 조용히 ‘작은 민중산 돌을 둥그려버리면 됩니다’하고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호미’의 알바배기 오름 앞에는 큰 민중산과 작은 민중산이 있었다. 풍수신의 말을 듣고 웃‘호미’ 청년들은 밤에 작은 민중산 돌을 둥그려 버렸다. 그러자 기이하게 알‘호미’ 부자와 인걸들이 하나 둘 마을을 떠나 호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 후에 큰 민중산 돌도 누군가

이 두 마을은 공동체 의례를 두고도 알력이 있었다. 웃‘호미’에는 마을의 설촌자인 현氏 할망을 모시는 ‘할망당’(탈남발당)이 있고, 알‘호미’에는 설촌 선조에게 나타났었던 토지신을 모시는 ‘하르방당’(본향당)이 있다. ‘4·3’ 이전에는 알당에는 알‘호미’ 사람들만 가고 웃당에는 웃‘호미’ 사람들이 주로 갔었다. 그런데 알당은 안氏 가문과 연관이 있고 웃당은 김氏 가문과 연관이 있으며, 이 두 가문은 ‘호미’마을에서 가장 성했던 가문들이었다고 한다. 이것을 볼 때, 당의 설립자와 장소에 따라 신앙인 집단이 달라지며, 이것은 마을의 공간 분할과 정치적 알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3’으로 안氏 가문이 몰락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알력들도 변모하였다.

웃‘호미’는 알동네와 웃동네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자연마을간에도 전통적 권위와 정통성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였다. 알동네와 큰동네의 경계를 이루는 커다란 폭낭(팽나무) 아래에는 ‘뜸돌’이란 것이 놓여 있었다 한다. 뜸돌은 둥그렇게 생긴 큰 바윗돌로서, 길거리에 놓아두어 젊은이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가로 포장으로 땅속에 묻혀버리고 없다.

뜸돌을 폭낭 아래 놔두고 그놈을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해. ‘호미’지명이 안 좋은가봐. 동네가 보면 잘 싸워. 웃동네는 자기네 동네만 좋은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경허면[그러면] 우리[알동네]는 우리대로 자부심 가지고 살지. 뭐가 어떻게 해서. 알동네와 큰동네가 ‘8’자 모양으로 생겼어. 저기 오름 보이지? 그 오름 뒤에 가면 똑같은 오름이 있어. 조금도 변하지 않애. 똑같애. 그런데 이쪽 오름에 올라가서 보려면 저쪽 오름으로 막아져서 못보고, 저쪽 오름에 올라가서 보려면 이쪽 오름으로 막아져서 못보고. 똑같애, 오름이. 그래서 그런가봐. 조금도 안지려고. 어디가 얄으든지 높으든지 하면 좋겠는데 똑같애. (사례1)

이렇듯 자연마을들은 설촌의 역사와 거주 성씨(姓氏)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서로 그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 갈등하는 것이다. 마을 내 갈등은

가 둥그려 버렸다. 그 후부터 그 옛날 훌륭했던 인재를 찾을 길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읍지』 참조).

‘공식적인 마을 만들기’에서 침묵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리지를 만들거나 공동의 건물 혹은 시설을 설립할 때 자기 마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알력이 생겨난다. 1985년에 노인회관을 설립할 때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자연마을간 다툼이 있었다.

노인당 짓자하니까 부지가 선정 안되는거야. 우리 하는 소리는 한가운데 해야 우선 사람 많이 사는 한가운데를 해야 그디서도[거기서도] 내려오기 좋고 우리도 가기 좋지 않느냐. 저기 하면은 진짜 우리는 1년에 한두번 갈 수도 없어, 너무 멀어서. 그리고 거기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때부터 싸움을 한 거야 우리가. 그럼 부락회의를 하자. 부락회의에서도 노인들이 알지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참견하느냐....이제 그러다가 다시 노인회로 돌아오는 거야. 노인회가 선정해서 지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저 사무실로 가서 회의를 한거 아니니.

결국 노인회관은 알동네와 웃동네의 경계에 세워지게 되었다. 자연마을간에 일어나는 정치적 알력은 ‘호미’마을 내의 중심과 주변 집단 사이에 위계적 차별을 둠으로써 마을 구성원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과정이며, 과거 안氏 집성촌으로서 ‘호미’마을이 가졌던 혈연적 공동체의 전통적 권위와 전통성을 재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4·3' 발발과 전개과정에서의 여성 경험

1. 해방공간에서의 갈등과 '4·3' 발발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은 미군에 계속 밀리게 되자, 제주도를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최후 보루로 설정하여, 제주도 곳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군사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민들을 대상으로 징병과 징용을 확대하고, 공출의 양도 대폭 늘렸다. 마을마다 20~30명 가량의 청년들이 징용 당해 타국으로 끌려갔고,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도 있었다. '호미'마을에도 많은 청년들이 북해도(홋카이도)의 탄광으로 차출당하였고,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딸을 서둘러 결혼시키기도 하였다.

안칩[안氏 가문]이 '호미'에서 이거[최고]였는데, 왜정 때 일본군위안부로 처녀를 보낸다 해서 그 집에서 박○○에게 시집보냈지. 딸을 위안부로 안 끌려가게 하려고. 친정 어머니는 막 울었대. 시집 잘못 보냈다고. 박○○은 그 할아버지가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좋은 가문은 아니지.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 육지에서 들어오면. 그런데 박○○이 시에 가서 지금 여자를 만나거라. 그 여자가 노래도 잘하고 장구도 잘 치고 그랬다고 하대. 그래 새각시 얻고 나서 부인을 막 때린 거라. 때리는 것 본 사람도 여럿이지. 그 때는 '4·3' 이후니까 경찰이 이거 아니니. 아무도 말못하지. 잘못 말하면 총 쏘아버리는거 아니니. 그러니 말도 못하지. 그 여자는 다른 데로 재가하고 그 딸은 외할머니가 키웠어. (사례1)

'호미' 주민들의 삶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식량 공출과 물자 공출이었다. 어려운 살림에서도 공출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기 일쑤였고, 공출을 내고 나면 정작 자신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다.

고구마 해 가지고 썰어 말려 바치고, 보리 갈아 보리쌀 바치고. 길 닦으러 저산에 가고. 새 베다가 바치고, 쇠순가락도 몽땅 바쳐버리고, 그냥 불화로도 몽

땅 가져가 버리고. (사례2)

일본은 전쟁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강탈해갔다. 그리고 갖은 종류의 부역을 만들어내어 마을마다 할당량을 내려보냈다.

삼월 나면 고사리가 막 나. 그러면 그 고사리를 꺾어서 몇 군데를 내야 해. 반으로 내고, 어머니 즉시 내고 나 즉시 내고 청년대로 내고. 어머니는 수술을 받아 놔서 쉰 일을 못해. 그러니까 고사리도 많이 꺾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다 해 놓고. 내가 그때 열여덟살이야. 고사리를 산에 가서 많이 꺾어다가 일로 바치고 절로 바치고 이렇게 해야 돼. 참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사례1)

1945년 2차 대전 말기, 미군은 제주섬에 공습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군사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군사시설 공사에 제주민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제주 민중에게 돌아갔다.

내가 열여덟살에 해방이 됐어. 저 원에 8일자 일을 갔어. 한 집에 한사람씩 반으로 나가야지 안 나가면 안되여. 왜정때 마지막이지. 다 조질 때. 주정공장에 공습도 떨어져났어. 주정공장이라면 너 모르지. 술공장이야. 큰 술공장. 지금 편집 부두에 배 대는데 술공장이 크게 있었어. 공장에 와서 공습 때려버리고 송당[地名]에 검질 때는[김매는] 사람 둘을 맞춰버리고. 비행기에서 다 쏘아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 여자도 죽었고, 공장도 그냥 폭발탄 ‘퐁’ 여기서도 다 들렸어.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밤에 구르마에 짐 싣고 올케랑 같이 왔어, 이리로. 그 봄에 8일자 일을 내가 나갔어. 일을 가면 군인들이 막 일을 시켜. 그때는 무슨 기계로 미는 게 있나. 생명을 다 일일이 팽이로 파고, 막 호미로 꿇치고. 숲속에 길 만들어가느라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도 팽이로 파면서 삽으로 흙 긁어내면서 호미로 낱[나무] 꿇으면서 막 톱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길을 닦으지. 8일동안 하고 집에 와보니까 [사촌]오빠가 광주에서 왔어. 해방돼서.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보고 해방됐다고 안하고 자기네 죽어질 줄 알고 우리 일만 시키고. 그래서 뒷날부터 우리 일을 안 갔지. 오빠가 해방됐다고 일 가지 말

라고. 지금 같으면 라디오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으니까 누가 똥만 크게 뀌어도 다 알잖아. 그때는 사람이 백만 명이 죽어도 우리는 몰라. 지금 같으면 외국일도 다 아는데 그렇게 몰랐어. (사례1)

제주 민중에게 해방은 미군기의 공습과 계속된 강제 공출과 노역, 징용, 징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해방 소식이 일반 민중에게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교통, 통신시설의 미비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해방 소식은 8월 15일이 훨씬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사실로 다가왔다.

해방이 되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마을은 잠시 행정과 치안 공백 상태가 되었다. 거기다 북해도로 징용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강제징용과 공출에 앞장섰던 ‘친일 부역자’들에 대해 보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마을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마을의 치안 유지를 위해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며칠을 간이학교집에서 회의를 한다, 부락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할 때에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 회의한다고 하니까 남의 집에 아버지들은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학교로 만세 부르고 들어오는데 우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막 울었어. 말도 못하게 울어져. 우리도 아버지가 살았으면 저렇게 할 텐데. (만세 부를 때는 남자들만 가서 했어요?) 다 모였지만은 그래도 남자들, 청년들이 워낙 싱싱하니깐 뭐. 청년들이 싱싱했어. 여자는 맥도 못 뵈어. 그때는 남자들이 워낙 싱싱해. 부락이 막 싱싱해. 다 남자들이 일류가는 청년들이었고 이제 생각해도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못해질 것 같애. (사례1)

마을 조직은 마을에서 똑똑하다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청년단과 자위대, 치안대 등의 형태로 구성되었고 이후 중앙에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마을 유지들을 위원단으로 하여 건국준비위원회로 조직화되었다. 그러다 9월 말경 중앙(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자 ‘호미’도 인민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다. 인민위원회의 결성과 더불어 청년·부녀·문화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제주도 부녀동맹은 1947년 3·1 사건 직전에 결성되었다. 부녀동맹이 결성되기 이전에도 부녀회 등의 여성조직이 제주도 전역의 읍, 면에 조직되어 있었다(양정심 1999, 55). 부녀동맹으로의 개편은 보다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여성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였다²⁴⁾. 부녀동맹 출범식에서 위원장 김이환은 개회사를 통해 “조선의 해방은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무산 대중과 1천 5백만 여성의 해방 없이는 도저히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조직체를 가짐으로써 이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된다”고 선언하였다. 부녀동맹의 간부들은 대부분 읍내 명문가 출신들로 당대 최고의 인텔리 여성들이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7, 230). 이들 부녀동맹 간부들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 도중 발생한 ‘3·1발포사건’ 이후부터 경찰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²⁵⁾.

한편 제주4·3연구소에서 채록한 증언자료집인 『이제사 말함수다』를 보면, ○면에서 나왔던 여성활동가들은 90% 정도가 과부 아니면 두 번째 부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1989, 16). 이 여성들은 집안의 생계를 직접 담당해야 했던 이들로서, 그들이 활동하게 되는 계기에는 일부다처제, 남녀차별, 가부장제 등 봉건적 요소의 자극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적고 있다. “나는 일부일처제가 좋아서, 후세들이나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 싸웠다”고 어느 여성활동가는 말

24) 1947년 3·1 시위 때 제주도 부녀동맹이 내세운 표어는 다음과 같다. “남녀평등 법령 즉시 실시! 국가 부담에 의한 태모(胎母)와 유아의 보호! 국가 부담에 의한 산전 산후 12개월 이상의 절대 보호! 부인을 구속하는 일체의 봉건적 유습의 소탕!”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문건」, 『제주항쟁』, 1991, 164에서 인용)

25) 3·1대회의 행사 인원 동원은 각 면·리에 방대하게 조직되어 있던 민청과 부녀동맹이 주로 담당하였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던 여성들도 부녀동맹의 지휘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3·1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부녀동맹위원장 김이환과 당 부녀부장 고진희가 체포되었다(양정심 1999, 77). ‘3·1발포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주도는 온건 성향의 토착 좌파세력의 주도 아래 자율적인 지역공동체가 구축되어 유지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군정과 좌파세력 사이에 이렇다 할 충돌도 별로 없었고, 좌우 세력 사이의 갈등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47년 ‘3·1발포사건’ 이후 제주도에서는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급속히 증대되었고, 미군정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앞세워 좌익 세력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했다(정해구 1999, 184-196).

하고 있다(제주4·3연구소 1989, 17). 봉건적 가부장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던 여성들은 주로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설립된 야학을 통해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다.²⁶⁾ 특히 여성들은 일부일처제의 확립으로 봉건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남성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 좌익이 제시한 여성해방의 전망 때문에 좌익 세력의 지지 기반이 되었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양정심 1999, 75). 이렇듯 여성활동가들은 남성활동가들과는 다른 종류의 전망과 기대를 가지고 당시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여성활동가들의 이러한 경험과 관점은 남성활동가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여성들에 관한 증언이나 자료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이 해방공간과 '4·3'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이 점은 '4·3' 연구자들에 의해 앞으로 발굴,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민위원회 초기에는 기존의 자생적 조직을 기반으로 주로 마을의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하였다. '호미'에서의 인민위원회 치안활동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치안대에서 맡았다. 치안대 활동은 주로 도박이나 숲의 나무 도벌을 막는 것이었고, 친일행위자에 대한 징벌을 행하는 것이었다.

김○○氏가 이십대에 이장을 했어. 그때 북해도로 강제노동 이주 당한 사람이 많았어. '호미'에서도 김○○氏가 차출하여 많은 이들이 북해도로 강제징용을 갔지. 해방이 돼서 '호미'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왜정때 세사람이 탈출해 와서 일본서 잡으러 오기도 하였지. 김○○氏의 오촌이 해방되고 나서 이장을 했어. 어떻게 해서 이장이 됐는지 부락민도 모른 거라. 그래서 데모가 났어. 그 이전 이장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지. 북해도에 갔던 사람들이 감정이 있어서. 김○○氏는 동백동산으로 도망가서 광주로 탈출하였어. 그렇게 해서 악화된 거야, '호미'가. (사례6)

이장 그때는 구장이지. 그 어른 죽인다고 동네 청년들이 막, 그때 만주로 북

26) 제주도의 야학운동은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여성운동의 관계는 해녀투쟁에서 잘 나타난다. 해방 이후에도 자주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부녀야학이 이루어졌다.

해도로 사람들을 뽑아서 징용가는거 저기[일제당국]서 해 보내라고 하면 이리 [마을 이장]서 누구누구해[라고] ‘딱’하면 갔지. 해방되니깐 그 이장을 죽이려고 하잖아, 청년들이. 저기 썩은 통낭[큰나무] 있었지. 그때 나무가 울창했어. 그냥 밤에 청년들이 거기 모여 가지고, 우리야 그때도 어린 때니까 처녀 때고 뭐 아냐. 그냥 외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몽둥이, 장작 그냥 죄다 들고 그 집에 가서 그놈 죽인다고 막 모여 서서, 친척이라도 빠지면 죽인다 이거라. 그러니까 친척들도 나선거지. 청년들이 그때는 참 싱싱했어. 이장네 집이 나무 바로 뒤에, 막 부잣집이고. 지금 그 분이 살았지만은. 그냥 죽인다고 해가니까 아마 누가 살짝 가서 말해줬겠지. 숨으라고. 말 안 해줬으면 죽잖아. 죽인다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 들어가 보니까 없거든. 막 나오면 죽인다고 몇 날 며칠 모여 다녀. 그런데 부락민이 모여서 회의하는 도중에 구장이 나와 가지고 옆드려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기도 자기가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거든. 그때 스물한살에 구장 살았어. 똑똑한 분이야. 그렇게 됐지 뭐. (사례1)

해방 이후 제주의 청년단체는 크게 좌파청년단체와 우파청년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좌파청년단체는 해방 직후 청년동맹으로 결성되어 건국준비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참여하여 일제 잔재 청산과 친일파 제거, 사회개혁 등의 과제들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4a, 145). 많은 청년들이 이에 참여하였고, 가장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 청년동맹은 후에 민청으로, 민애청으로 변천과정을 겪는다. 우파청년단체로는 1947년 9월 대동청년단이 결성되었지만 청년동맹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그 조직력은 미비하였다.

‘호미’에서의 청년동맹과 대동청년단은 안氏와 부氏의 대립 양상을 띤다. ‘호미’에서 안氏 세력은 마을의 부자들로 살았지만 글을 깨친 지식인층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해방 이후 마을의 주도세력으로서 친일파 제거와 개혁에 앞장섰다. 이들은 청년동맹을 이끌었고 마을 주민들도 이들을 지지하였다. 반면 부氏는 일제시대 일제와 결탁하여 ‘호미’²⁷⁾ 동백동산 벌채 허가를 받아냈다. ‘호미’간이학교가 1944년 ‘호미’공립국민학교로 승격되면서 학교 건물을 짓

27) ‘꽃’은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을 이르는 제주말이다.

기 위한 자금을 위해 행정기관은 부氏에게 5년간의 벌채 허가를 주었다.

‘호미’국민학교 지을라니까 ‘호미’꽃을 부氏한테 판 거여. ‘호미’꽃은 부락 공동꺼지. 부락에서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 거여. 그런데 동백나무, 지금도 동백동산하는데 동백나무는 안 짜르기로 했는데. 벌채를 하고 나니까 동백나무가 없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진상조사를 나가보니까 동백나무를 다 잘라버린거 아니. 그래서 이제는 산림계 직원이 진상조사를 나왔어. 동백나무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해서 부락의 젊은 사람들이 이거 동백나무 안짜르기로 했는데 동백나무는 백프로 살리기로 했는데 동백나무가 다 잘려서 없더라,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간거 아니니. 가보니까 동백나무를 다 잘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거 중단하라.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부락 대 부氏 대결이 된 거여. (사례6)

잡목을 베는 조건으로 벌채 허가를 받은 부氏가 동백나무마저 베어버리자 마을 주민들은 벌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氏는 이에 응하지 않고 숲을 나르던 차에 서북청년단을 태우고 와 청년들을 테러하였고, 벌채 사건에 관한 마을 총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부〇〇가 차에 서청을 태우고 와서 어거지로 젊은 사람들을 막 때리고 팍팍 댄다 말이며. 여기 청년들이 모아진 때에는 잡아 패 죽여버리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는, 우린 자꾸 모일 수가 없단 말이며. 그냥 땡기다보면 때리려고 하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주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죽게 매를 맞으니까. 서청, 이북에서 나온 놈들은 막 먹은 놈들이거든. 그냥 여기서 총회를 못하게 군단 말이며. 이것이 제주도에 우익이니 좌익이니 나온 것이주게. 여기는 부氏하고 고氏하고 안氏가 많이 살았었는데, 부氏하고 [서청이] 편을 했던 말이며. (사례7)

이 과정에서 부氏와 마을의 중심세력이었던 안氏 간에 대립이 발생하였고, 부氏가 불러들인 경찰이 안氏 청년들을 붙잡아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4·

3'이 발발하였다²⁸⁾. '4·3' 발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47년 3·1대회에서 일어난 발포사건이다. 제주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를 리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면에 있는 국민학교에 모여 전도적(全島的)으로 거행하였다. 미군정은 3·1절 기념행사와 관련한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날 기념집회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좌파세력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제주북국민학교에만도 3만명 가량의 군중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집회 도중 기마경찰이 탄 말에 어린이가 채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경찰이 어린이를 내버려둔 채 그냥 가려하자 모였던 군중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그 순간 경찰이 군중에 발포함으로써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이 발포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관공서와 학교까지 참여하는 전도적인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미군정은 이에 맞서 용원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극우 청년단체원들을 제주에 대거 내려보내 물리력으로 검거공세를 전개하였다. 경찰의 검거가 계속되자 마을청년들은 검거망을 피해 일본이나 육지로 피신하거나 입산하여 몸을 숨기게 되었고, 마을에는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경찰이 주둔하여 혐의자나 혐의자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²⁹⁾했다. 서청은 고문과 수탈을 수시로 일삼아 1948년 3월 들어 고문치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1947년 말부터 중산간으로 피하기 시작한 젊은이들은 이 일을 계기로 서청의 횡포와 미군정의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무력항쟁을 결심한다. 이리하여 '4·3'이 시작되었다. 입산한 무장대는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를 전후해 한라산과 주위의 각 오름들에 일제히 봉화를 올리면서 제주에 있던 24개의 지서 중 11개 지서를 습격한다(제주4·3연구소 1991, 249). 이때부터 산에 오른 젊은이들은 '폭도'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이들을 '산사람'이라고 불렀다.

'호미'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산으로 올라갔다. '호미'에는 토벌대의 주목을 받는 무장대의 주도자급 인물이나 사상자가 없었지만 '호미'곳 별채와 관련한 마을의 알력이 젊은 청년들을 마을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무장대는 마을

28) '4·3'의 발발 원인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는 문제이다. '4·3'을 공산폭동으로 보느냐, 민중항쟁으로 보느냐, 양민학살로 보느냐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발발의 원인에 대한 설명 방식도 각기 다르다. 본 연구는 마을 역사를 중심으로 '4·3'을 재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주도의 사회사적 관점을 채택하여 대략의 사건들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던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밤중에 습격한다.

그때 대동청년이란 걸 조직할 때주게. 공회당 사무실에서 밤에 지키고 있을 때 산에서 내려오난 그때 하여간 세 사람이나 죽었지. 세 사람이나 쏘아서 죽이고. (사례7)

3·1절 시위사건과 총파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미’꽃 벌채사건으로 마을 내에 경찰과 서청이 들어오면서 청년들은 검거를 피해 산으로 몸을 숨겼다. 그 공백을 타서 ‘호미’마을에는 대동청년단이라는 우파청년단체가 만들어져 이전에 청년동맹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청년동맹은 안氏 청년들이 주도하였다면, 대동청년단은 부氏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무장대는 이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

그때 뭇이야. 도둑놈이 많이 있던가봐. 순찰막이 있었어. 요기 바로 이 치커리에. 목목마다 이렇게 천막 모양으로 지어서 몇 사람씩 방범, 이제 보니까 방범이지. 거기 사람[대동청년단]이 몇 사람씩 맨날 지켜 밤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새벽 몇 시쯤 됐나. 시간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밤이 깊었지. 날이 좀 밝아올 때야. 거기 누구 있냐고 그 막에 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거든. 듣고 5분도 없어 가지고 팍하는 소리가 나더라. 총소리가. 딱 한 번에 총소리가 와작작 하니까, 세군 데서 한꺼번에 나는 것 같애. 그걸 모르고 아침에 밝아보니까 사람이 죽었잖아. 우리 육촌 오라방 하나 죽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다해. 누구 총 맞아라. 산사람이 한 거지. 그 오빠가 우리 작은 아버지 아들인데 좀 힘이 켜어 그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동네에 연락자가 있어. 없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 나중에 보니까 부○○, 우리 오빠 이름이 부○○야. 부○○ 총 맞아라하고 총을 쏘다는 거라. 그 사무실로. 우리 오빠는 워낙 빠르지. 그러니까 아마 그 총이 비껴갔던가봐. 우리 오빠는 그냥 발으로 뛰어내리고 다른 사람이 총을 맞아버렸어. 탄사람이. 같이 방범 지키다가. 그래 밝아보니까 영장이 둘이 난 것 아냐. (사례1)

이 사건에 대해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에서는 ‘4월 16일 밤 ‘호미’

리 반동 부○○를 숙청'이라고 적고 있다(문창송 1995, 64).²⁹⁾ 그러나 이날 무장대는 몇몇 지목했던 사람이 몸을 숨기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저녁 무장대는 부씨네 집을 찾아가 다시 '숙청'을 시도한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가니까 시에 갔던 형제가 와서 앉은 거라. 그러니까 저리로 안에 있느냐고 하니깐 누구십니까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총을 뒤로 한 걸 봤다는 거야. 사촌오빠 둘이 앉았다가. 총 꺼내는 걸 보니까 한 명이 그냥 땀 거라. 나르방으로 해서 뒷문으로 뛰어 나가고, 하나는 맞아 죽었어. 형제가 앉았다가. 그분들이 삼형제야. 삼형제인데 제일 먼저 작은 동생이 죽어버린거라. 삼형제인데 둘이만 살고 하나는 죽어버린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이 담아든거라[들어온거라].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깐. (사례1)

이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호미'마을에는 또다시 검거선풍이 휘몰아쳤다. 경찰과 서청은 거의 날마다 마을로 올라왔고, 그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마을 주민들은 경찰이 올라오는 차소리만 나도 피하기 일쑤였다. 7,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스스로 소년단을 구성하여 마을 어귀 높은 동산에 올라가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이런 소년단은 중산간 마을마다 생겨났는데, '호미'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 '호미' 소년단은 안판관의 직계 종손이었던 안○○氏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고, 그때 안○○氏의 나이는 8살이었다. 아이들은 조를 짜서 망을 보다가 마을로 들어서는 경찰이나 서북청년단이 보이면 세워뒀던 긴 장대를 얼른 눕혔다. 사람들은 어디서 뭘하든지 장대 끝을 살피다가 뉘어지는 게 보이면, 젊은 남자와 여자는 숨는 것이다. 들에 나가 일을 하던 사람들도 주변의 꽃이나 동굴로 피했다. 마을 주변의 높은 지대에는 몇 군데 신호대가 있었다. 경찰이 나타나면 '검은개'하고 소리를 치기도 했고, 군인들이 마을에 나타나면 '노랑개'라고 외쳤다. 검은개, 노랑개는 그들이 입은 옷 색깔을 가지고 구별한 것이었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현상수기에 당선된 임두홍의 「내가 겪은 사건 실기-4·3폭

29) 이 책은 당시 경찰이 유격대의 아지트를 토벌하던 중에 입수한 것으로, 경찰이었던 문창송이 보관하여 오다가 1995년에 원문에 해제글을 묶어 발간한 것이다.

동」에 실린 체험기는 당시 청년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경찰이 가고 난 다음날엔 군인들이 대체되어 마을에 들어왔다. 군인들은 순경들보다는 행패를 안 부렸지만 그들의 목직한 차림은 순경들 이상으로 마을사람들에게 불안을 주었다. 그들 역시 닭과 돼지와 개의 사냥에는 무척이나 익숙했다. ... 토벌대들은 이따금 갑자기 마을로 나타나서 가택수색을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하나씩 둘씩 잡혀가고 그들이 숨었던 집은 군인들에 의해 타 버리곤 했다. 토벌대가 찾아오는 횃수가 점점 많아지자 마을에서는 좀 높은 곳에 대나무로 표지를 세워 두고 순번제로 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순경들이나 군인들로 이루어진 토벌대가 오면 대나무를 뽑아서 누여 놓고 달아난다. 그러면 집에서나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날새게 연락을 해서 젊은이들은 모두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토벌대가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 그들 젊은이들 중 진짜 빨갱이는 과연 몇 명이나 있었던 것일까? 토벌대에 잡힌 젊은이는 사형을 당하고, 혹은 끌려가고 또 그 자리에서 병신이 되도록 못매를 맞았다. 따라서 그들은 토벌대에 적개심을 갖게 되고 관(官)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산으로 들어가 숨지 않으면 안 되었다(제민일보 4·3 취재반 1994b, 259에서 재인용).

‘호미’가 속한 면은 옛부터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했고, 활동가들이 많았던 지역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 지역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이 지역의 중산간 마을들은 ‘민주부락’으로 불렸던 곳이다. ‘4·3’ 초기에는 입산자 가운데 민가에 기거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경찰의 손이 뻗치지 않은 중산간 마을에 뿌리를 내렸는데, 입산자들은 이런 마을을 ‘민주부락’이라고 불렀다. ‘호미’는 그 중에서도 당시 산사람들의 거점지였다.³⁰⁾

마을 주민들은 청년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는 읍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등이 자주 열렸는데, ‘호미’에는 청년들이 많아 그때마다 마을 청년들

30) 이런 사실들은 ‘호미’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인근마을 사람들이 ‘호미’마을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판단한 것이다.

이 상을 타고 우승을 하였다. 옛부터 ‘호미’는 판관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배출 되었으므로 주민들은 똑똑한 청년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을 것이라 믿고 따랐다.

마을 청년들은 자기네끼리 합심을 해서 온 리민에게 선전을 하는 거라. 그러면 마을사람들은 안 들을 수가 없었어. (제주4·3연구소 1989, 106)

시국 전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좋았어. 축구도 하면 상 타오고, 절궁도 잘해서 상 타오고. ○○읍에서 상타서 힘센 하르방이 나륙쌀 한가마니 이고 H에서부터 춤추면서 왔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 (사례2)

‘호미’는 여러 가지로 무장대가 은신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첫째는 마을 주민들이 산사람에 대해 동조적이었으므로 양식과 의류 등의 물자 보급이 용이하였다. 둘째는 ‘호미’의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제주에는 크고 작은 기생화산이 한라산 허리께에 360여 개 솟아 있는데 이 자그마한 산을 제주사람들은 ‘오름’이라 부른다. ‘호미’ 마을 내에 솟아있는 7개의 오름들은 이웃 마을과의 경계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오름들을 타고 옆마을의 꾀꼬리 오름을 넘어서면 한라산 중허리로 연결된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호미’마을은 ‘4·3’ 당시 유격대의 집결지³¹⁾였으며 제주도당도 이곳에 있었다. 무장대는 마을과의 유대 속에 마을의 기습시위, 빼라 배포, 봉화 올리기 등의 일을 했다.

여성의 경우 무장대 지원 활동은 부녀동맹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부녀동맹은 부잣집 딸이라 간이학교 등의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었거나, 부녀야학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빈곤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는 젊은 여성들 중에는 무장대에 직접 참여하여 산에 올라가 활동하는 이들도 있었다. 부녀동맹 여성들은 또래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장대 활동에 대한 선전활동을 열심히 했다. 여성들이 담당한 무장대 지원 활동은 주로 식량과 의복 등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물자의 수거와 운반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맡았다.

31) 미군 정보 보고서인 「G-2 보고서」(제민일보 4·3취재반, 1995에 수록되어 있음)에는 ‘여자 30명을 포함해 약 80명의 유격대가 ‘호미’리 산악지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48년 8월 10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야 명칭이라 몰랐지만 부잣집이서 공부도 한 똑똑한 여자들은 겁나게 활동을 많이 했수다. 그때사 열 다섯 살만 되면 활동해신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더 날뛰면서 잘들 함디다.³²⁾

이들은 머리를 땅은 사이에, 혹은 쪼신 새끼를 꼬을 때 그 사이에 뼈라를 넣어서 어디 어디 가서 “머리를 빗고 와”라든가 “신발을 갈아 신고 오라”든가 하는 암호로 정보를 전달하였다. 산에서는 연락하러 하루에 세 차례씩 마을로 사람이 내려왔다. 여성들은 산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마을에서 구하여 접선지역에 갖다 놓았고, 마을 내부의 동태들을 알려주었다.

죄없는 사람들 많이 죽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죽었다. 많이 죽었어. 여자 친구들. 나보다 하나 밑에 하나 위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 시집도 못 가보고 산에서 많이 죽었다. 죽은 것도 말도 못하지. 그때에 어떻게다가 어린아이라도 있어 산에 안가서 나같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 구전이 됐고, 애기 없어 조금 신바람[심부름] 활동한 사람들은, 여기 있지를 못했으니까 다 꼬사가서[끌고가서]. (사례1)

무장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던 여성들은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민족해방 그리고 여성해방의 과제를 수용하여 항쟁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즉 이 여성들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외부인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공동체를 지키는 한편 공동체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키려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4·3’을 겪으며 대부분 살해되었다. 이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도 이 마을을 떠나 멀리 육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호미’마을에서 ‘4·3’에 주체적으로 참여했거나 주도했던 이들은 ‘4·3’ 과정에서 대부분 살해되었다. 이들의 경험과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남긴 문건이나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데, 여성의 활동 경험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32) ‘호미’의 인근마을인 ○○ 출신의 여성이 증언한 내용으로, 제주4·3연구소에서 채록한 증언집인 『이제사 말함수다』에서 인용하였다.

있는 인물이나 문건은 없었다. 남성의 증언이나 문건에는 여성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간혹 있다 하더라도 남성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여성의 경험과 관점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 ‘호미’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산활동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거나 모르는 척 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은 산활동을 했던 여성들에 대해 “요망진[똑똑한] 사람들이었주”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산활동과 관련한 이야기는 ‘4·3’ 초기부터 경찰편이었던 사람들 몇 명에게서만 들을 수 있었고, 자세한 정보는 마을을 떠나 사는 ‘호미’마을 출신들이나 인근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니라 제주4·3연구소와 제민일보 4·3취재반, 그리고 마을 역사 공동연구자들이 수집한 자료에 도움받은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호미’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3’ 생존자 여성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따라서 마을을 떠난 여성을 연구자가 직접 만나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³³⁾

5·10 선거 날이 다가오자 마을 청년들은 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민들을 독려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뼈라가 하얗게 뿌려져 있었다. ‘호미’ 주변의 해안 마을사람들도 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중산간 마을로 올라왔다. 남한만의 5·10 단독 선거에서 제주는 무장대의 강력한 저지투쟁으로 2개의 선거구가 투표 미달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거가 무효화된다. 이에 미군정은 토벌 정책을 더 한층 강화했다. 마을의 피해상황도 점점 더 심해졌다.

그 군인들 와서 학교집[에] 살 때가 참 위험할 때주게. 학교집에 살기 전에 날 심어[잡아] 송당엘 갔어. 송당에 가보난[가보니까] 군인이 셀 수도 없고 원 말할 수가 없어. 두 살 난 애기 있는데 또 애기가 있어난거라. 임신이 된 거라. 그리 가 두드리고 다리에 나무 놓아 밟으며 막 죽일 걸로 들렸주게. 그 애기가 그만 없어진 거라, 거기서. 그때가 음력으로 9월 한 스물 날이라. 보름인가 거

33) 본 연구는 ‘4·3’ 이후 마을에 돌아오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점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기서 밤낮 보름 살고 석방시킨다해서 나온디 이젠 또 김녕으로 왔어. 평대에 김녕지서에 오난 막 배고픈거라. 군인들이 나만이 아니고 31명을 심어[잡아]간 거라. 딴 마을사람들. 우리는 배고프주게.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리서 김녕지서서 하룻밤 자. 하룻밤 자고 시에 대대본부에 간 거라. 어두워질 때 갈려고 하니까 길이 벌정해. 배고파서. 아기는 막 울고. 하도 우니까 군인 한 사람이 와서 이 얘기 무사[왜] 읊니까 하니 이 얘기 어디에 데려가 죽일려나, 우릴 심어다[잡아다] 죽일려나 막 생각을 한거주게. 그때는 조금만 해도 죽일 때니까. 거기서 보름 살았주게. 그렇게 한 달을 산거라. 한 달을 사니까 석방할건가 하면 이날도 아니하고 저 날도 아니하고. 그리서 심어간 사람 두드리는 것 보면 참 눈으로 볼 꼴이 아니라. 참 여자들도 치마 입고 가면 부속[많이] 두드리면 그 치마가 찢어질 정도로 두드리는 거라. 경허면 거의 죽어져가지고 저 사람 죽 썩어다 먹이라 하면 우린 속으로 ‘미친놈 새끼. 두드리지도 말고 죽 썩어가라도 말지.’ 경허명 해도 죽을 썩어다 줘. 죽을 썩어다 죽어 가는 사람 살리랜. 죽으면 죽였젠 얘기하니까. 경허면 그 사람들은 죽을 썩어와도 먹질 않아. 오죽 부아나면 배고파도 먹질 아니하는 거라. 두 군데서 한달 살아 석방 허연 나오난 또 군인들이 송당 있던 부대가 ‘호미’학교에 와 주둔한 거라. (사례4)

사례4는 군인들에게 잡혀가 한달 동안 고초를 당하면서 결국 유산까지 하게 되었다. 사례4가 군인들에게 잡혀갔던 이유는 산의 무장대에게 음식과 물자를 지원했다고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 심어갈 때 경해라[나 잡아갈 때 이랬어]. 우리집 아방이 목수주게. 조천[지명]에 목수하러 갔주게. 가고 난 뒤 내가 딸 세개랑 넷이 누워 있었는데 군인들이 왈각 담아진[들어온] 거라. 이 집에 앵두나무 팔 거 있냐 해. 그건 암호라. 앵두나무 팔 거 있시난 해난[있느냐 해서] 앵두나무 없다하니까, 또 거두 팔 거 있시난 해. 거두. 나무 자르는 톱. 거두는 주인아저씨 목수질하러 조천에 가져가고 없수다. 아 이게 그 집이로구나. 그추록허연 이젠 거기서 우릴 데리고 간 거. 아니. 그 군인 소대장 하는 말이, 저기 가다 보면 머구릿 동산이라는 동산이 있어. 그 동산에 올라보난 와산[지명] 사람이 내려오고 있어 그 사람을 심어[잡아] 말을 고르라[하라] 해서 말을 하는데 종이쪽지가 입으로 나온 거라. 퍼 가

지고 보니까 우리집으로 연락을 받는 거 아니. 우리집 아방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 연락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그 종이를 입에 물었다가 말하려고 하니까 [종이가 입에서 나온거라]. 군인 보이면 뱉어 던져 버리기라도 할거 아니. 앵두나무 있느냐 물으니까 우린 그걸 통 암호로 알았어?[우리가 그걸 어떻게 암호로 알겠어?] (사례4)

토벌대는 산으로의 식량과 물자 공급을 막기 위해 가옥을 파괴하고 마을 주민들을 살상하기 시작했다.

밭에서 일하는데 아홉 살난 아이가 밭에 찾아와 ‘와 봄서, 어떤 사람들이 집 막 부습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집을 부습니까’하며 와 보니 아닌게 아니라 문이고 뛰고 착착 후려 바깥에 내던져 버리고. 떡도 해 놓은 것도 앗아가 [빼앗가] 버리고, 돈도 그제돈 오천원짜리 놔둔 것도 앗아가 버리고. 소 데리고 있는 것도 앗아가 버리고. 그게 산사람 주장한 집이라 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렇게 잘못 들려보난 우리집은 경도[그렇게] 아니한 집인데 그렇게 해 봤어. (사례5)

나랑 같이 심어간[잡아간] 할망네 집에도, 우리집은 무시개[무엇] 참 앗아갈 것도 없고 바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지만은, 나랑 같이 간 할망네 집엔 그 북촌[地名]서들 와서는 그 산사람 있는 데로 올릴 걸로 비누, 미역, 쌀 같은 것들, 숟가락 그런 것들 모두 모아 놓아두니까 군인들이 가서 그리 가 더듬으니 그런 게 심어[잡혀] 나온거라. 계단[그러니까] 그 할망이 나보다 더 맞은 거라. (사례4)

토벌대와 무장대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마을주민들은 낮과 밤이 다른 생활을 겪어야 했다. 낮에는 마을에 올라온 토벌대에게 시달렸고, 밤에는 무장대가 나타나 식량과 의복을 가져갔다. 낮에는 빨갱이로 몰리고 밤에는 반동분자로 몰리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었다.

아니 내 놓으면 죽일꺼하니 우리 낼꺼했지. 쌀 받으러 오면 잡곡도 내여, 한 말도 내여, 장도 내여, 숨키(채소)도 내고 경해난. 아니 주면 아니되거든. 곧 죽이켄하니. 경하니 어명혀. 명령이 내려오난 그것들 모두 받으러 나온 것들이주게. 남자들은 별로 안 오고 여자들이 땡겼지. 여자들이 우리가 이제 쌀 못내켄하면 그 대대본부, 대장 있는데 가서 고라부려[말해버려]. 아무집에 쌀 못내켄 햄져. 고라버리면 곧 죽이려 내려올꺼 해. 그러니 아니 낼 수가 있어? 빼라 써다 마당에 하얗게 뿌리고. 그러면 이녁은[자기는] 굶어 죽어도 거기에 내여야지. 아니해서 찍히면 어명혀. (사례5)

1948년 10월 중순이 되자 군인들이 ‘호미’국민학교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경찰력만으로는 제주 사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4월 중순부터 본토의 경찰력과 경비대, 우익단체원들을 대거 증파했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4b, 65). 응원경찰대의 주둔으로 무장대나 좌익활동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토벌대는 마을 주민 모두에게 혐의들 두고 마구잡이로 체포하였다.

군인들이 ‘호미’학교에 와 주둔허면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방을 심어[잡아]오는거라. 동네에서 또 몇 개 심어오난 그렇게 해. 이번에야 내어놓을까 저번에야 내어놓을까. 나는 심어다[잡아다] 임신했다 없어졌다고[유산했다고] 그후로 취조를 아니한거라. 그전에는 막 두드리고 대적하였는데. 산에 오른 사람들이 봉화 싸지[피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석방을 시킬꺼 경하여 이제 석방을 시킬건가³⁴⁾. 그날 저녁에 산의 사람들이 그냥 봉화를 이영 막 둘러가며 막 불을 켜거라[피운거라]. 경허난 뒷날은 우리집 아방하고 열 여섯을 데려다 죽이는데 여덟 사람은 죽여버리고 여덟 사람은 살려나오는거라. 경헌디 우리집 하

34) “봉화는 오름마다 다 올랐어. 봉화가 일제히 오르면 어디에 습격든다는 신호였지. 산사람들이 어디 숨어있다가 자기네가 불리하면 일제히 봉화를 확 올리는거라(제주4·3연구소 1991, 253).” 이 증언을 통해 볼 때, 당시 무장대는 마을이나 지서로 무장습격을 할 때면 봉화로 미리 신호를 보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사례4의 이야기 중 이 말은 무장대가 습격하지 않으면 감금한 사람들을 풀어주겠다고 경찰이 약속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밤 무장대가 봉화를 올렸기 때문에 다음날 경찰이 감금한 사람들을 처형시켜버렸다는 것이다.

르방은 죽은거아니. 우리집 아방도 참 처음에 총을 맞았는데 다리를 맞았어. 조금만 있으면 막 못 견뎌도 엎드려져 죽은 채 했으면 살아날건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가슴부위] 맞아 다 죽은 거 아니. 그런데 우리집 아방만 팔만 영영 해져오니 군인이 와 저사람만 살았으니 쏘아라해서 두 번째 쏘니 가슴을 맞은 거라. 이리 맞으니 총알이 이 뒤로 나와 죽은 거. 그 죽기 전에 아예 목숨 끊어지기 전에 내가 갓주게. 아방을 일으켜 안으니 그 두 살난 애기를 업어갔는데, 죽어가며 눈을 허영게 하여 죽어가며 그 두 살난 애기를 팔로 이렇게 잡은 거라. 팔을 이렇게 잡고 숨은 다 끊어져가면서 나를 꼬집는 거라. 경허는데 이런 때 물이라도 있으면 먹었으면 살아날건디 이제 내 생각에 그처럼 하니, 그곳에 어느 할머니가 아들 저녁 해 가지고 물을 데워간거라. 아들이 죽어버렸주게. 죽어버리고 우리집 아방은 살아있으니 물이라도 있어 먹으면 총을 텐데 하니 그 할머니 앓아 하는 말이 이 물을 먹이래. 그 물을 먹고나서 눈 허영게 뜨면서 그냥 죽어버린거. 그렇게 여덟 사람은 죽고 여덟 사람은 산디. 어떤 팬 참 억울허여. 우리집 아방은 몸질만 하지 말았으면 그놈들 피해가지고 그렇게만 넘어버렸으면 살아났을 텐데. (사례4)

1948년 10월 31일, 군인들은 마을에서 붙잡아간 8명을 총살했다. 이 날 이후 마을에 남아있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피신 생활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을 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적막한 긴장이 감돌았다.

2. ‘떡’사건을 둘러싼 증언의 차이

10월 31일의 학살 사건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미’마을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 몇몇이 한 집에 모여 떡을 만드느라 밤늦도록 불을 켜 둔 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 토벌대가 그 집을 덮쳐 5명을 총살하고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이 사건은 ‘호미’마을의 ‘4·3’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나하고, 우리 친정어머니의 발 아래 나는 이렇게 눕고, 그때 어린애들도 있었지. 우리 동생들하고, 내가 어린애 하나 데리고 자는데.

아이고, ‘와작작’하는 총소리 한 마디에 뭐 그냥 하늘이 벌겋한거야. 아무튼 창문으로 불이 벌겋해. 그러니까 이건 무서워서 어떻게 꿈작할 수가 있어? 그냥 동네가 웅성웅성 군인들이 막 몇백 명이 온 모양이라, 동네에. 어이구 그냥 뭐, 이 마당으로도 구둣소리가. 밤에 총소리 때문에 우리는 그냥 총이 들어올까봐 이불 다 뒤집어쓰고 죽는 거야, 바닥에서. 우리 마당으로도 ‘와작작 와작작’ 사람이 다니고, 불이 그냥 창문에 환하게 비치는 거 있지. 동네에 와서 다 불 질러버린거야. 그래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 일어나는데도 맞은 올래집에 할머니가 한 분 있었어. 그 집 딸이 산에서 활약해. 그 사람이 우리집에 들어와, [군인이] 동네에 불 다 질렀다고, 사람 다 죽었다고 얘기해. 그 때가 날이 밝아올 때야. 일어나 보니까 뭐. 오늘 할아버지 있었지?[낮에 노인회관에 함께 있었던 할아버지를 가리킴] 그 할아버지네 작은 하르방집이 좀 부잣집이라. 그러니까 산에 갈라고 차좁쌀 해 가지고 시루떡을 막 칠 때에 군인들이 본 거라. ‘와작작 와작작’ 그냥 쏘아버리고 그 집의 식구 다 죽여버린 거라. 동네 사람들 다 모여다 놓고 하다가. 그날 동네사람들이 다 떡 치러 갔지. 나는 끼어주지도 않고 또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 핑계 대고 집으로 왔지. 그날 방에 있던 사람들은 살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군인들이 다 쏘아 불 질러 버리고, 또 그렇게 해 놓고 군인들이 이 부락으로 주둔한 거 아니야. 또 우리보고 빨리 안 내려가면 너희들도 다 죽인다, 내려가거라 무조건. 그러니까 빈손에 다 내려간 거야.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내려간 거라. 젊은 사람들은 산에 다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떡해. 안가면 너희도 쏜다 그러니까 그 때에 간 사람은 가서 살고, 그때에 거기 가면 죽는다 해서 산에 간 사람은 여자도 죽었어. 산에 많이 곱았지[숨었지]. 군인들이 여기 학교마당에 주둔해서 막 몇 천명을 담아서 했잖아. 여기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막 망한 데 아냐. (사례1)

토벌대가 마을에 소개령을 내리고 집집마다 불을 지른 것은 ‘떡’사건이 있고난 3일 뒤이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기억 속에 ‘떡’사건과 소개령은 겹쳐져 있었다. 그날 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떡을 만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어떻게 됐나하면 우리 고모라, 그 떡 찐 어른이. 당고모. 내 솔직히 얘기해줄게. 거기서 몇 사람이 희생됐는가 하면 일곱 사람. 그날 저녁. 그게 왜 그렇게 됐나. 나도 그 관계는 일체 몰라. 고모부가 올래³⁵⁾에 나와서 죽었고, 동네 할머니가 죽었고, 또 어느 쪽엔가 죽었고, 또 요쪽 동백동산쪽에서 그날 저녁 한 사람이 죽었고, 또 고모 데려 온 사람이 있었다구. 실종됐어. 시체 지금 못 찾아. 원 고향은 어딘지 나 어릴 때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가서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서 떡을 만들었는지는 몰라. 떡은 만들어져 있었어. 타다 남은 거 내가 봤어. 나 어릴 때에도 고모 집이니까 고모가 어떻게 되었나해서 가서 고모시체는 타다 남았다해서 조금 가서 묻었고. (사례6)

사례1은 그날 떡을 만든 것은 산에 피신해 있는 마을 청년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안○○氏(60세, 남)는 다르게 증언한다. 10월 중순부터 군인이 마을에 주둔하였다가 “마을 주민이 협조를 잘 해서 피해를 안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H로 철수하였다. 그런데 11월 18일날 군인들이 H에서 ‘호미’로 올라오다가 어느 집에서 떡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산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안되겠다, 봐 줄 수 없다”고 도망가는 할머니를 쏘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웠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너희들도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안○○氏는 그날 떡을 만들었던 것은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군인들이 잘못 안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례6은 왜 그날 떡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각각 다르게 기억하고 해석하고 있었다.

‘호미’마을의 ‘4·3’ 역사는 50년 동안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다. ‘4·3’에 관해 말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 ‘4·3’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 다르므로 하나로 통일된 ‘4·3’의 진실을 구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증언이 가지는 진실성은 모호하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과거 사건에 대한 증언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들이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자신들이 그때 겪은 일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

35) 제주도 가옥은 대문이 없고 길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 있는데, 이것을 ‘올래’라고 부른다.

해 준다. 그러므로 생애사와 같은 구술 역사에서, 기억이란 한편으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지만, 기억의 내용 자체는 과거 사건의 복합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호미’마을에서 위 사건에 대한 상충되는 두 가지 증언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마을 내 존재하는 정치적, 사회적 관계들을 보여 준다. 안○○氏は 사건 당시 9살이었다. 그러므로 안○○氏は 그 사건을 직접 기억하기보다 그의 가족이나 주변의 어른들에게 그렇게 전해 듣고 기억하는 것이다. 안○○氏の 형은 당시 15세의 중학생이었는데 ‘왓샤부대’³⁶⁾에 참가하였다가 후에 토벌대에게 살해되었다. 따라서 안○○氏の 기억에는 형의 억울한 죽음, 토벌대에 대한 원망 등이 들어 있다. 무장대와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폭도’로 규정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그리고 ‘폭도가족’은 마을 내에서 발언권이 제한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상황에서, 과거 토벌대의 가공할 폭력에 가족이 희생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가족의 무고한 죽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4·3’ 폭력의 원인을 외부에서 들어온 토벌대에게 두는 형식으로 증언을 구성하였다.

반면 사례1은 그의 친족 몇 명이 무장대에게 살해되었고, 이 일로 그의 친족 중 젊은 남성들은 시로 가서 경찰이 되었다. 사례1 자신은 특별히 우익이거나 반동적 행위를 한 적이 없지만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장대에게 찍혀 밤낮으로 시달림을 겪어야 했다. 이 사실을 아는 마을사람들은 사례1을 멀리하여 동네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아예 말을 붙이지 않는 식으로 따돌렸다. 따라서 사례1은 토벌대 자체를 탓하기보다 ‘토벌을 불리일으킨’ 무장대에 대한 원망이 더 컸다. 사례1의 ‘4·3’에 대한 시각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일치한다. 그는 ‘4·3’은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일으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폭도가족’이 아니라 ‘경찰가족’으로서 그는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위치를 갖는다. 이에 반해 폭도가족은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친정 가족이 ‘4·3’ 당시 토벌대에게 살해당한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36) 무장대는 시위를 할 때 서로 어깨를 걸고 마을 주위를 행진하거나 뛰면서 ‘왓샤! 왓샤!’하고 외쳤다. 그래서 당시 주민들은 이를 ‘왓샤시위’라 했고, 시위대를 ‘왓샤부대’라 불렀다.

우리 친정이 그때 지목되어 죽은 사람들만 없어도, 만일 내가 경찰 자식쯤만 됐어도, 그때 본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친정 가족들 문제가 있어 노난,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가족이 그런 일을 해나부난 사상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봐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³⁷⁾

외부에서 ‘4·3’ 취재를 위해 ‘호미’마을에 들어왔을 때 공식적 증언자가 되는 이들은 경찰 출신이나 경찰 가족들이다. 연구자가 위의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개별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폭도가족’들은 안○○氏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사례7과 ‘경찰가족’들은 사례1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두 이야기 중 공식적 이야기로 채택되는 것은 사례1의 증언이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의 글에서 ‘역사적 사실’로 채택된 것도 사례7의 증언이었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이 두가지 상충되는 내용의 증언을 모두 듣고 비교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한가지를 ‘사실’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 자리에서 공식적 증언자의 위치를 갖는 이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렇게 기술한 것인지 연구자는 알지 못한다. 또한 연구자는 어느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연구자는 외부인으로서 증언자간의 차이를 비교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어느 것이 역사적 진실이냐를 밝히기보다, 연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증언하느냐에 따라 증언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증언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억과 현실관계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특정 이야기가 공식적 증언으로 채택되는 과정이 이 마을 내에서 어떠한 맥락을 갖는가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마을공동체 파괴와 주민 이동

1948년 11월 18일날 떡을 만들던 집에서 일어난 학살 이후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가 ‘호미’곶으로 몸을 숨겼다. 토벌대는 텅 빈 마을에 불을 질렀고, 숨어 있던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이 소개령은 1948년 10월 17일 발표된 포고문에 따른

37) ‘호미’마을 인근의 해안마을 출신의 여성이 증언한 내용으로 『이제사 말함수다』 I, 제주4·3연구소, 1989에서 인용하였다.

것이다.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 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하여 차등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히 숙청코자 하니 도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임.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 (『朝鮮日報』 1948.10.20).

이 포고문에서 토벌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지점’은 산악지역 등 어떤 특정한 지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제외한 중산간 마을 전부를 포함한다.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의 통행금지란 결국 거주를 금지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토벌대에 의한 무분별한 학살은 그 이전에도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이 포고문이 발표되고 난 후 11월 중순부터 ‘대토벌 작전’이 벌어진다.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다. 중산간 초토화 작전은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의 주민들이 무장대에게 도움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채택되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모두 해안지대로 소개시킨 뒤 무장대가 은거할 수 없도록 마을 전체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전법으로, 이를 어기고 중산간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폭도배’로 간주, 처단한다는 작전명령이 하달된 것이었다.

‘4·3’에서의 엄청난 인명 피해는 바로 이 초토화 작전 기간동안에 일어났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수만 명의 제주 민중이 희생됐고,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탔다. 1949년 3월 12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제주도내 전체 400개 마을 중 295개 마을이 전멸 당하여 현재 105개 마을 밖에 남지 않았으며 소실(燒失) 가옥은 2만여 호나 되는 참담한 형편이라 이에 대해 제

주도 민간 대표들이 서울에 올라가 국무회의에 동포의 참담한 실정을 보고하고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아라리연구원 1989, 213-214).

이 시기 이전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학살의 대상이었으나³⁸⁾, 이후부터는 80대 노인에서부터 서너 살 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학살당했다. 초토화 작전은 소개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개시킨다는 것은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의식주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사라진다는 것은 그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을 엄청난 어려움, 궁핍, 기아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소개령이 내리자 ‘호미’마을 주민 중 해안 마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소개해 내려갔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계속 굴 속에 숨어 있었다. 소개를 갈 연고가 없기도 하였지만, 잠시 피신해 있으면 금방 진정되리라는 예측과, 가을철에 수확한 많은 곡식들을 그냥 두고 떠나기 아까웠기 때문이다.

토벌을 다니면서 모두 H로 내려 오라 했지만 재산, 축산, 목산, 가을이라 곡식, 소 있고, 말 있고, 돼지 있고 한테 살림살이 모두 놔두고 어느 사람이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 두고서 내려갈 수 있겠는가. 그게 아깝거든. 그래서 안 내려가니까 안 내려오면 불태우겠다고 했지만, 사실 불이야 지르겠느냐 했거든. 근데 그냥 ‘팡팡’ 해 가니까 겁이 나서 마을 위의 ‘호미’곶이라는 곳에 피신을 갔지. 피신 가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소나 돼지는 모두 불 타버리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토벌이 시작된 거라. (사례7)

한편 무장대는 “40세 이하는 아래[해안지역] 내려가면 다 죽는다”고 하며 “이제 늦어도 한 달만 있으면 해방이 된다”는 말로 주민들을 붙잡았다. 주민들은 “여기도 무섭고, 저기도 무섭고...목숨은 붙여야 하고”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많이

38) 당시에는 젊음이 유죄였다. 아무리 무죄·결백을 주장해도 막무가내였다. 다른 죄는 없고 오직 젊다는 것만이 죄였다. 17세 이상 40세 이하 젊은이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에 속한 일이었다. 스무살짜리도 키 작은 핏게 대어 열여섯살이라고 줄여 말하고, 처녀들은 아이 때 입던 검정 동강치마를 입고 허리 굽혀 다녔다(현기영 1994, 124).

가는 쪽을 택하여 따랐다. 결국 수백 명의 주민들은 “며칠만 있으면 해방이 될 거니까 식량을 가져가지 말고 어디 감춰두라”는 무장대의 말을 믿고 빈 몸으로 굴 속에 숨어들었다.

마을 주민들이 ‘호미’곶으로 올라가거나 해안으로 내려간 뒤 토벌대는 마을 수색에 나섰다. 며칠 뒤 주민들이 숨었던 굴 중에서 ‘반못굴’이 처음으로 발각됐다. 토벌대는 15명을 총살하고 1명은 일부러 살려두었다. 토벌대는 전날 반못굴에서 잡아 살려둔 한 명을 앞장 세워 인근 굴을 수색했다. 곧 ‘○○물굴’이 발각됐다. 내부가 큰 ○○물굴에는 노약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마을이 불태워지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 둘과 함께 ‘호미’곶 속에 있는 ○○물굴에 숨었다가 잡혔어요. 군인들은 대부분을 굴 입구에서 죽이고 아기 업은 여자 등 일부는 따로 분리해 H로 끌고 갔지요. 난 두 살 난 아들을 업고 있어서 학살극을 모면했습니다. 일곱 살 난 아들을 급히 ‘빌려 업은’ 김○○氏(사례7) 부인도 구사일생 했습니다. (사례3)

이 날 굴속에서는 한 찰떡이 어린 아기가 죽임을 당했다. 토벌대가 굴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아이가 놀라서 울자 아이의 아버지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토벌대에게 들켜 굴속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아이의 입을 막았던 것이다. 아이는 밖으로 나와서는 망탱이에 담긴 채 나무에 걸려 있었다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4·3’ 기간동안 이런 식의 비극은 제주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었다. 토벌대는 굴속에 있던 사람들 중 15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워 총살한 뒤 휘발유를 뿌려 시신을 태웠다. “아 너무도 불가사의하다.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이 인간을, 동족이 동족을 그렇게 무참히 파괴할 수는 없다....떼주검을 휘발유 뿌려 불태울 때 그 냄새는 돼지 타는 냄새와 흡사했다....가해자들은 그 살 타는 냄새에 코를 싸쥐고 헛구역질하면서 황급히 현장을 떠났던 것이다(현기영 1994, 143).” 이 날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연대본부가 주둔하고 있던 H국민학교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이라고 안전하지 않았다. 토벌대는 수용된 주민들 중 젊은 여성들을 끌어내 H 모래밭에서 총살하고, 또 H ‘○○봉’ 꼭대기까지 끌고 가 총살한 후 시신을 절벽 밑 바다로 떨어뜨렸다. 토벌대가 젊은 여성들

을 죽인 이유는 한가지였다. “젊은 사람을 살려두면 산 쪽에 붙는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7, 411)”는 것이다.

수용소가 있던 H와 ‘호미’는 옛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H에는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생활 자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비해 ‘호미’는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었다. 양반촌이었던 ‘호미’는 바다에 의존해야 했던 H 주민들을 ‘갯촌 것들’이라고 천시하였다. 게다가 종종 H 사람들이 땀감을 위해 ‘호미’곶에 들어가 나무라도 베려하면 ‘호미’ 사람들이 이들을 몰아 쫓아내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젠 ‘호미’ 사람들이 H 사람들의 경계와 멸시를 견디어내야 했다. H 주민들 중에는 수용소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이전에 ‘호미’ 사람들에게 당했던 것을 앙갚음한 것이다. 수용소에 있었던 ‘호미’ 사람들은 H는 ‘살기도 좋지 않고 인심이 나빴다’고 표현하였다.

토벌대는 ○○물굴에서 잡은 주민 중 한 명을 앞세워 또다시 굴을 찾아 나섰다. 이번엔 옷밤오름 부근의 ‘○○디굴’이 드러나 그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붙잡혀 죽었다. 며칠 사이에 ‘호미’곶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이 지나도록 ‘호미’에서는 학살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토벌대는 ‘호미’곶에 숨어있던 주민들 뿐 아니라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해안으로 소개해 내려가던 주민들에게도 총을 겨누었다.

우리집은 기 들고 H 내려가는 걸 죽여버렸어. 어머니랑 조카들이랑 다 내려가는데 그 조카들도 다 죽여버리고. 조카들 세 오누이 데리고 내려갔지. 우리 오라방 아이들. 데리고 오다가 죽여버리고. 큰놈은 총으로 맞춰 죽여버리고, 열여덟인데, H 내려가다가. 기 들고 가도 죽여버렸어. 기 들고 가도. (사례2)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집 아빠 낳고 1년만에 내려간 거라. H로. 거기서 살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애기 낳은 후 며칠만에 올라왔는데 걸어 올라왔던 모양이라. 사촌들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사촌들하고 다같이서 걸어 올라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애기 낳은 후유증으로 걷지를 못하고 그 사촌들은 걸어온 거라. ‘아이고 나는 지금 절대 못올라갈कु다 나는 쉬었다 갈 테니 먼저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갈구나' 하는데 둘이는 올라오다가 둘이가 다 총맞아 죽은 거라.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 애기 낳은 후유증으로 견지를 못하니까 쉬었다 가서 살아나고. 그 애기 자꾸해, 우리 시어머니. (한○○, 50세)

토벌대가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살상했다면, 무장대는 선별적으로 살상했다. 그러다 '대토벌'이 시작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복수극에 빠져 아무도 헤어나지 못했다. 소개와 토벌 과정에서 마을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마을사람들의 사망으로 구성원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파괴가 병행되었다.

희생이 1/3은 감정 때문에 다 부락에서 죽어버린거여. 그래서 감정은 있을 수 없다[있어서는 안된다]. 이 감정이란 게 참 이거 무섭다. 감정을 뭘해서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이걸 있을 수 없다. 풀어야 된다. 어디가 잘못된인가 잘못된 걸 풀어야지 이거 어딘가 잘못됐다. 그래서 참 나도, 그 '4·3' 사건 만나고 뭐 하면 보복감정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알았써? 너가 이 방에 있다 민정[연구 참여자의 딸]일 죽였다 내가 보복심 없겠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참. (사례6)

경찰의 살상행위 가운데 가장 반인권적인 점은, 무장대의 습격으로 인명 희생을 당한 피해자 집안의 청년들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다면서 대거 경찰관으로 영입, 활용한 점이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곳곳에서 또다른 '피의 보복'을 불러 일으켰다.

'호미'꽃 별채 사건으로 재판을 하게 됐어. 그러자 '4·3'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부락 대 부氏 대결'이 된 거여. 그걸 알아야돼. 그래서 부氏 죽이고, 부氏가 죽이고. 죽이고 죽이고. 대립이 된 거여. 그게 감정이여. 그래서 '호미' 사람은 다 죽어버린거여. (사례6)

경찰은 같은 마을 내에서 서로 죽이게끔 하는 '살해의 구조'를 만들었다. 자신이 살아 남으려면 타인을 죽여야 했던 것이다.

○○에 있을 때 사람 죽이는 걸 봤어. 경찰이 할아버지랑 어린 학생 둘을 끌고 와서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총 쏘아 죽이고, 학생 둘은 저리로 끌고 가서, 거기 있던 젊은 처녀에게 죽창을 주며 찌르라고 했어. 그 여자가 멈칫거리자 죽인다고 하니까 그 여자는 죽창으로 찔렸는데, 그 일 있고나서 ○○을 떠났어.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그 경찰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도 알아볼 수 있어. (사례1)

여성동맹에서 활동한 한 처녀가 살기 위해 전향했다. 그러나 전향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써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 앞에 산에서 잡혀온 한 아주머니가 세워졌다. 그 아주머니는 바로 이웃집 여자로 평소에 제사 때마다 돌담 너머로 떡을 나눠먹던 사이였다. 순경이 뒤에서 철창을 주면서 찌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처녀는 창을 거부하고 결연히 죽음을 택했다. (현기영 1994, 132)

제주사회는 옛부터 강한 연대와 협동구조에 기반한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농민의 대부분이 자영농이었으므로, 지주·소작 관계가 보편적인 육지와는 달리 제주사회는 친족적·혈연적·유기적 연대관계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육지에서 들어온 토벌대는 단순히 마을 주민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제주사회가 가졌던 독특한 공동체적 특성까지도 파괴시켜버렸다. 이때에 생겨난 불신과 앙금은 현재까지도 제주사회에 남아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4·3’ 과정에서 흔히 나타난 이러한 살해 구조는 이후 집단, 지역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4·3’ 초기에 산에 올라가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향하여 살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팔거나, 6·25 때 자진 지원이나 강제 징집으로 참전하여 ‘귀신 잡는 해병대’로 이름을 드날리는 해병대 제3기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모두 그러한 역사를 반증하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개인 감정이 있는 사람을 ‘찔러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H에 한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 암살을 당했다구, 산에서. 그래서 인제 ‘호미’ 경내니까 경찰관 한 사람하고 내가 매복근무를 다녔다고. 경찰관의 본처가 있

었어. 그런데 또 [그 경찰관의] 작은처가 H에 있었어. 본처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딱 일주일 매복을 잤다왔어. 그랬는데 5일째 날인가 그 처가 나한테 묻더라구. 너 어디 잤다왔냐. 매복 잤다왔다. 솔직히 얘기해라. 아, 매복 잤다온 거 매복 잤다왔다고 하지 뭐라고 해여. 너 H 안 잤다왔냐. 그런 사실 없다. 아니다, 바른 말 아니한다해서, 그때는 경찰관 가족이라면 권한이 있었다구. 본서에 투서를 해버린거야. 작은처 있는데 같이 갔는데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여. 그러니까 딱 형사들이 왔더라구. 그 어떤 사상을 가졌다고 투서를 했는지 몰라도 왔더라구. 그래서 나 매복근무 잤다온 사실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좀 피할 데 없냐고 하더라고 나보고. 촌놈이 어디 갈 수 있나하니까 딱 그 말을 하더라구. 당신 여기 있으면 꼭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어디 피하라. 아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군대 간 놈이야....그때 내가 17살이야. 군대 갈 나이가 아니라고. (사례6)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살해하는 상황에서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말 한마디 못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밤에 잡혀가든지” 경찰의 비위에 거슬리면 “낮에 잡혀가든지” 어느 쪽으로든 고달프고 두려운 생활이었다.

.....(전략).....

그 해 겨울과 이듬해 봄
누구 하나 변호해주는 사람 없는
그 해 그 거리에는
피문은 얼굴들이 외면 당하던
모두가 모른다고
침묵만 범람하던 거리
그 거리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빨래하던 사람들도
낮과 호미 빌려쓰던 사람들도

아침에 인사를 나눈 사람들도
 나를
 모른다고 모른다고 해야 하던 거리
 그 거리에는
 쇠비름꽃 끈질기게 피어난다(김명식, “쇠비름꽃” 중)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소개와 토벌과정에서 마을의 물리적 기반도, 구성원도, 구성원간의 협력관계도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호미’마을 주변의 해안 마을들로 제각각 흩어졌다.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집과 밭을 빼앗긴 그들은 이제 남의 집 공간이나 마구간 같은 곳에 빌붙어 살 수밖에 없었다.

4. 여성에 대한 폭력

‘4·3’ 과정에서 많은 남성들이 살해당했다. 특히 15~40세 사이의 남성들은 토벌대의 무차별 학살에 의해 생존자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일하게 고문, 실종, 임의 처형의 피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는 ‘여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또다른 종류의 폭력(gender-specific forms of violence)을 더하여 겪었다.

‘4·3’ 당시 발생한 폭력의 주 행위자는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토벌대였다³⁹⁾.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은 이북에서 소련과 조선공산당에 불만을 품고 피난 온 월남민 청년들⁴⁰⁾이 1946년 11월 30일 결성한 반공테러리스트 조직체이다. 이들은 1947

39) ‘4·3’ 과정에서 토벌대 뿐만 아니라 무장대에 의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어났다. ‘호미’마을에서는 경찰과 결혼하려 했던 여성이 암살 당하기도 했으며, 인근 마을에서는 무장대에 의해 우익인사의 아내나 딸에 대한 집단강간이 일어나기도 했다.

40) 김기동은 서북청년단을 “북한에서 진행된 제반 민주개혁을 반대하고 남한으로 도망하여 온 자”라고 묘사하였다(임대식 1999, 208에서 재인용). 이들은 해방 직후의 대규모 실업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룸펜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들은 잠자리와 끼니만 제공된다면 기꺼이 동원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서북청년단을 제주에 파견하면서 급여는 물론 숙식에 관련된 제반 물자를 현지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서청은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집단으로 현재 독립유공

년 3·1사건을 기점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미군정 하에서 임시 경찰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 '4·3'의 와중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군인과 경찰로 채용되어 초토화 작전에 대거 투입되었다. 서청은 북한체제에서 재산을 강탈당하고 가족이 수감되거나 살해되는 경험을 가진 이들로, 공산주의자와 유사한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빨갱이에 대한 '증오'는 제주에서 무차별한 '빨갱이 사냥(Red Hunter)'의 형태로 나타났다. 서청은 경찰 역할을 하였지만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에 상주하며 이승만 사진과 태극기를 강매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주민을 빨갱이로 단정하여 살상과 테러를 일삼았다. "소도 모두 끌어가 버리고, 집도 다 부숴 버리고. 아무 거라도 뺏아가곤, 안 주면 빨갱이래 무조건 때리고 죽이고... 거 말로 어떻게 얘기허여(사례5)." 서청이 일단 빨갱이라고 명명하면 그 사람은 빨갱이가 되었다. 빨갱이는 곧 '없어져야 할 존재'였으므로 마을 주민들은 서청에게 빨갱이로 호명되지 않으려고 그들의 강탈과 테러 앞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런 놈 봐져서민[보이면] 이젠 우리가 몬딱 쏘아불구젠 허여[총으로 쏘아버리고 싶어](사례5)." 마을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서청에 대한 기억은 이런 것이었다.

빨갱이는 반공이라는 가치를 수용한 '선의 집단'과의 도덕적 차이를 인종화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김성례 1998, 104). 그러나 빨갱이의 혐의는 그 자신의 사상이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공주의 규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빨갱이라는 범주가 만들어내는 경계는 본질적으로 임의적·유동적이고 불분명하다. '4·3' 과정에서 빨갱이의 경계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인 서청에 의해 규정되었던 것이다.

'4·3' 발생 직전 동백동산 벌채사건으로 인하여 서청과 마을 청년들 간에 다툼이 있던 뒤 '호미'마을 내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입산하였거나 도피 중이었으므로 마을 내에서 서청과 부딪히는 것은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갖은 고생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늘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4·3' 과정에서 토벌대에 의한 여성 폭력은 복합적이고 중복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크게 성적 폭력과 강제결혼, 그리고 대살(代殺)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적 폭력의 경우를 보면, 여성에게 행해졌던 폭력은 남성에게 행해졌던 폭

력과 구별되어 대개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문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여성을 나체의 상태에서 매달아 고문을 하였고, 신체 중에서도 가슴이나 복부를 주로 고문하였다. ‘호미’마을의 한 여성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어느날 경찰이 찾아와 이모부가 어디로 갔는지 대라며 한 여성을 잡아갔는데, 젖꼭지에 전기줄을 감아 고문하였다고 한다.

또한 입산자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다. 주민들의 표현에 따르면, 서청은 마을에서 “홀어머들 따먹는” 일을 서슴치 않고 행했으며, 그들은 “아무에게나 덤빌 수” 있었다. 여성의 몸은 ‘주인이 없으면’ 침범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서청은 여성의 몸을 ‘정복’함으로써 그녀의 남편, 부모, 마을공동체를 파괴하였고, 피해 여성의 몸에 고통을 각인시켰다. 즉 여성의 몸에 서청의 권력이 행사되었던 것이다. 서청은 산에 도피 중이던 젊은 여성을 붙잡았을 때는 집단적으로 강간하였다. 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호미’곳 ○○물굴에서 잡혀간 그 날 트럭 안에서 토벌대들은 공적을 많이 올렸다고 신이 나서 떠들더니만 H국민학교에 이르러서는 열 여덟, 스무살 가량의 처녀들을 골라 강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성폭력은 수용소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며, 성폭력을 당한 후 제주사회에서 살 수 없었던 여성들 중에는 자신을 성폭행한 군인을 따라 육지로 가는 이들도 있었다.

또다른 폭력의 양태로 강제결혼이 있다. 서청은 이북에서 피난 오면서 자신의 모든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정착하고자 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정착의 기반으로 여성을 이용하였다. 서청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강간한 후 결혼을 요구하거나, 그 여성의 남성 친족을 볼모로 결혼을 강요하였다.

서청은 국민학교를 수용소로 만들어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달 이상동안 계속 다양한 고문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홍○○와 정○○라는 약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가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자 정○○는 홍○○를 만나게 해 달라고 서청에게 부탁했고, 서청은 이것을 빌미로 국민학교 교사였던 정선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당시 국민학교 여교사는 대단한 지위였기 때문에 다수의 서청단원이 강간을 시도합니다. 결국 홍○○는 정선생을 담보로 해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정선생은 서청단원의 집요한 강간 등으로 인해 서청단원과 결혼해 불행하게 살고 있다 합니다. 홍○○의 조카를 탐내던 서청 간부

는 홍○○의 이런 이야기를 알고 홍○○에게 ‘널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게 됩니다. 이에 홍○○ 집안의 가족 회의를 열게 되고 그녀를 서청단원과 정략결혼 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⁴¹⁾

‘호미’마을에서도 서청이나 군인과 결혼하여 마을을 떠난 여성들이 몇 명 있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사례1에게 들은 증언에 의하면, 한 여성의 경우 ‘4·3’ 당시 서청과 강제 결혼한 후 다른 마을로 옮겨가 살다가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육지로 도망갔는데, 결국 남편에게 붙잡혀 집으로 돌아왔다가 남편에게 구타당하여 결국 살해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사 I』(국방부, 445-446)에는 제주도에 파견된 군인들 중 ‘뒷날 제주도 여성과 결혼한 사병이 적지 않았다’고 적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인들이 제주도에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 결혼의 희생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은폐한 채, 여성을 자기 출세의 도구로 이용한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역사가 권력자의 입장에서 권력없는 집단의 경험을 어떻게 은폐시키고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침묵당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실’이 되어버린다. 여성의 침묵은 단순히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침묵은 여성의 경험을 담론화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담론 구조 속에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수용하고 그 의미를 보존하는 언어로 읽혀진다. 그러므로 여성의 침묵은, 바로 그 침묵이 수반하는 이미지로 가부장적 문화에 참여하게 된다. 대변자가 부재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경험을 여성들 스스로가 말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에만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변화할 수 있다(김은실 1994). 그러므로 여성이 부재한 모든 기록된 역사에 대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관점과 경험에 기반하여 새로운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또 역사를 재해석하고 수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여성 중심의 언설을 생산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41) 이 사례는 김성례의 「국가폭력과 여성체험-제주 4·3을 중심으로」(1998, 112)에 실린 내용과 오금숙의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1998, 164)에 실린 내용을 종합하여 옮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살의 경우를 보면, 서청은 젊은 여성에게는 ‘서방 내놓으라’고, 40이 넘은 여성에게는 ‘아들을 내놓으라’며 폭력을 일삼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 얼굴 할 것 없이 아주 야만적으로 두들겨 뺐다”고 한다.

나 이 귀먹은 건 총 쏘아난 걸로 막힌 것[총소리 때문에 귀가 멀었다]. 귀가 아니 좋아. 집에 있으니까 군인들, 순경도 아니고 무시건 놈들, 총 가진 놈들이 와서 날 보고 ‘너네 서방 어디 갔냐’ 해. 서방이 어디로 갔는지 원 알아야 말을 해주게. 그때는 곱은[숨은] 뒤라. ‘말 보러 간 뒤 저 행원사 간 것 같은데 원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아니 들어온다’고 했지. 경 고라[그렇게 말했어]. 거짓말했지... 이리 나오래. ‘아 이제 이렇게 해연 죽는 거로구나, 죽일꺼로구나’해연 골짜기로 끌고 가서 세운 후 그저 총알이 썩하니 영영해. 쓰러질 줄 알았는데 죽이진 않 해. 헛총 놓아버려. 그리고는 내놓으래. ‘내일 또 올꺼, 찾아내노랜. 그런데 ‘여기 있으면 내놓지만은 어디 가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못할쿠라’ 경해났주게[그렇게 말했지]. 아이구 참 그냥 죽는 걸로 알았어. [총알이] 창하고 썩하게 [지나 갔어]. (사례5)

군인들 세 개가 문 앞에 와서 총 ‘팡팡’하며 남편 있는 데를 가르치래. 날은 어둡한디 날 데리고 가는데 군인 하나는 집에서 나랑 같이 심어간[잠아간] 이를 지키고, 난 데리고 산딕[밭에서 나는 벼의 일종] 베는 데를 가니까 남편이 오질 아니혀. 오지 않으니까 군인 하나에 이제 두 살난 애기 업고 가는데, [군인이 하는 말이] 가다가 이 사람 남편 아니 오면 이 사람 쏘아 죽이고 오라해. 그로톡 군인이 고라[말해]. [두살난] 딸도 데리고 가 죽이켄[죽이겠다고] 하고. (사례4)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들이 폭력을 피해 도망간 공간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행해졌을 모든 폭력을 대신 감당해야 했다. 여성들에 대한 테러는 ‘남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남성의 돌아옴’으로만 중단될 수 있었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빨갱이년’, ‘폭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을 대신해서 폭력과 죽음을 겪었다.

지팡이 짚은 노인들, 애기 업은 부인, 초라하게 차려 입은 동네 어른들을 우리 앞으로 허연 발에 데려다가 죽 세워놓더니 “와닥탁탁 와닥탁탁”허난 그 뿐이라. 저 어른 어머니도 그때 죽었수다.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어십주.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서방이 산에 올라간 사람, 아들이 일본으로 도망간 할망, 아들, 서방이 집에 없덴 다 죽여서마썸.⁴²⁾

여성들은 이런 폭력을 피해 숨어보기도 하지만 ‘아이가 있는’ 조건은 도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곶으려[숨으려] 해도 아기 있는 사람은 곶지도[숨지도] 못해. 아기 울면 하나 죽을 꺼 열명 죽는다하며 막 그냥 욱해 가면 그냥 돌아와버렸지. 아기 없던 사람들은 아기 있는 사람을 막 구박해. 애기 있는 사람만 죽을 건데 지네까지 죽는데. 경허면 우리는 갔다가 ... 그 어린것들 거기 가니까 답답해서 그곳에 앉으려고 하나? 아이들 ‘와와와와’ 울지, 발 들어가난 와와 울어부난 아이구 아니되켜. 어떻할꺼고, 에에 우린 가다 죽어도 도로 나갈꺼. 그냥 돌아 나와버렸주게. 집에 오난 불들이 ‘와락와락’ 불는데도 그저 가만히 집에 있었지. 우린 집에 와 누워 그 집 불으면 타서라도 죽으려고 그냥 누워서 ‘와장창’하는 소리가 나도 꿈쩍 않고 가만히 누워있었지. 집에서 그냥 그대로 죽을 걸로 했지, 가만히 누웠지 가만히. (사례5)

나 이제 우리 진희 두 살일 때 데리고 ‘호미’곶에 곶으려[숨으려] 가. 그리로 곶으려 가났어, 하루. 가니 비행기가 ‘빙빙빙’ 막 사방 사람 앉은 거 보며 도는 거주게. 그토록 허니 산에 곶은 사람, 산에서 대장질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아기들 올리면 어떡하냐고 해. 아기들 데리고 어디로 곶으려거든 곶을 수가 있어야지. 곶아도 풀숲에 들어가면 울고, 또 낭[나무] 속에 들어가도 울고. 그토록 해연 아기 우는 소리 들리면 하나 죽을 때 열 죽는다고 원. 하루 가보고 아니 갔어. (사례4)

42) ‘호미’의 인근마을인 ○○ 출신의 여성이 증언한 내용이다. 제주4·3연구소에서 채록한 증언집인 『이제사 말함수다』에서 인용하였다.

여성들은 아이 때문에 숨을 수도 없어 그냥 집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4·3'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된 사례들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호미'마을에서 동백나무 벌채사건으로 인해 부氏 집안 청년들이 무장대의 표적이 되어 한 청년이 살해당했을 때 장례에 모인 부氏들은 집안 회의를 하였다.

산사람들이 부氏 성을 가진 사람은 아예 씨를 없애버리겠다고 뼈라를 맨날 거리에 붙이거든. 우리 친족에서 죽든 살든 같이 하자. 시로 다 넘어 가자. 그때는 성안이라 했어, 성안으로 다 와라. 경찰관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다 갔는데...그때에 우리 동생들도 한 일곱살, 다섯살 정도 되었을 거야. 어떻게 해. 그것들도 남자니까. 우리 여자는 죽어도 좋고. 부氏 성인데 다 죽인다 했으니까 이것들은 다 시로 간 거라. 형제를 친척들하고 다 보내버렸어. 우리는 다 죽을 걸로 하고. 나하고 우리 동생하고 여자형제는. (사례 1)

몇몇 부氏 청년들은 이미 무장대의 감시를 피해 시(市)로 가서 경찰이 되어 있었다. 집안회의에서는 마을 내 모든 부氏들이 시로 넘어가 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마을 내 무장대의 '세포'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기가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여자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몸을 피하기로 하고 마을을 떠났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남성 피의 우월성이라는 통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부계가족 제도가 사회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자신의 가계(家系)를 떠나지만, 남성의 피는 계보의 중심을 이루어 후손에게 전해진다는 남성혈통 중심주의는 남성 혈통의 보존을 위해 여성의 피를 대속물로 삼게 하였다.

'4·3'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은 평화시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깊은 연속성을 갖는다.⁴³⁾ 일상에서 여성

43) 크로아티아 여성 인류학자인 Maria Olujic(1996)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 강간에 관한 글에서, 평화시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전시에든 그대로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그는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여성의 정조를 가족과 친족의 명예의 상징적 저장소로 인식하는 평화시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전시에든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여성의 몸을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남성 집단의

에 대한 폭력은 그것을 폭력으로 명명하지 않음으로써 비가시화되고 따라서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 되어왔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을 침묵시킨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폭력'이나 '인권'에 대한 침해'로서보다는 여성이 속한 집단에 대한 수치나 불명예로 이해되어왔다.⁴⁴⁾ 여성의 순결성은 가부장적 공동체의 순결을 상징하고 여성의 모성은 공동체 정체성의 보루로 인식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과 모성의 파괴는 공동체 전체의 수치이며 상실이다. 그러므로 강간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침묵은 남성의 수치를 보호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강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례 1998, 113). 제주도 도의회 4·3 피해신고실이 1994년 만들어졌지만 '4·3' 피해에 관한 증언은 대부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족, 이웃과 같이 제3자인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생존해 있는 여성 피해자 가운데 성적 학대 피해자인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직접적인 증언은 아직 없다. 특히 강간을 비롯한 성적 유린에 관한 증언은 주로 남성이 하고 있다. 여성의 피해는 모두 간접 체험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4·3' 과정에서 여성들이 남자형제나 집안을 위해 토벌대와 강제결혼을 했던 것은 남성 생존을 위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한 것이다. 이것은 일상에서 여성이 갖는 열등한 지위가 '4·3'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평화시 일상에서의 위

사회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강간과 성폭력은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두 가부장적 집단체 사이의 명예와 수치의 상징적 경쟁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명예와 수치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전쟁강간과 성고문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족과 친족의 수치로 전환시켜 여성들이 자신의 체험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 그는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전신상태에서 발생한 여성 피해는 평화시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피해의 연속임을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4·3'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44)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인 Theo van Boven은 무력 분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글(1998)에서, 그동안 국제법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보다는 '명예에 대한 범죄'로 취급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에 강간이 명예나 도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된다면, 피해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수치심이 생기게 되고 그 피해자는 집단에 의하여 "더럽다", "망쳤다"로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범죄를 보고하거나 거론할 수 없게 된다.

계화된 성별 상호작용은 노래, 농담, 이야기, 풍습 속에 표현된다. 이러한 상징주의를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가 정당화된다. 많은 사회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제주사회에서의 이러한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한 예로 '새철'의 풍습을 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입춘을 새철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에는 여자가 남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입춘날 여자가 남의 집에 찾아가면, 그 집의 그해 농사에 잡초가 무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춘 전날 연구자가 노인회관에 들렀을 때, 할머니들은 그 사실을 연구자에게 주지시켜주었다. 여자들이 새철에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는 이유는 여성의 음모(陰毛)가 액운을 가져와서 발농사를 망친다는 것이다. 남성도 동일하게 음모가 있지만 남성에게는 이런 금기가 적용되지 않는데, 남성의 털은 액운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주의는 잡초가 유난히 많이 나는 제주도의 환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지만, 여성에게만 금기를 부여하는 것은 제주 문화가 갖는 여성비하, 여성혐오 의식의 한 표현이다.

5. 생계 부양자로서의 여성

소개가 이루어진 시기는 가을 수확이 거의 마무리되어 곡식을 곳간에 저장하여 두는 시기였다. 그러나 소개해 내려간 주민들은 소개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곡식들을 그냥 곳간에 두거나 땅에 묻어둔 채로 내려왔다. 그리고 집들이 모두 불타는 와중에 미처 실어올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두고 온 곡식은 무장대의 보급물자가 되버리거나 토벌대들이 파헤쳐 못 먹게 만들어버렸다. 소개 내려온 후에는 통행금지령에 묶여 농사지으러 밭에 나가는 일조차 금지되었다. 통행금지⁴⁵⁾는 저녁 여덟 시였다. 그 이후에 나다니다가 잡혀 죽어도 할 말이 없었다. 모든 생활물자는 부족하고 식량은 고갈된 상태에서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28가지에 이르는 잡세(雜稅)까지 생겨났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도피 중이거나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다.

45) 제주에서의 야간통행금지는 1964년 1월 18일 0시를 기하여 해제될 때까지 17년이나 지속되었다.

내가 굴에 숨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H로 내려갔다. 어머니와 누이동생 둘은 H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고, 아버지는 시에 사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사셨다. 나는 굴에서 잡혀 H국민학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H에 있는 집단수용소에서 3개월 동안 살았다. 수용소에서는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꼼짝없이 갇혀 있었는데 밥이랑 옷을 나눠줬다. 그런데 밥이 작아 늘 배가 고파 어머니가 밥을 해다 뒷문으로 넣어주셨다. (고○○, 64세, 남)

어쩌다 해안 마을에 사는 친족에게 찾아가도 이들은 냉정하기만 했다. 당시 경찰은 일주도로 위로는 적성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위쪽 사람들과 접촉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해안 마을사람들은 중산간에서 내려 온 사람들을 경계하고 냉대하였다.

아이고 참 내가 우리 해난 것 너네 말해도 모른다. '4·3' 사건에도 우리 어떻게 산 줄 아니? 그 소카이[소개의 일본식 발음]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잖아. 입은 옷만 입고. 뭐 그때 이런 샤쓰가 어디 있었니. 그냥 저고리 하나 요만한 거 입으면 젖도 다 봐지고 잔등이도 다 봐지고 민영으로 몸배 해서 입고, 뭐 뺄쓰 입고 그랬나 안 입었지. 속곳도 없어. 그때는 없어. 치마도 안 입고 몸배. 치마가 어딴거? 옷 다 불타버리고. 여기서 죽인다고 하니까 다 내버리고 도망갔는데 뭇이든지 가져갈 수가 있냐. 한 짐 지면 얼마나 지느니 또. 쌀도 좀 갖고 가야되고. 그래 고생한 거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린 백번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운 게 없다. 무서운 게 없어 정말로. (사례1)

이부자리며 옷이며 식량이며 모든 의식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들은 살아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당시 제주도는 해방 이후 단기간에 도민 인구의 30%인 9만명 정도가 일본에서 귀환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반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워 사료로 쓰이던 강냉이채, 감자, 대죽뿌리, 보리채, 전분 만들다 남은 찌꺼기, 하늘내기 뿌리, 누룩나무 뿌리, 물웃, 툫 등을 구해다 먹어야 했다.

는 이렇게 बारबार 오는 날 정월 보름날 그날 바다에 이리 물 치는데 가서 툇을 베어왔어. 배고플 때 툇에다가 보리쌀 하나씩 넣고 밥 해 주면 동생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앉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가만히 앉아. 그러면 동네 할머니가 와서 봐 가지고는 자기네는 불 안 타고 거기 있었으니까 밥 먹잖아. 자기 혼자 사는 할머니들 이렇게 봐서 집에 가서 밥, 지금 너 먹는 것만큼 가져온다. 그러면 형제가 먹고. (사례1)

여성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을 위해 그들의 표현처럼 “백번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일을 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그토록 경원시하던 바다에 들어가 툇을 베어왔다.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몇 십리가 되는 길도 마다 않고 갔었다. 당시 성읍과 성산 지역은 ‘4·3’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할 수 있었다.

장에 가 보니까 나 아는 아이가 콩을 사고 있더라구. 뭐 하려고 하나고. 아 형님 이거 사서 저 동이에 가면 이거 한 말 사서 가면, 넋되가 한말이거든, 넋되를 사서 가면 여섯되를 준다는 거야. 동이에 가면. 난 동이는 길을 몰라 그때만 해도. 동이가 어딘지 몰랐어. 나도 데리고 가라고. 동생 나도 같이 가자고. 형님 증명 낼 수 있느냐고 날보고. 아 증명 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한다고. 그럼 형님 나하고 같이 콩을 사시라고. 그래 이천원치 콩을 산거 아니. 그때부터 장사를 한 거지. 그때 무슨 부대가 있어. 가마니에 묶었지. 그래서 그 아이하고 나하고 동이를 증명을 내서 간 거라.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녀, 바뀔달라고. 거기는 그때는 콩을 안 심어. 그때는 왜 콩이 필요하나, 장콩, 장을 다 담아 먹으니까 집집마다 콩을 사거든. 가져가면 넋되 주면 여섯되씩 줘. 쌀로 여섯되. 그걸 세 번쯤 하니까 살아질커라. 돈도 벌어지고. 이제 장철도 넘어 버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콩도 바꾸기 힘들잖아. 그래 성냥도 가지고 가고, 실도 사서 가고 여하튼간에 가정용품 그때는 다 어려우니까. 쌀 한되도 받고 반되도 받고 한 홉도 받고. 동냥하다시피 하는거지 뭐. 돈이 필요 없어. 쌀을 받아와야 우리가 이익이지. ○○에 오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그 겨울 내내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먹는 거는 충분해. 내가 와서 팔다 동생들 먹을 거 남겨놓고. 그렇게 해

서 동생들도 학교에 보내고 회비도 좀 내니까. 참 기가 막히지. (사례1)

사례1은 어머니와 두 명의 어린 남동생과 함께 해안으로 소개를 왔다. 위의 오빠와 언니는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어머니는 수술 후유증으로 몸을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이 되었다. 스무살인 그도 결혼하여 갓난아이가 있었지만 통행금지에 묶여 시집으로 가지 못했다. 남편은 토벌대에게 잡혀 목포 형무소로 간 뒤 소식이 없고, 시집도 어딘가로 소개를 갔다는 소문만 들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하던 중 몇 번이나 큰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때의 경험을 제대로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 꺾어보면 모른다”고 반복해 말하였다. 소개지에서의 여성 경험을 들으며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은 “그 때 너무 많이 걸어 지금 은 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의 노동으로 남동생들의 학업까지 뒷바라지하였다.

여성들은 소개지에서 살아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도 잊지 않고 보살폈다. 제주도에는 논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리를 주곡으로 먹는다. 그러나 제사상에는 반드시 쌀을 올려야 하므로, ‘산되’라 하여 밭에서 쌀을 조금씩 재배하였는데, 소개지에서 제사에 올릴 쌀을 구하기 위해 몇십리를 걸어갔던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산 자 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부양했던 여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우리 아버지 제사가 음력으로 2월 16일날이야. 너 태양리 아니? 표선 넘어서 태양리. 성산 넘어서 서귀포 쪽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쌀을 사 가지고 와야 아버지 제사도 해 먹을 거고 한데. 쌀이 사 저야지. 영 못 사는 거라. 이 부락 저 부락 다니며 한뼘박씩 산 것이 열아홉되 샀어. 열아홉되. 보리쌀도 한 되 사고, 그때는 나룩쌀이라고 하면 밭에서 기른 것 그놈 한되, 제사 해 먹을 것 그놈 한되 사고, 나머지는 좁쌀 뭐 그런 것 사고. 열아홉되를 사서 가마니에 넣고 뒤편에 조금씩 조금씩 싸서 열아홉되를 지고 거기서 나가서 성산 오고 성산에서 또 조천까지 오려고. 아이구 내 그때 일로 그다음부터 안 갔다. 그때 걸어서 오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한다.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어. H에 오면 총소리 팡팡 나지, 어두우면 통행금지지. 그때는 쏘아버리면 죽는 거야. 김녕 오니깐 해가 떨어져. 아침 4시쯤에 거기서 나서서 걸어서

오는데 그놈을 지고, 죽으면 죽었지 조천까지는 갈 수가 없어. 발바닥이 다 부르터 가지고. 김녕 오니깐 해가 떨어진 거야. 캄캄할 때 H까지 와 가지고. 아이고 이걸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깐 마침 우리 삼촌⁴⁶⁾이 남의 이목간 빌어 사는 가게였어. 아이고 삼촌아, 이리이러해서 조천까지는 죽어도 못 가겠다하니깐 여기 누웠다 가라 해서 그 이목간에 누웠다가 뒷날 왔잖아.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이 병신되겠다 그만두자 해서 안했지. 말이니깐 그렇지 너 그거 상상해지겠다. 아이고 못하지. 내가 아니 겪어보면 모른다. (사례1)

소개지에서 여성들이 주로 했던 노동은 남의 밭에 가서 김매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하루종일 김매기를 한 품삯은 잡곡 한 사발이었다고 한다. 그것을 받으면 점심 한끼밖에는 먹을 수 없었다. 김매기 작업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김매기를 하지 못할 때는 ‘탕건’⁴⁷⁾ 만드는 일을 했다. 중산간 마을에서는 말을 방목하였기 때문에 말충이 혼해 갇이나 양태, 망건, 탕건 등을 만드는 일은 여성들의 주요한 부업이었다. 특히 ‘호미’마을에서 제주시를 거쳐 애월읍 동부까지의 이 지역은 탕건 등의 관망수공품 생산의 중심지로서, 여성의 관망수공예가 가정 경제와 생계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다(김영돈 1983, 23).

여성들은 보통 8살이 되면 망건 만드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서, 9살부터는 탕건 꼴을 사다가 본격적인 수업을 받게 된다. ‘호미’마을에는 20여 개의 탕건청이 있었

46) ‘삼촌’이라는 호칭은 제주도에서 특이하게 사용된다. 삼촌이라는 호칭은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 모두에게 사용되며, 비교적 먼 친족에 대해서도 남녀 구별 없이 사용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친밀한 웃사람에 대하여도 사용한다. 즉 삼촌이라는 호칭은 남녀를 구분치 않으며, 근친과 원친도 구별하지 않고, 친족과 비친족도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는 특이한 용어이다. 대신 제주도에는 육지의 씨족 마을에서 사용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호칭이 없다.

47) 탕건은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에서 사용하던 의관의 일종으로, 머리띠 모양으로 된 망건을 두르고 나서 탕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쓰는 게 관례이다. 탕건은 형클어지기 쉬운 머리카락을 감싸고 상투를 가리는 기능과 더불어, 그 위에 얹어 쓰는 갓의 밑받침 구실을 한다. 1950년대까지도 유교적 관습에 따라 탕건을 쓰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망 수공예는 가내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는데, 이곳에 여성들이 모여 앉아 함께 작업을 하였다 한다. 농번기 때는 심지 불을 켜놓고 밤에만 작업을 했고, 농한기 때는 하루 15시간 이상씩 작업을 하였다. 어린 소녀들은 이곳에서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탕건 만드는 것을 지켜보며 만드는 법을 배워갔다. 탕건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밤낮을 해서 꼬박 5일이 걸렸다. 이렇게 만든 탕건은 ‘죤진탕건’(죤죤한 것)으로 상품(上品)이었다. ‘엇근탕건’은 하품(下品)으로 하루면 완성되었다 한다. 소개지에서 여성들은 탕건을 만들어 팔아 생활을 유지해나갔다. 인근의 조천장은 탕건 등의 관망 수공품들이 거래되던 중심지로 제주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장사꾼들이 관망수공품을 사기 위해 이곳에 몰려왔었다. 당시 시장에 나가 탕건을 팔면 하나에 열 냇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탕건 만들면 조천장에 가서 놓고 팔았어. 그때는 ‘구경점 시엇장, 모아서는 조천장, 시지부지 함덕장, 가다우뚝 김녕장, 거시기장은 세화장’ 그렇게 말했지⁴⁸⁾. 탕건을 해다가 ‘와자작 와자작’ 하니깐 모아서는 조천장이라고 했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것 파느라고 ○○읍 사람들은 다 모여드는 거라. (사례2)

소개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았다. “굶음 반, 먹음 반”하는 궁핍과 기아의 연속에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기도 했다. 가족의 생계 부양자로 살았던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이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상실의 비통함을 더하여 겪어야 했다. 죽음이 중요한 사회적 의례인 제주 문화에서는 “사람 죽으면 잘 해 주는 것”이 육지보다 더하다⁴⁹⁾. 하지만 소개지에서는 “자신도 굶는 상황”에서 장례 절차와 제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두고두고 한스러움으로 남았다.

48) 구경하러는 市의 장, 여러 동네에서 모여 들어 하는 조천장, 별로 볼 것 없는 함덕장, 가다가 구경하는 김녕장.

49) 제주도에서는 제사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례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15~16세 이후에 사망한 총각과 처녀들에 대해서도 정식 장례식을 치르며, 사혼(死婚)을 행한 후 입양을 들여 제사를 행할 정도이다. 이를 ‘가마귀 모르는 식개’라고 부른다(최재석 1979; 송성대 1996).

6. 전략촌 생활

1949년 말이 되자 경찰은 소개마을마다 전략촌(戰略村)을 만들어, 그 근방이 고향인 적성지구 피난민들이 들어와 살게 했다. 전략촌 건설은 무장대의 습격을 막기 위한 방어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경찰의 명령에 따라 ‘호미’마을 주민들은 성곽으로 둘러싼 전략촌 건설을 시작하였다. ‘호미’마을에서는 해안과 가까운 알‘호미’의 창선동에 전략촌이 만들어졌다. 전략촌에는 ‘호미’ 사람들 뿐 아니라 주변 소개지역의 사람들도 들어와 살았다. 따라서 전략촌 내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전략촌의 구조는, 우선 마을 둘레에 폭 2.5m, 높이 3.5m의 겹담을 쌓아 돌담을 만들도록 했다. 돌담 바로 밖으로는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가시넝쿨을 깔았다. 그리고 2개의 성문을 내어 낮에 농사일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만들었다. 성곽에는 50m 간격으로 감시 초소와 보초막을 세워 무장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창선동 전략촌 건설을 위해 ‘호미’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의 해안 마을사람들까지 동원되었다. 그러나 젊은 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성을 쌓는 일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돌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환경인데도 성을 쌓기 위해 발담으로 사용되었던 돌과 울타리의 돌까지 전부 허물어 사용해야 했으며, 일일이 등짐으로 돌을 날라다 성을 쌓았다. 성을 쌓는 11월부터 이듬해 봄 동안은 집안일이나 농사일은 제쳐두어야 했다.

성 안에는 소개민들이 집단으로 들어가 살 ‘함바’라는 간이 움집을 지었다. 함바집은 방 한 칸 너비로 길게 늘어선 집인데, 돌로 벽을 만들고, 소나무를 잘라다 지붕을 만든 다음 띠를 엮어 덮은 집이다. 마루도 방도 문도 없이 돌벽을 쌓고 지붕만을 씌운 형상으로 겨우 바람이나 눈비를 가릴 수 있는 움막이었다. 주민들은 성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으며, 성 밖을 나가고자 할 때는 도장을 받고 낮 시간에만 나가도록 제한 받았다. 경찰은 전략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입산자와 분리시키고 주민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기 위해 양민증을 지급하였다. 이 양민증은 보초막을 통과할 때마다 일일이 검사 받았다. 전략촌 안에서의 집단 생활은 소개지역에서의 생활보다 더욱 비참했다.

그게 무슨 사람 사는 집이라?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는 거지 원. 그 똥통에 똥이 가득해도 양말이라도 신고 다녀졌어? 축사 마굿간같이 길게 집을 짓고 억새로 칸을 갈라 놓으니까 속에 누우면 남의 사는 것도 다 보이고, 저 집에선 우리가 다 보이고.⁵⁰⁾

함바집에 막 요만한데 맨땅에 누워 살았어. 겨울에도. 몬딱 불타버리니까 이불이나 뒤틀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름엔 풀고사리 베어다 나뭇 깔고, 겨울엔 새 베어다 나뭇 깔고. 내가 스물 여덟에 거기 올라가서는 서른 둘 날 때 여기 집을 지었어. 거기서 한 오년 살았지. (사례3)

다 불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 입을 것도, 덮을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이렇게 누우면 밤에는 눈이 이제나처럼 오면은 얼굴로 요리 사락사락, 덮을 것이 없어서 영성하게 덮으니까. 두껍게 못 덮으고. 그러니까 눈이 이리로 치고, 구멍이 담 이렇게 쌓으면 구멍 나잖아. 지금 울타리처럼. 그런 데로 눈이 막 들어오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네. (사례1)

남자가 있는 집들은 함바집 옆에 따로 집을 지어 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자가 가장인 홀어멍 집들은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도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기아와 궁핍 속에 제대로 약을 써 볼 수도 없어 하루에도 여러 명이 죽어갔다.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곳에서 많이 죽었다.

나 스물일곱에 남편 죽어버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 스물 여덟에 H서 돌아가서 ‘호미’에 와 묻고, 나 스물 아홉에 알‘호미’ 함바집에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사례3)

사례3의 남편은 무장대 지원 혐의로 서청에 의해 총살당했다. 그의 아버지는 소

50) 이 사례는 ‘호미’ 인근의 중산간 마을인 ○○ 출신의 고경림씨가 증언한 내용으로, 제주 4·3 유적지 기행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1998)에서 인용하였다.

개지에서 영양실조로 죽었고, 그의 시어머니는 전락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이렇듯 죽음이 늘 가까이 있는 삶이었다. 당시 제주 민중들의 삶에 대해 중앙지들은 ‘제주도 실정담(實情談)’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제 총소리가 끝난 제주도지만 원상태로 회복만 하려고 하여도 앞으로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도민 25만 명 중 반 이상이 실업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들은 대개가 산간 부락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실업자의 구호에는 외부의 힘을 빌지 않을 수 없는 형편으로 방금 중앙 당국에 예산을 제출 중에 있는데 금년 춘기 농사는 짓지 않고 가을농사까지 어떻게 지낼 지가 걱정이다. (『동아일보』 1949. 6. 19.)

한라의 험한 산과 사면의 거센 파도와 싸워가며 넉넉지 못한 생활이나마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아오던 도민들은 이제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생활을 재건치 않으면 안될 곤경에 놓여 있다. 중앙에 요구하였던 2십9억 원의 제주 부흥비는 겨우 9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말아 행정기관이나 군의 무상배급이 아니면 잠곡 합쳐 배급되는 2홉의 식량마저 살 수 없는 것이 참담한 도민들의 생활상이다. (『서울신문』 1949. 9. 1).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참담한 생활 속에서도 주민들은 보초서기와 토벌작전에 참여해야 했다. 그때까지도 산에 잔류 무장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향토방위는 지역주민 스스로 맡는다’는 명분 아래 경찰의 보조 기능을 갖는 민보단을 창설했다. 제주 도단위 민보단이 창설된 것은 1948년 8월 11일이지만 ‘호미’마을 내에 민보단이 조직된 것은 전락촌을 만들면서부터이다. 민보단은 마을별로 15~60세의 주민들로 구성되었으며, ‘호미’의 경우 젊은 남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민보단 역할은 여성에게 부여되었다.

성 쌓으면 요리 하나 저리 하나 이리 하나 보초가 한 열은 됐을 거라. 열 보초에 서는데 한 보초에 일곱씩 서주게. 경해 보초를 서면 밤에만, 낮에는 일하고, 매일 밤 잤어. 경하면 한사람이 1시간 있다 내려오면 다시 다른 사람이 1시

간 있다 내려오고. 1시간씩 섰다 내려오며 돌아가는데 시간이 남지. 남으면 한 사람이 2시간 서는 사람도 있고. 다음날 저녁은 2시간 서는 사람은 1시간 서고. 경하며 섰주게. (사례3)

여성들은 조를 짜서 교대로 매일 밤 성곽 보초를 서야 했다. 철창이나 죽창을 들고 보초를 서며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폭도가 담아들까봐’ 늘 노심초사 불안했다. 그러던 중 정말 성 안으로 무장대가 습격해왔다.

밤에 보초 나가 산에서 폭도들이 중간중간 내려올까봐 잠복 근무를 했지. 제주도 지역 중에서 성과 올린 지역이 ‘호미’라. 그때도 밤에 가다보니 선산동쪽에서 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라. ‘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만일 내가 바로 그때 갔으면 당했을 텐데, 우리가 옆으로 해서 다른 길로 갔거든. 그래서 지서에 신고를 했지. 틀림없이 폭도들이 온 것 같다고. 경찰관들도 그 곳에 배치했고, 여기 분교 지은 옆에도 배치작전을 했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안왔어. 그리고는 뒷날 저녁 밝아올 무렵 성 중간에 높게 쌓은 데서 망을 보고 있는데, 그 때 일본서 공부한 화자란 아이가 다 철수하는데 그냥 ‘도도도’ 하는 거라. ‘도도도’란 말은 폭도란 말이거든. 폭도가 온다는 거라. 그래서 지서로 신고를 했지. 난 집에 있었고 다시 모두를 제자리에 배치했지. (사례7)

뱅뱅 돌아가망 우리들도 보초 서 났어. 어땡허연 폭도가 들어왔는지, 성담 높은디로. 어땡사 들어와신지 총 ‘팡 와직와직’ 해가난, 우린 박박 떨어, 아이고 저 구멍으로 총알이 들어오면 우린 죽을 거다, 죽을 거다 했지. 경해도 어땡 허영 살아전. 박박박 떨어 폭도 두 개 죽여놓고 막 서로들 싸완. 순경은 안 죽고 폭도 두 개 죽였주게. 이젠 총 맞은 거 구경나오랜 했지. 가 보난 눈이 튀어 나왔더라. 끄서다간 저기 강 묻고 했주게, 두 개 죽은 거. (사례5)

당시 토벌대는 마을을 경비하는 민보단 외에 토벌작전에 동원키 위해 살아남은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특공대’를 조직케 했다. 특공대들은 밤에 보초를 서는 일 외에도 낮에는 성 밖에서 일하는 농민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다. 군이나 경찰이 토벌

작전을 전개할 때는 마을의 민보단과 특공대를 ‘폭도몰이’로 동원하기도 하였다.

애기가 없거나 다 큰자식을 둔 여자들까지 토벌 다녔어. 토벌 갈 때 주먹밥 한 덩이씩 받아먹고 무기도 없이 막대기 하나씩 들고 줄줄이 따라 올라갔어. 내 나이 또래의 홀어머니나 부녀자들은 모두 따라갔어. (사례1)

내가 민보단에 있을 때 토벌도 갔어. 남자 한 명에 여자 여덟 해서 9명이 1개 소대인데 철창을 메고 토벌을 나가. 가다가 총소리가 빵 한 번 나면 그제 준비고 두 번 나면 완전무장한 세 번 나면 돌격하고 쏜다 이거여. 조천서 근무도 서고, 토벌도 나가주. 총소리가 세 번 나면 돌격하라고 교육은 받았 가주만 총소리가 나면 돌격은 고사하고 발발 떨어.⁵¹⁾

경찰이 발표한 민보단 조직 내용을 보면 “민보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지역 주민의 의연금으로 충당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5, 266-267). 이는 마을 내에 들어와 있는 경찰들과 토벌대의 모든 뒤통수까지를 주민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토벌대들이 부락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이들을 먹이기 위해 반별로 할당하여 음식을 장만해야 했는데, 식량이 없어 굶기 일쑤인 주민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알‘호미’ 함바에 와 살 때도 그때도 순경들이랑 지키라해연 지킬 때에 순경 밥을 돌아가면서 했어. 두 사람씩, 두집이서 돌아 가망 그 순경 때를 하여 먹었주게. 세끼를. 순경이 한 아무래도 대여섯 명이 와서 살았을 거라. 반찬은 별 반찬 없어. 그저 심은 거. 우리가 뭘 반찬이 있어게. 우리네는 경도[그것도] 못 해 먹었어. 우리 먹는 것보다는 아주 좋게 하여 먹었지. 밥 해 먹이는 순서가 아무래도 한 달에 한번쯤 돌아왔을 거여. (사례3)

당시는 토벌대의 비위에 거슬리면 현장에서 사살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때였

51) 이 사례는 ‘호미’ 인근의 중산간 마을인 ○○ 출신의 여성이 증언한 내용으로, 제주4·3연구소에서 채록한 증언집인 『이제사 말함수다』에서 인용하였다.

다. 여성들은 자신이 밥 해 먹이는 순서가 되면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토벌대가 말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면 말을 잡아다 바쳐야 했고, 어떤 나물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채소를 구해다 바쳐야 했다. 게다가 밥 순서가 아닌 때도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음식을 알아서 바쳐야 했다.

우리가 감저[고구마]도 삶아 주고, 살아나젠 무서워 혼썰 달램으로. 미우면서도 감저라도 삶안 줘서 임시라도 빵 죽여 불지 말게 하젠. 이녁은 굶으명도. 우린 굶으명도 임시 넘어가젠. 우리가 무서완. (사례5)

마을 주민들은 축성(築城) 작업을 끝낸 후 가을농사부터 할 수 있었다. 소개령으로 내려간 뒤 거의 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농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성 밖에 있는 밭에 가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일일이 신고를 해야 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신고하고 도장을 받아 보초막을 통과하여 성문을 나서면 특공대 청년들이 죽창을 들고 따라나서 경계를 서 주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성 안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밭까지는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주인을 잃은 밭들이 성 주변으로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 살았다.

농사일 하다 틈이 있으면 나무도 해다 지고 때고. 또 나무 해여 더러 팔아. 나무 해여 팔면 돈푼이여 하는 거 보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때는 탕건은 함바 집에서 할 수가 없었어. 추워서. 불도 아니 살라놓고 구들도 없고. 그냥 검질 깔아 해노난 어떻게 탕건을 하니. (사례3)

소개지에서는 탕건을 만들어 팔아 곡식을 사기도 하고,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전략촌에서는 추위로 인해 탕건을 만들 수도 없었다. 대신에 주민들은 '호미'꽃에 가서 몰래 나무를 베어다 팔아 돈을 마련했다.

함바집에서 한 3년 살았지. 그냥 썩도 캐다 먹고, 톨도 바다에 가 베어다 먹고. 그렇게 먹고 살았지. 다 그렇게 곤란하게 살았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다 그렇게 했지. 다 고생해. 밀채 사다가 섞어먹고. 밀채도 돈 없으면 못

쌌지. 나무 해다가 시에 가져가 팔고. 시에 지고 가면 얼마나 지고 가? 베로 지고 가서. 나무 해다가 땀감 했지. 마차 있는 사람들은 나무 해다가 시에 가서 팔고, 우리도 나무 조금 해 오면 그 마차에 붙여서 조금 해 오고. 먹고 살자하면 김녕에도 가 김 매고 보리 한 뒷박 받아 그거 가져와 풀에 섞어 먹고. 경허다 H에도 가 살아봤다 그리저리하다가. 살지를 못하니까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H에 가면 남의 집에 세를 주어야 살 테니까 돈이 없으면 올라오고. 갔다가 올랐다가. (사례2)

사례2는 '4·3'이 일어나기 전 이웃마을로 시집을 갔었다. 그 마을은 '호미'보다 먼저 민보단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민보단원으로 경비를 서다가 서청에게 총살당했다. 당시에는 민보단이나 경찰가족이라 할지라도 서청의 비위에 거슬리면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죽자 이 여성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빠 둘과 큰 올케마저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인 호열자로 세상을 떴다. 작은 오빠가 죽자 둘째 올케는 다른 곳으로 재가했다. 소개령이 내려자 그는 큰오빠의 아들들과 어머니와 함께 소개를 갔지만 가던 도중에 조카가 서청에게 총살을 당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전락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이제 그는 갓난아子和 함께 홀로 남겨졌다. 전락촌의 생활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해안 마을로 내려가 살려면 또 돈이 필요했으므로 돈이 떨어지면 다시 전락촌으로 올라오는 철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제4장 ‘4·3’ 극복과정에서의 여성 경험

1. 돌아온 마을 : ‘남성이 없는 공간’

입산 금지가 풀린 것은 1954년 가을이었다. 그해 9월 21일 제주도 경찰국장은 한라산 금족지역의 전면 개방을 발표하였다. 또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되었던 마을 성곽 보초 임무도 철폐시켰다. 9월 21일 당일자 신문은 “이는 실로 4·3사건 발생 후 7년 6개월 18일만에 제주도 전역이 평시 체제로 환원된 것”이라고 적고 있다(아라리연구원 1988, 194). 중산간 마을사람들은 입산금지가 풀리자마자 자신이 살던 마을을 찾아 올라가기 시작했다. 제주도 당국과 정부도 난민 복귀계획을 세우고 정착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하나의 마을만을 재건하여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호미’마을에서는 어느 자연마을을 먼저 재건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누어졌다.

이젠 집을 지으려 하니깐 그때 당시 거기[창선동] 살던 사람은 거기다 집을 짓는 게 좋겠다 하고, 또 우리는 학교집도 여기 있고 공회당[마을회관]도 여기 크게 이사하니깐 이리로 오자고. 거기서 반발이 생긴단 말이여. 그래서 찬반을 붙이니깐 이리 산다는 사람이 이긴단 말이여. 그럼 거기 살 사람은 거기 살고, 우리랑 이리와 살자 해서 이리 왔지. (사례7)

마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중심지를 알‘호미’로 할 것인지 윗‘호미’로 할 것인지를 두고 주민들간에 다툼이 생기자 결국 마을 재건은 윗‘호미’와 알‘호미’를 중심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중산간 마을 중 마을이 복구된 곳은 유림촌이거나 비교적 오래 전에 형성되어 살기가 괜찮았던 마을들이었다(유철인 1998a, 320). 마을이 형성된 시기와 다른 자연마을과의 관계 등 설촌 역사와 마을의 경제활동, 그리고 피해상황에 따라 중산간 마을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일부 재건되었다. 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화전민들이나 소와 말을 돌보는 테우리[목자를 일컫는 제주말]들, 솥을 굽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자연마을들은 사라져버렸다. 재건된 마을들도 예전의 마을은 아니었다.

우린 그냥 거기 살았어. 함바집 뜯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집을 지은 거라. 그전에 살던 집터는 내버려두고, 그 성 안에 집을 지어 모두 산거. 그것도 이 '호미' 사람 땅이지만은 이녁 집들 지으려니까 그 집터도 모두 돈 주고 산거. 원래 집터는 내버려뒀지 뭐. 시방 그 성 있는데 가면 '돛바대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디가 다섯호, 여섯호 살았던 곳이라. 그 돛바대기서 살다가 이 사태 만난 함바집 살다 그것을 새로 집을 지어. 집터는 팔아버렸어. 이녁 집터에는 아니 가. 가기 싫어. 총기라도 다시 담아져 죽이기라도 할까봐 그 집터는 내버려두고 성 두른 데 와서 그 집터를 새로 사서 집 지어들 살았어. (사례4)

주민들은 고향을 찾아 올라왔지만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 곳은 부모형제, 이웃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올라가 재건할 벼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 10여 개의 자연 마을들로 이루어졌던 '호미'는 본동과 창선동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사라진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집터를 내버려 둔 채 본동이나 창선동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당시 재건된 마을은 전체 가구의 약 70% 정도가 홀어명 가구였다⁵²⁾. “그때 홀어명 천지. 남자들은 다 쏘아 죽였으니까”라는 할머니의 말처럼 '4·3' 과정에서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죽고 여자들만 생존하였다.

‘큰굴왓’이라고 거기는 '4·3' 때 다 나가서 모두 죽어버리고. 몽땅 죽어버렸어. 굴 속에서도 가 죽고, H 심어가[잡아가] 죽고. 사람들 모두 좋은 사람들. 그 친구들 그리워서 내가 막 울고...그 친구들도 서방은 몽땅 죽어버렸어. 여기서들. 여기서들 몽땅 죽어버리니까 다 그저 그리 저리로 다 간 거야. 나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저것[아들] 데리고 그냥 이리로 온 거야. 다들 홀어명들이지. 그

52) 제주도 당국이 펴낸 『난민정착(4·3사건 피해상황조사)』에 따르면, 1955년 당시 호미리 북구세대수는 본동 123세대, 낙선동 25세대로 전체 148세대였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성인 남자가 있는 가구는 30세대를 웃도는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부락북구위원장이었던 사례7은 호미리 가구의 70%가 홀어명 가구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부 자료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비교할 때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홀어명 가구였다고 할 수 있다.

것들도 다 혼자들. 만나면 신세 얘기하며 앉아 있을 시간이 있어? 그냥 경하다와 버리지. 말하면 기가 막히니까 참고 살아야지. 그저 불끈 참고 살자. 우린 막 말하기가 싫어. 아이구 하도 독하게들 지나나니까 징그러워서 말하려면 울어버리고 하니깐. 말은 덜 슬픈 사람이 하는 거야. (사례2)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죽자해도 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홀어명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런 모진 삶을 견뎌왔다. 홀어명들끼리 모여 앉으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나 지나간 것들에 대해 침묵했다. 여성들은 모두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고통과 언어에 관한 글을 써왔던 Veena Das(1996)는 “고통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고통당하는 자를 침묵시킨다”고 경고하였다. 여성들은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말은 덜 슬픈 사람이 하는 거야”라는 그들의 표현 속에는 비통함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고통의 본성에 관한 통찰이 담겨 있다. 고통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고통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고통을 겪는 것은 빛이 없는 세계에서 비통함에 의해 침묵당하고 갇히는 것이다.

말할 나위가 없어. 다 그 모양이다. 서방 안 죽은 사람이 없어도난, 이 녀도 글을[말할] 필요도 없고, 다 닳아노난 말할 나위가 없어. 한사람, 두사람만 죽었으면 저 사람은 서방 있고 우린 서방이 죽어 부렸구나 허주마는 다 닳아노난. 모두 서방 죽은 사람이다. (사례5)

고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홀어명들은 고통에 대한 진술의 부재 혹은 침묵으로 자신들의 고통의 무거움을 우리에게 내어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여성들의 부서진 단어들, 은유의 단편들, 증언의 단편들을 통해 그들의 고통에 반응해야 한다. 고통당하는 자의 목소리에 타인이 반응할 때, 그 고통은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개인적 고통은 사회적 고통으로 전환되어 공공의 생활에서 교환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럴 때에야만 고통당하는 자는 고통의 개인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Schwarcz 1996).

여성들은 '4·3'이 끝나고 돌아온 마을을 '남성이 없는 공간'이라고 불렀다. 남성이 없는 공간은 곧 남성으로 인해 매개되던 모든 친족관계들과 협력체계들이 파괴된 공간임을 뜻한다. 자신의 마을에 대해 양반촌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은 폐허가 된 마을을 떠나지 않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들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3'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만들어낸 관계는 '홀어멍 네트워크'였다. "홀어멍끼리 베풀하며 친목도 하며 돌아가며 살았주게"라는 그들의 표현처럼 여성들은 이 관계를 통해 위로를 받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사회관계를 일구어냈다.

한편 돌아온 마을은 여성들의 표현처럼 완전히 '남성이 없는 공간'은 아니었다. 돌아온 가구의 70%가 홀어멍 가구였지만 나머지 30% 가구에는 남성이 존재했다. 마을사람들은 "얼마나 시국때 피해가 컸는가하면 시국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은 이 몸뚱이밖에 없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남은 몸뚱아리는 생물학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이기도 하다. 마을사람들은 '4·3'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이미 남아있는 몸 안에는 '역사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 안에 체화되어 있던 가부장제의 문화와 역사는 마을 복원 과정에서 한층 강화된 형태로 재현되었다.

2. 남성노동력의 대체 : 여성들의 '수눌음'⁵³⁾

2.1 집짓기

폐허가 된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먼저 집을 짓기 시작했다. 나무를 구하기 위해 '호미'궂으로 갔으나 가까운 궂의 나무는 모두 베어져 있었다. 토벌과정에서 '빨치산 잠복방지'라는 명목으로 숲의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불태웠기 때문이다⁵⁴⁾. 주민

53) '수눌음'이란 육지에서의 '품앗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농경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노동을 교환하는 형태이다(남석진 1989, 205).

54) 1948년 6월 20일을 전후하여 4일간 한라산에 대한 포위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포

들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 한라산까지 올라가야 했다.

우리 친구가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하니까 나무 베러 간대. 저기 차가 오니까 차 빌어....나무하러 간다니까 아이구 나도 갈 테야. 호미도 아니 가지고 톱도 아니 가지고 아무 것도 안 가지고 그냥 차에 붙어 간 거라. 경현 할 수가 없어 그리 가서. 옆에 할아버지가 하나 살았어. 그 할아버지가 장호미와 톱을 가져와, 이 톱으로 자르면 장호미로 가지나 고르래. 나무를 13개를 벤 거라. 나는 풀래미 메고 그 할아버지는 덩치 메고. 경해[그렇게 해서] 찾길로 내쳐. 오래 할 순 없고 와자작 해여 한 매에 싣고 오라 버렸지. 경해 그 사람들도 들썩 들썩 동아리하고 나도 그 할아버지랑 동아리하고. 남자는 자르고, 여자는 가지 고르고. 낭[나무] 하나에 200원씩 차비 물어 실어다 놓고. (사례3)

1954년 당시 재건을 신청한 가구는 모두 127호였다⁵⁵⁾. 이들은 복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재건 구호품을 면사무소에 신청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재민 신고를 받아 각 호마다 미제 미송 널판지와 시멘트 7포씩을 무상으로 배급해주었다. 그런데 배급으로 나온 미송은 한 집에 마차로 한 대 분량도 안되어 마루나 창문에 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족한 원목을 산에 가서 잘라와야 했다.

무슨 구르마[마차]가 있어 실어, 소가 있어 실어. 그저 이녁 양으로 등짐 지어다 날랐주게. 소는 그때 돈 십어다 잡아먹어 버리고, 구르마는 여자가 못하주게. 남자 구르마를 샀 주고 빌리려고 해도 남자 가다오다 하나 있는데 그걸 빌어주거나 혀? 빌리지도 못혀. (사례4)

남자들은 소마차를 이용해서 나무를 옮길 수 있었지만 여자들은 소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옮기려면 일일이 등짐으로 지어 날라야 했다. 나무를 옮기려면

위공격에서 ‘빨치산 잠복방지’라는 명목 하에 화전지대 민가와 수만 정보(총임야면적 84,232정보, 전면적의 50%)에 달하는 임야 초원지대를 남벌, 소각하였다(김봉현, 김민주 1989, 143).

55) 당시 부락복구위원장이었던 사례7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베어 한 곳에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한 짐 지어 100m 쯤 옮겨놓은 뒤 다시 가서 옮겨오고 옮겨오고 그리고 또다시 100m 쯤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집까지 운반하였다. 마을 단위로 차를 빌어 나무를 운반해 오기도 했으나 그러려면 차비를 물어야 했기 때문에 가난했던 여성들은 자기 힘으로 나무를 옮겨와야 했다.

나무 막 한아름한 것, ‘포’라고 있어. 지금 남자도 못 져. 그런 거 다 지어다가 집 지었어. 말도 못한다. 아이구. 말을 하면 뭐하고 너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냐. 집을 이렇게 짓는데 포라고 있어, 포라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 나무. 그러니까 살진 거 아니면 안돼. 막 아름찬 거. 그걸 내가 지게로 지어온 사람이라고. 석칸집 짓는 거. (사례1)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는 베어왔지만, 집을 세우는 일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여성들은 이웃 마을의 목수를 빌어다 ‘검질막’처럼, ‘부뚜막’처럼 나무로 집을 세웠다. 그리고 목수의 품삯을 주기 위해, 전략촌에서 살며 키우던 돼지를 팔거나 해안 마을에서 비싼 이자를 물고 돈을 빌어왔다. 이제 여성들은 세워진 집들에다 흙질을 해야 했다.

수놓어가며 집도 짓고 나무 해다가 목수 빌어다 경해 집을 짓고, 흙질할 때는 우리끼리 수놓어가며 흙도 바르고. 여자들끼리. 남자들 없으니까 여자들끼리 수놓어가며 흙질도 하고, 먼 데 가서 물 길어다 흙 밟으며 바르고. 그전에는 그런 일 안 해봤어. 남 하는거 보며, 남자들 있는 집 하는 거 보며 배웠지. 우리는 남자들이 없으니까 남자들 흙질하며 살아가는 남자들 하는 거 보며 우리도 이영저영 보고 우리도 살아야겠다고 해서 남자들 하는 거 보며 여자들도 수놓어 흙 바르고. 옆집 사람과 수놓며. 수놓어 그 집에 가 하루 해 주고, 우리집 하루 해주고. 다섯명씩, 여섯명씩. 같이 같이 지어가며 하루는 우리가 흙질할 꺼면 우리가 해 달라해서 하고, 다시 뒷날은 딴 집이 하게 되면 가서 해 주고 경허며 했다. (사례3)

여성들은 남자가 있는 집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면서, 흙어멍들끼리 “한 집

일을 하듯 다 같이같이” 집을 지어갔다. 집을 짓는 데는 두어달이 걸렸는데, 그동안은 “억새를 캐어 동그랗게 만들어 펴서 그 위에 벼들이랑 의지해 누워” 추위를 견뎌내었다. 소개 당시 세간도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함께 밥을 지어 나누어 먹으며 지냈다. 또한 흙을 반죽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으므로 여성들은 들썩 셋씩 짝을 지어 허벅을 등에 지고 해안 마을의 용천이나 숲의 생수를 찾아 나섰다. “나무를 자르면서도 집을 지으면서도 손이 다 부풀어 터져 이만큼씩 부어올라” “울음이 반인 생활”을 하였지만, 그래도 여성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4·3’이 진전되고 5년만에 돌아온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불에 타버린 집터에는 대나무만 무성하였고, 남아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집만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아침저녁으로 마주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협력하던 이웃들도 없어졌다. 마을의 물리적 기반과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 간의 협력관계 이 모든 것이 파괴되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 폐허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남성이 없는 공간’ 속에 생존한 여성들은 흠어멍들끼리 서로 수눌며 의지하며 여성들의 노동과 연대를 통해 ‘4·3’을 극복해 간 것이다.

2.2 농사짓기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남성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왔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사회가 갖는 독특한 생태적 환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논농사에는 부적합한 토양이 대부분이다⁵⁶⁾. 전통적으로 육지가 관개 수리 사업과 가축의 힘을 토대로 한 남성 노동 중심의 미작(米作) 농업을 발전시켜 왔다면, 제주는 여성 노동 중심의 밭농사 위주로 생업을 발전시켜왔다.

밭농사에서 주요노동은 김매기이다. 고온다습한 여름기후를 갖는 제주도에서는

56) 제주도의 토양은 투수성(透水性)이 강하기 때문에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상류하천이 드물다. 따라서 논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의 경작지는 밭으로서, 밭과 논은 비율은 50:1이다.

육지보다 잡초가 더 잘 자란다. 따라서 제주도는 잡초 제거를 위한 김매기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집안 식구가 모두 호미자루를 잡을 줄 알아야 그 집안 살림이 넉넉해진다’는 속담은 이런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김매기 작업을 여성들이 담당함으로써 제주 농업은 육지의 남성 주도적 영농과는 매우 다른 구조를 지닌다.

<표 IV-1> 주요 작물의 성별 노동력 투입비율

구분	파종		제초		거름주기		수확		탈곡		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보리	1	4	10	-	1	-	5	5	1.5	2.5	18.5	11.5
조	1	3	18	-	-	-	5	5	1.5	1.5	25.5	9.5
메밀	5.25	14.5	-	-	-	-	1.5	1.5	1.5	1.5	8.25	17.25
산디	1	2.5	6	-	-	-	1.5	1.5	1.5	1.5	10	5.5
콩,팥	0.5	2.5	3	-	-	-	1.5	1.5	1.5	1.5	6.5	5.5
면화	0.88	1.26	15	-	2	-	3	-	-	-	20.88	1.26

자료 : 남석진, 1986,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202, 재구성

<표 IV-1>을 보면 제주 농경에서의 성별 분업 체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파종은 제주도의 생태적 조건으로 인해 가축의 힘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제주도의 토양은 소위 ‘뜨땅’이라는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파종시 종자의 발아 정확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일년 내내 사정없이 부는 바람으로 인해 씨를 뿌린 뒤 종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말을 이용하여 밟아주어야 한다. 말이나 소를 다루는 일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므로 파종작업은 남성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제초작업은 순전히 여성의 노동이다. 일반적으로 제초작업은 호미를 들고 앉은 걸음을 한 자세에서 행해진다. 조혜정의 글(1986, 274)을 보면, 남자는 왜 앉아서 하는 일을 피하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무릎이 뻗뻗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점잖은 남자는 호미를 들지 않는다는 규범이 연구대상 마을에 있

었다고 적고 있다. ‘호미’의 경우에도 이런 규범들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수확과 탈곡의 경우에는 여성 노동력과 남성 노동력이 비슷한 비율로 투입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수확과 탈곡 작업은 여성과 남성 노동이 분화되지 않은 영역인 것 같다. 표의 작업 분류에는 빠져 있지만 탈곡 작업 이후에는 제분 작업이 남겨져 있다. 조와 보리 그리고 잡곡이 주곡인 제주도에서는 이것들을 제분하는 일이 밭일과 더불어 농가마다 부딪히는 주요한 일거리였으며 이것은 여성 노동이었다.

여름에 연자방아에다 보리를 갈아야 했지. 음력 8월이 되어 꼴을 베려고 하면 쌀을 장만해야 꼴 밭에 가거든. 그러면 방아를 다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해. 아침에 좁팍[되처럼 사용했던 생활도구]에 쌀이나 보리 한 줌을 담고 방안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먼저 한다는 표시거든. 보리방아 할 때가 제일 바쁠 때라. 여인네들이 참 불쌍했지. 방안에 보리쌀을 갈면서 ‘이어도 이어도 이어...’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노래했던 거야. 쌀은 쌀대로 좁쌀은 좁쌀대로 갈아야 했지.⁵⁷⁾

곡식을 가는 방아는 마을마다 2~3개씩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전략촌 생활을 할 때 정미소가 들어오면서 방아 찧는 일은 점점 사라져갔다. 이렇듯 제주도는 여성 노동력 중심의 농경제체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런 상황은 노동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주도 노동요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 노동요와 남성 노동요의 비율이 4:1이다(김영돈 1983, 37). 김매기를 하면서, 땃돌이나 방아로 곡식을 갈면서, 탕건을 짜면서 여성들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왔다. 제주도 여성들의 노동요가 육지에 비해서나 남성 노동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제주도 여성들의 생활 자체가 노동이었음을 의미한다.

나는 농사일을 전쟁터라고 생각해.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쏘아 죽여야 하잖아. 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 농사일에는 때

57) 제주도 중산간 마을인 노형동 출신의 남성이 증언한 내용으로,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펴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에서 인용하였다.

가 있어. 아침, 점심, 저녁에 심은 씨앗이 다 달라. 농사하는 법이 다 틀려. 점심에 심은 것은 더우니까 잘 안되고, 저녁에 심은 것은 좀 나지만 그만큼 늦고. 그러니 농사는 시간에 맞추어 해야 되는 거라. 비가 온다고 쉬고, 눈이 온다고 쉬고 그런 것 없어. 농사일은 그런 게 아니야. 시에 맞추어 부지런하게 해야 잘 되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게 해서는 안돼.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밭에서 살았어. (사례1)

이 여성의 말에서, 당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밭에 나가야 했던 여성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였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거름을 주면서 가족들의 삶을 영위할 양식을 키우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노동은 가족노동에 의해 충당되어 왔다. 이전에도 이들은 해 뜰 무렵부터 해 질 무렵까지 계속 일을 했었다. 농번기에는 10시간 이상의 노동이 일반적이었다.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경해서 물 길어오주게. 저기 가서 한 가득히 물 길어다 그 물로 밥 해연 먹고 밭에 일하러 가고. 여름에는 아침 6시만 되면 환하잖아. 그러면 밭에 가서 7시나 되야 들어오고. 점심은 가져가 먹고. 저녁에 오면 밥 해여 먹고. 새벽에는 물 길러 밤에도 가고. 밤에 가지 주로. 달 있는 날은 좋고, 달 없는 날은 곳어도 밤에 물을 아니 길어오면 낮에 일을 못하니까. (사례3)

‘호미’마을은 생수가 귀한 중산간 마을이었으므로 매일매일 물 길는 일이 중요한 일거리였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물길는 일은 해가 지고 난 밤이나 해 뜨기 전인 새벽에 주로 했다. 특히 한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이런 일들을 해내야만 했다. 물이 팡팡 열면 큰 돌맹이를 가져다가 꺾 소리가 나도록 세게 던졌다. 시린 물을 허벅에 담아서 구덕에 놓아 쫄어지면 등어리부터 얼기 시작하여 얼마 안 있어 몸 전체가 싸늘히 식어갔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걸어갔다.

육지와 제주도의 토지 생산성을 비교하면, 5~6명의 가족 규모를 유지한다고 전

제했을 때 밭농사 위주인 제주도의 농가는 논농사 지대에 비해 호당 2배의 넓은 경지면적에 농사를 지어야 논농사 지대와 동일한 수준의 생산량을 갖게 된다. 그런데 지금 남성의 부재로 인해 가족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들은 서로 수눌어 가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였다.

그때는 밭에 갈 생각밖에 안 해났주. 물 길러놓고 밥 헨 지어 앉아 밝아오면 밭에 가. 수눌멍. 저 사람들이 몇이 와 매면 뒷날이나 또 뒷날이나 그 사람네꺼가 해주멍. 경허멍[그렇게 하며] 살아왔주게. 이제도록. (사례2)

그러나 밭갈이를 하거나 파종을 할 때는 가축의 힘이 필요했고, 이런 일들은 여성 노동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여성들은 소개할 때 가축을 놓아 두고 갔기 때문에 소나 말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다.

우리집은 '4·3' 때 다 불타버리고 잃어버려서 소가 없주게. 그디는 남자들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서 소가 있지. 우리는 소를 끌고 가지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말이고 소고 다 죽여버린거라. 남자들은 H 내려갈 때 이끌고 내려갔어. 우리는 내버려두고 가다 모두 죽어버렸어. 그러니 소도 귀했지. (사례3)

여성들은 밭갈이를 하거나 파종을 할 때면 부득이 남성 노동력을 빌어야 했다. 그런데 남자가 있는 집에 가서 소와 남성 노동력을 빌리면 그 값으로 5일 동안 그 집 밭일을 해 주든지, 아니면 5명의 여성들이 그 집 밭일을 하루 해 주어야 수눌음 값을 갚을 수 있었다.

남자 빌리면 밭도 갈아주고, 소로 쟁기질도 해 주고. 우리는 소가 있어도 그런걸 못하지. 여자가 어떻허영 그걸 해져[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버천[힘들어]. 남자 하나 있는 집은 한 열댓 개도 만들어 놔. 수눌음을. 한 이십명 하는 사람도 있고. (사례5)

남성의 부재로 인해 남성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노동과 남성노동간에는

불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수놓음은 하루동안 도움을 받으면 하루를 갚는 형식이지만 재건 당시 여성들은 남성노동을 하루 빌리면 5일 동안을 일해주어야 했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러 명의 여성들과 수놓음을 맺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노동과 남성노동간에는 권력 관계가 존재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노동력을 빌리고자 할 때 남성은 거부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가 ‘내일 가거든 내일 우리 밭 갈아줍소’하고 그 쇠 있는 집에 가 말하면 ‘아이구 내일은 우리 밭 갈아야 할 걸’ 경하면 ‘모레랑 해 줍소’ 경하면 ‘모레까지는 우리 밭을 갈아야할걸’ 경하난 ‘누가 또 한 번 그 밭 갈아줍소 해언 쇠 빌려가난 모레까지는 못할куда’하면 그 집 밖을 나오며 울명 돌아 나왔어, 울명. 서러워. 울면서 나와버렸어. 알‘호미’는 밭 가는 할아방이 세 개밖에 없었지. 세 개밖에. 다 죽어버리난. 밭 갈자면 그 할아방 있는데 가 쇠 빌려서 밭 빌어 갈자고 하면 그 집에 검질[잡초] 매 주라 하면 검질 한 뭇새씩 매어줘서 밭도 갈아주었어. 밭 가는 것만 빼면 여자도 아무 거라도 하고 살아질건디. 경허고 이제 또 말용실[과종시 말을 이용한 진압농법] 하자면 그 밭을 막 밟는 거라. 밟아. 이제는 밟지도 아니해도 곡식도 잘 되고 하는걸. 그걸 밟자하면, 그 말 빌려려해도 가 며칠간 검질을 매주어. 검질을 매 주거나 초를 베어주거나 아무 거라도 대신 일로 해 주어, 돈은 아니받을켜. 그토록 해언 이녁건 못하고 내버려두고 그거 해 줘서 이젠 빌어다 이녁 용시[농사]를 하고. 말제사[늦으막하게] 하면 늦으면 아니 될 때도 있고, 너무 일찍하여 안되는 때도 있고, 이녁 양으로 하는 사람이야 딱 시기에 맞춰 하면 곡식도 좋고 많이 열리잖아. 이녁 것은 못하주게. 이녁 건 못하고 내버려두고 그 사람네 것 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은 자기네 밭 다 하고 나서 와 해주는데. 그러니 억울하지. 그런데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수밖에 더있어. 빨리 와 해 주라 하면 어떻게, 해 주어야지. (사례4)

여성노동과 남성노동을 교환할 때, 그 결정권은 남성이 가졌다. 따라서 남성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교환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남성의 요구에 일방적

으로 응해야 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억울함’을 느끼고 때로는 ‘서러움’에 울기도 했지만 그것을 “옛날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고 받아들였다.

제주의 농경은 여성 노동력 중심의 밭농사 체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력은 여성에 의해 제공되어 왔다. 그런데도 일년에 몇 번 있는 밭갈이와 파종 시에 이루어지는 남성 노동력은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 이것은 노동의 평가에 있어 여성의 노동보다 남성의 노동을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 가치평가에 따른 것이다. 농업의 성별 분업에 있어, 남성들은 동물이나 기계 사용에 관련된 노동을 하고 여성들은 앉아서 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성별에 따른 이러한 작업 분리는 철저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할 때 남성 못지않게 일했던 여성들도 밭갈기나 말뺏기 등의 남성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남성은 여성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일이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고, 여성은 남성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같은 노동의 성별 위계화는 재건 당시 여성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

2.3 홀어명가구와 남성가구와의 경제적 격차

폐허가 된 마을로 돌아와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간에 일어난 수눌음은 성별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였다. 나무를 베어 운반하고, 집을 세우는 데는 육체적 힘이 많이 필요하였고, 특히 가축을 이용하는 일이 요구되었다. 집안에 남성 노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집의 남성 노동력을 빌려야 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밭갈이나 쟁기질을 할 때는 남성 노동력을 빌려야 했다. 그런데 ‘4·3’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남성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젊은 남성은 마을 내 아주 극소수였다. 집안에 남성 노동력이 없는 홀어명들은 이들 생존한 남성들과 수눌음을 맺었다. 그런데 수눌음의 노동교환은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남성들은 여성들과의 수눌음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충당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남성 노동력을 빌리면 그 값을 갚느라고 정작 자신의

일은 제쳐두어야 했다.

남자가 있는 집은 좋았주게. 좋음으로 말이라. 여자만 있는 집보단 아무래도 낫주게. 남자가 없어도 남자 빌기도 어려웠지만, 그사람 빌면 때에 맞춰 그거 [수눌음값] 물져 허노랜 허민[물어주려고 하면] 뭐 해져? 이녀 것도 똑바로 못 허주게. 경해도 그 사람네 꺼 물어야주게. 경허며 이제까지 살았주, 아이고 아이고. 억울헐 뿐이라. 억울하고 말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했주만, 소랑 사람값 이랑 한 번 빌리면 닳새씩 대신 해야하니 그게 억울하지. (사례5)

‘4·3’ 이후 여성이 농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은 솥을 구워 팔거나 고사리를 비롯한 나물을 캐어 파는 일이었다. 여성들은 근대교육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거나 관(정부)을 상대로 보조를 요구할 줄 몰라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은행을 통해 돈을 대출받아 큰 규모로 장사를 하거나 목축을 시작하였고, 면사무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남성들은 ‘4·3’ 극복과정에서 민보단장, 특공대장, 복구위원장, 재건위원장 등의 공식적 지위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몇몇의 남성들은 이러한 위치를 십분 이용하여 국회의원이거나 면장(현재의 읍장)으로 진출하기도 했다⁵⁸⁾.

‘4·3’ 이후 제주도에는 재건 바람과 함께 기계 도입이 시작되었는데, ‘호미’마을에도 정미소가 들어와 물방애(물레방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물방애는 자연 마을 안에 동네 단위마다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육지에서의 우물터와 같은 기능을 하던 곳이다. 원래 제분작업은 여성의 일로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물방애를 찼으면서 ‘방아타령’을 부르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제분작업이 기계화되면서 여성노동에서 남성노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당시 정미소는 정치적 세력이 없고서는 운영할 수 없어서, 어느 마을이건 그 마을의 세력가가 소유하였다고 한다.

58)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남성을 중개인으로 한다. 여성들은 지배 문화의 기능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가 제한된다. 고등 교육의 기회나 군대 등 조직 생활의 경험들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배 문화의 기능을 습득하여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지위가 오를 수 있는 여성 부문이 이 곳에는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여성은 주변화되고 있는 것이다(조혜정 1988, 301, 302).

‘호미’마을에서는 부락 복구위원장과 구장을 거쳐 면의원을 지낸 사례7과 ‘4·3’ 당시 경찰 세력이었던 부씨가 각각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남성들은 육지에 쉽게 나갈 수 있었고, 또 육지에서 몇 년씩 살다 오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제주도 밖을 나간 경험이 없었다. 당시 제주도는 이남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이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4·3’으로 인해 모든 물자가 귀한 때였으므로 육지에 비해 물가가 턱없이 비쌌다. 육지에 나가 본 경험이 많은 남성들은 이를 이용해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장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식이 있는 홀어명들은 가족들을 남겨두고 육지에 나갈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자식이 없는 홀로 된 여성이거나 처녀들은 육지로 나가 공장 노동자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육지란 ‘두려운 곳’이었다.

이렇듯 ‘4·3’ 이후 여성과 남성이 갖는 위치와 경험의 차이로 인해 남성이 있는 가구와 홀어명 가구와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더 심해져 갔다.

2.4 홀어명들의 현금 수입 자구 노력

수놓음을 통해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성별간에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던 노동교환으로 홀어명 가구와 남성이 있는 가구 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생겨났다.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었다. 여성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마련해야 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낼 때나 자녀들의 교육과 제사 등의 의례를 위해 현금은 꼭 있어야 했다. 여성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솥을 구워 팔거나 고사리를 캐어 내다 팔았다. 솥을 굽고 고사리를 캐는 일도 힘들었지만, 그것들을 파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솥을 파는 일도 여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쪼으로 쥔 가마니, 그 큰 가마니로 가득히 솥을 담으면 그것을 지고서 법환동까지 갔습니다. 그 솥을 저녁 때까지 고구마로 바꾸면 밤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탁을 해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어스름할 때 나오는 것이지요. 고구마를 가득 담으면 가마니가 60kg이 넘습니다. 지금 같으면 굴리지도 못할 정도였지요. 새벽 어스름할 때 나오면 이삼월 해가 길어도 법환동에서 동광까지 가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위낙에 무

거워서 몇 걸음 건다가 쉬고 쉬고 하면서 왔는데, 그때 그렇게 독하게 일을 해서 지금은 거의 누워들서 살지요. 남자들 있는 집에는 좀 낮지만 여자 혼자 사는 집에는 자기 몸 움직이는 수밖에는 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⁵⁹⁾

나대로 고사리를 사서 말려. 말리려면 나 혼자 그 고사리를 받아야되지, 그거 삶아 우리집 마당에 널어야되지, 널면 조금 있으면 뒤집어야되지, 저녁때 되면 그놈 걷어와야되지.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도무지 없어. 그놈 몬딱 팔아 장으로 내가면은 부산으로 내다가 팔았지. (사례1)

때로는 밀주를 사다 몰래 팔기도 하였다. 당시 가정에서 술을 담그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영 이렇게 해도 살 수가 없고, 저렇게 해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저 조천에 가서 밀주라고 있어. 소주 집에서 담는 거. 밀주. 그놈을 이제 밤에 사람 다 잠자볼 때 가서 허벅지로 지고 온다. 한 허벅지 어왕 여기 와서 팔면 돈이 조금 남긴 한테 또 돈들을 안주지. 남자들이. 그러면 만날 해봐야. 그걸로는 쌀도 못 받아먹어. (사례1)

그렇게 해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여성들은 일거리를 찾아 육지로 나가 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집을 짓느라 빚이 번쳐서 살수가 없거든. 동생들도 굶어죽게 생기고 뭐 형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는 언니한테 우리 사촌언니가 육지 갔다왔다 해. 그러니까 언니한테 나 좀 공장 같은데 좀 제발 데리고 가 붙여달라고 그랬지. 지금은 여기서도 남의 일 할게 있지만은 그때는 다 서로가 굶어죽는데 누가 사람 쓰겠냐. 사람 써도 돈도 몇 푼 안 줬고. 그래서 서울로 갔어, 처음으로. 육지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안했는데. 그때가 난 스물일곱이고, 꼭 너 나이에 갔다. (사례1)

59) 제주도 중산간 마을인 동광리 출신의 여성이 증언한 내용으로,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펴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에서 인용하였다.

사례1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향집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밥값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보리밥을 해 먹었는데, 그것을 본 건너방 여자가 흉을 보자 “창피해서 밥 먹을 때면 문을 꼭 걸어 닫고 먹었다”고 하였다.

나도 어려웠지. 왜 어려웠냐하면 거기 가서 월급 몇 푼 안되는 거 타면은 내가 먹을 생각보다는 여기 동생들이 굶으니까 어떡해. 우선은 살려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리로 조금 쪼개서 보내고, 그러면 나도 여유가 없어. 옷도 그냥 안 사 입었어. 위엣 것만 사 입고, 밑에 속에는 안 입고 살아. 무슨 방 때고 살았냐? 이렇게 자다 보면 이런 데가 바짝 열고 숨 쉰게 다 열어. 서울 가도 연탄이 어디 있어서 댔니. 연탄 때는 사람은 그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는 숯 조금 사서 밥 해 먹는 것도 발발 떨면서 살았지. 공장일을 4년 했다. 그러니까 병신이주게. 그 한창 이팔청춘에 그디 가서 사년을 썩어버렸으니. 이젠 참 후회 난다. 그 좋은 때에. 그래도 그때는 먹고 사는 거 밖에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냥 워낙 못사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동생들이라도 쌀값이라도 보내줄까 그런 생각뿐. (사례1)

홀어머 여성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틈틈이 다른 일들을 해야 했다. 예전에는 탕건 등의 관망수공품을 만들어 팔아 현금을 마련했지만 이젠 탕건을 찾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므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그 대신 “자기 몸을 움직여”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끊임없이 애썼다.

3. 친족사회 붕괴로 인한 여성 지위의 변화

3.1 친족사회의 붕괴

‘호미’마을은 유교 원칙에 따른 부계 중심의 친족 제도를 가지고 있다. 오랜 동안 양반촌이라 불리어지며 향교와 서당을 통한 유교 교육에 힘써 왔기 때문에 제사와 포제(유교식 마을제)를 중요시 여겨 지금까지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혼인 후의 주거는 부인이 남편 마을에 가서 사는 ‘부거제(夫居制)’가 원칙이며, 재산 상속에서조차 철저한 부계 상속을 지키고 있다. ‘호미’마을은 육지 농촌사회와는 달리 옛부터 마을 내혼을 선호하여왔다. 육지 농촌에서는 처가는 멀수록 좋다고 해서 양반 사회일수록 마을 외혼과 원처혼을 장려하지만, ‘호미’마을은 마을 내혼이나 인근 마을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호미’마을의 가족형태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취한다. 자녀가 일단 결혼하면 부모와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간혹 같이 생활할 경우에도 경제생활은 물론 취사도 완전히 분리하는 분가주의의 특성을 갖는다.

유교 원칙에 따른 부계 중심의 친족제도를 가지면서도 육지와는 달리 마을 내혼과 핵가족 형태를 취하는 것은 ‘호미’마을이 갖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땅은 화산회토로서 육지의 토지에 비해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낮다. 중산간 마을들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중산간지대의 숲이나 목장을 화전하여 경작지로 일구어왔다. 따라서 중산간 마을의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지에서처럼 토지가 아니라 노동이었다. 한 여성은 그의 어머니의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어머니는 원래 이웃마을의 선생님과 결혼하기로 정혼하였었는데, 어머니가 먼 곳으로 시집가면 당장 집안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할머니가 어머니를 마을 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면 꼭 그 얘기를 꺼내요. 그때 그 선생님에게 시집갔으면 좋았을텐데 하고요.” 이 여성의 이야기처럼 ‘호미’마을에서 마을 내혼이 장려된 것은 노동 중심의 농경제제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호미’마을의 이러한 특성은 ‘4·3’으로 인한 친족사회 붕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호미’마을은 한 마을 내에 시집과 친정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마을 공동체 파괴는 친족 사회의 붕괴를 초래했고, 이것은 곧 개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상실을 의미했다. 당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때이므로 개인의 모든 필요들은 대부분 친족관계를 통해 충족되었다. 더욱이 부계 중심의 친족체계에서 남성(아버지, 남편)의 죽음은 그로 인해 연계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정체성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표현되며, 남성은 자신의 남성성에 의해 공적 영역에 자리매김 된다(Ramphel 1996, 100). 그러므로 아내의 죽음이 그의 삶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그의 사회적 성원권이나 정체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의 죽음으로 경제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남성은 쉽게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 ‘호미’마을의 여성들이 비록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계 중심의 친족체계 속에서 여성 스스로 대표적 성원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여성을 친족사회 속에 매개해 주는 것은 언제나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4·3’을 겪으면서 ‘호미’마을의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을 잃고 홀어머니 되었다. 제주도 여성은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 자녀가 있을 경우는 대개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생활을 지속하고, 남편과 이혼한 여자는 재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반면 남성은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아닌 이상 사별이전 이혼이전 거의 대부분 재혼을 한다(최재석 1979, 176).

제주 여자들이 강해. 애기 버리는 사람도 없어. 티브이에서 애기 찾는 사람들 보면 다 육지 사람이지, 제주도 사람은 없잖아. 제주 사람은 애기 별로 안 버려. 애기 데리고 재가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다 그냥 혼자 살지. 나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되니까 했지만 그래도 나도 13년을 혼자 살았어. 신랑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야. 너보다 어릴 때 아니니. 새시집도 갈 수 있지. 그래도 제주 여자들은 안 해. 여기 할머니들도 혼자 살았잖아. 여기는 여자 혼자서도 일하고 해서 다 벌어서 먹어. 강해. 어떻게든 혼자 살지. (사례1)

이 여성의 이야기처럼 ‘호미’마을 여성들은 남편을 잃고 나서도 재가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재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여성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답하였다. 왜 좋지 않냐고 다시 물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경허니까[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아니봤다”고 했다. 여성이 사별한 후 재혼하는 것에 대해 ‘호미’마을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치체계를 통해 여성의 재혼을 통제하였다. 이에 반해 ‘호미’마을의 나이 든 남성들 중 ‘죽은 각시’⁶⁰⁾를 얻지 않은 이는 거의 없었다. 특히 ‘4·3’을 겪으면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해지자 이러한 일부다처의 현상은 더욱 증가하였다. 남성의 재혼이나 첩 관행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관대하였다. 젊은 층들은 이것을 ‘도덕적’ 문제로 보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들 욕심’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처럼 마을 내에서 과부와 홀아비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사회적 의미와 조건들은 ‘4·3’ 이후 여성과 남성의 대응 양식에도 큰 차이를 가져왔다. 홀아비이거나 부인이 있는 남성일지라도 ‘호미’마을 내 남성들은 ‘4·3’ 이후 새로운 결혼관계를 통해 친족관계들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노동력과 재산을 포함한 지원체계들을 확충하여갔다. 반면 홀어명이 된 여성들은 결혼을 매개로 새로운 친족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홀어명이 된 여성들간의 협동과 유대관계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것의 대표적인 형태가 홀어명들간의 수눌음과 계이다. 수눌음이 노동력의 지원이라면, 계는 장례나 제사 등의 의례시 쌀이나 돈을 부조하고,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장만하기 위한 것이었다.

홀어명 중에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시집과의 관계가 단절된 여성들이 많았으며, 특히 ‘4·3’ 과정에서 부모마저 죽은 여성들의 경우 친정쪽으로는 시집쪽으로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사례1의 경우, 그는 오빠의 중매로 오빠의 처가가 있는 도련으로 스무살 때 시집을 갔다. 제주도는 결혼을 해도 첫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대개 친정에 머물면서 시집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에만 찾아가고, 아이를 낳을 때에도 친정에 오래도록 머무는 풍습이 있었다. 사례1도 결혼을 하고서는 친정과 시집을 오가

60) 작은 부인을 뜻하는 제주말로 후처를 지칭한다. 제주사회에서 첩이 되는 여성은 대개 가난한 이들이다.

며 지내다가 친정에 와 첫아이를 낳고 머물던 중에 '4·3'이 일어났다.

시택에 갈 수가 없지. 거기 안 살았으니까. 시택이 어디 간 줄도 모르는데. 시집을 가도 이 제주도법은 시집에 가서 안 살고 왔다갔다하는데, 그렇게 시국이 나 버리니까 댜날 통행금지 해 버리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시어머니는 삼양으로 내려 왔다고 하고, 신랑은 어디 간 줄을 모른다고 해. 그런데 나중에는 신랑이 들어왔잖아. 내가 애기 데리고 시집에 한번 가봤어. 삼양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깐 신랑이 와 있더라구. 신랑이 와 있어도 나도 말도 안했어. 그때는 산에 있다가 오면 벌써 산사람이다해서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고 나는 그냥 친정에 와 버렸어. 왔다가 시아버지 제삿날 가보니까 남편이 재검속당한거. 동네 사람이 찢어버린거라. 그래 이제 어디 간 줄 모르다가 목포형무소에서 편지가 온 거야. 자기는 아무 걱정 없으니까 살고 있으라고. 그 편지 딱 받고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1년이 된 거 아니야. 1년 다 된 때는 또 편지가 온거라. 옷 보내 달라고. 옷 입고 나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편지 받고 나서 며칠 없어서 6·25가 당해버린거. 안그랬으면 석방해 놓고 이리로 와 [6·25를] 당했으면 그렇게는 안됐지.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버린거. 그러니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없지.(사례1)

토벌과정에서 중산간 마을들이 모두 소개될 때 사례1의 시집도 해안 마을로 소개해 갔는데, 그는 친정에 있었기 때문에 시집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소문을 통해 시집의 거처를 알았으나 통행금지로 시집을 찾아갈 수 없어 그냥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소개지에서 생활하였다. 입산하였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다가 검속에 걸려 육지 형무소로 보내졌는데 6·25 발발 직후 행방불명되었다⁶¹⁾. 전락촌에서 살 때 아이마저 병과 영양실조로 죽자 그 후로 시집과의 관계가 완전히

61) 당시는 죄가 있든 없든 토벌대의 눈에 띈 사람은 일단 연행돼 임시수용소에 감금됐다. 토벌대는 수감자들의 성분조사를 실시한 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육지 형무소로 보냈으며, 이들의 숫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러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4·3'과 관련하여 형무소에 수감중이던 사람들을 즉결 처분하였다. 정부는 이들의 사망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이 많았다.

끊어졌다. '4·3' 당시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⁶²⁾.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여성의 신분과 재산을 보장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남편 제사는 누가 하는지 난 모른다 원. 그 친척도 잘 모르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안 살았으니까 잘 몰라. 한 칠, 팔촌이 제사를 하고 있을 꺼야. 삼대독자니까 칠, 팔촌밖에 더 있겠어. 그 집은 재산도 많은 집이야. 재산도 다 그리로 갔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릴 때라 스물 서너살 때 아니니. 혼인 신고도 안하고 호적도 안하니까. 경해부난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남이지 뭐. 남이 된 거지. 우리 딸이 살았으면 그것들 꿈쩍 못했을테지. 재산. 우리 애기가 살았으면. 그런데 죽어버린걸 어떡해. (사례1)

사례2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사촌오빠의 중매로 동북으로 시집을 갔다. 첫아기가 생기자 아이를 낳으러 친정에 와 있는 동안 '4·3'이 일어났다. 그의 남편은 민보단으로 보초를 서다 토벌대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의 시집 식구들은 '4·3'을 피해 제각각 흩어졌고, 그 후로 그는 시집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는데 소개지에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혼자가 되었다.

이 여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시집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4·3'으로 인한 친족사회의 붕괴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기반인 토지의 상실을 초래하였고, 어디에도 적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적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3.2 토지의 박탈

제주사회는 재산(농촌사회에서 재산은 곧 토지를 의미한다) 상속에 있어 철저한 부계상속을 따른다. 여기에 분가주의의 특성에 따라 아들들에게 균분 상속을 하는 것이 육지와 다르긴 하지만 부모 사후에 부모의 잔여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이양되

62) 당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에야 출생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도 이 때 함께 하곤 했다. 이것은 아마도 높은 문맹률과 유아사망률에 따른 것이리라 여겨진다.

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장남 우대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딸의 경우는 ‘다른 집 사람’이 된다는 전제 하에 재산 상속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⁶³⁾.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관계 속에서만 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토지를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그러나 ‘4·3’ 과정에서 남편의 죽음으로 시집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여성들은 유산 상속에도 참여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제주 사회에서 토지 상속은 봉제사(奉祭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제사를 상속받아 봉행하는 경우 제사의 경제적 비용으로 토지(제월전)를 함께 상속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성은 제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권도 없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부계친과 모계친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상호밀접한 생활연관을 갖는 제주도지만 제사에 있어서는 부계친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무척 강하다. 조혜정(1988, 276)은 제주 ‘용마을’에 관한 민족지에서, 마을 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제사를 꼽고 있으며, 주민들은 가계 수입의 약 15%를 제사 부조에 사용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물질을 제사 준비와 제사 의례에 소비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제주 사회에서 제사는 철저하게 남성의 일이며, 남성의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례2는 ‘4·3’ 과정에서 남자형제 둘과 조카들(남자형제의 아들들)을 모두 잃고 어머니와 둘만 남겨졌다. 남편의 죽음으로 시집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하

63) 호미마을 여성들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상속관행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속제도는 여성들의 의식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한편으로는 부계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립적이고 개척적이며 남에게 의존하기 싫어하는 기질을 발달시켰다. 상속받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난 곡갱이 하나도 안 받았다. 난 남한테 도움은 안 받아봤어. 받을 게 없어. 남아도 아들들 주지.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딸 조금도 안 준다. 아이구 참. 줄까부단[줄까봐] 왜 바래냐?”, “친정꺼 먹으면 좋지 안혀. 그건 필요 없어. 자기대로 버는 거. 난 재산 없이 이녀양[자기대로]으로 벌어야 좋아. 자기대로 벌어야 아깝고, 물려준 건 아니 아까운데. 자기가 벌어야 아깝지.” 이렇게 대답한 여성들은 상속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유산에도 참여하지 못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재산을 일구었다.

지 못했다. 전락촌에서 갓난아이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 어머니마저 병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사촌형제들이 찾아와 어머니의 장례를 맡아 치루고는 사례2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사례2는 제사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함바에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오라방이 나룩쌀 한 가마 들고 와 가지고 장례 치뤘지. 우리가 하라 마라도 아니하고 자기네가 다 했지. 우린 말 못해. 남자니까 지네가 다 알아서 하지. 우리가 뭐연 하면 날보고 말 하지 말라고, 자기네가 알아서 한다고....우리는 필요 없어. 여자는 필요 없지. (사례2)

제주 사회에서 공식적 제례들은 모두 유교식 제의로 행해지는데, 유교식 제의에서는 남성만이 제관이 될 수 있다. 여성은 여기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대신 여성들은 동일한 제례들을 무속식으로 따로 행하는데, 여성들이 행하는 제례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현용준 1986, 33). 사례2의 부모는 ‘호미’마을 내 2만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4·3’ 과정에서 남자형제들이 죽자 사례2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양자로 들어와 제사와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 사례2가 이에 대해 항변하자 양자로 들어온 사촌은 “자기네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자인 너는 상관하지 말라”고 대응했다. 사례2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사건들은 ‘여자는 필요없다’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견고함을 더욱 내면화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사례2의 토지를 모두 가져 간 사촌은 ‘4·3’으로 생계가 어렵자 그 토지들을 모두 팔아버렸다. 토지를 잃어버린 사례2는 머물 거처도 없어 ‘호미’마을에서 이집 저집 옮겨다니며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4·3’ 과정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호미’마을에서만 아니라 노형동의 한 여성은 ‘4·3’으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는데, 친척들이 조상 제사를 위해 양자를 입적시켜 조상의 땅을 전부 양자에게로 이전하여 버리고 그에게는 조금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는 재판을 걸어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 망신일 것 같아 그만 두었다고 하며 이 모든 것이 ‘시국 탓’이라고 했다(강덕환 1998, 158).

이에 반해 남성은 여성과는 반대의 위치에 있었다. 제주도는 제사 봉사와 가계

계승을 위해,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양자를 들인다. 입양은 근친간에 주로 이루어지며, 제사 상속은 토지 상속과 일치하므로 양자가 제사를 상속받는 조건으로 그 집의 토지도 모두 상속받게 된다. '4·3'이 진정된 후 '호미'마을에서도 입양과 이에 따른 토지 이동이 복잡하게 일어났다.

사례7의 작은 아버지네는 '호미'마을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집이었다. 그런데 토벌대에 의해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여 대(代)가 끊기게 되자 사례7이 그 집의 양자로 입적하여 제사와 가계를 계승하는 대신 그 집 재산도 상속받았다. 어떤 이는 형의 재산이 아까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양자로 입양시켜 형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자신은 첩을 두어 다시 아들을 낳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첩에게서 난 아들을 입양시켜 받은 토지를 팔아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양을 하면 토지의 등기가 양자의 명의로 되기 때문에 그가 생활이 어려워 그 토지를 판다고 해도 주위의 비난이나 친척의 제약이 강하지 못했고, 실제로 어느 집안이나 4대 이상 제월전을 보존하는 집안이 드물다고 한다(최재석 1979, 269).

'4·3' 후 여성들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은 평화시 위계화된 성별 체계 속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결혼권과 재산권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부계 혈통중심의 가족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이름을 잇고 혈통을 잇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졌으며, 재산 및 가계의 상속대상이 되는 주체였다. 그러나 여성은 이 사회에서 불안정한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며,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해야 했다. 여성과 남성은 '4·3'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과정 속에 있었지만,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각각 다른 삶의 형태와 생애 과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3 '재가'를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혼권과 재산권으로 인해 '4·3'의 홀어머니들은 사회 속에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친정의 재산 상속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남편의 유산 상속에도 참여하지 못한 홀어머니들은 당장 생계를 해결할 경제적 기반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가족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삶을 구

성하도록 사회화되어왔던 여성들에게 가족의 갑작스런 해체는 정서적 긴장과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강한 여성' 이미지와 정절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재가를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4·3' 후 홀어머니 된 여성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나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되니까 [재가를] 했지만 그래도 나도 13년을 혼자 살았어" 사례1은 자신의 재가경험에 대해 말할 때면 언제나 '13년을 혼자 살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덧붙였다. 그는 혼자 살았던 13년 동안 두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했다.

내가 서른까지도 돈 벌면서 다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다 있었으면 진짜 부자일꺼야. 서른 넘어서까지도 내가 다 했어. 그런데 보람이 있어? 없어. 어머니 돌아가서 버리고 뭘 보람이 있니. 동생들은 키워도 다 자기네대로 큰 것 같지. 커 놓으면. 지네도 내 공을 다 알지. 컸을 때도 [내가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올케들 오고 하니까 그게 안돼. 맘대로 안되는 거 있지. 같은 뭐[피붙이]라도 그게 그렇게 되더라. (사례1)

그는 스물세살에 과부가 된 후 어린 두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자신의 생을 쏟았다. '4·3'으로 불타버린 집을 짓느라 빚을 지게 된 데다 어린 두 남동생을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 그는 서울에 올라가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겨울에도 방에 불을 때지 않고 생활하고, 쌀값을 아끼기 위해 콩보리밥을 해 먹으며 돈을 아끼고 아껴 집의 동생들에게 부쳐주었다. 그렇지만 동생들이 자라 결혼하여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자 그와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제사때에나 동생집을 찾게 되었다. 그는 자신도 가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그때 생각에 내가 왜 서울에 사느냐. 돈만 조금 모아지면 가지고 고향에 가서 친척끼리 살지. 내가 외롭게 왜 여기 사느냐 그 생각만 이 멍청한 머리가, 이 멍청한 대구리가, 이 멍청한 대구리가. 이제도 후회하는게 바로 그거 아니냐...돈 벌면 고향에 가서 밭 사고 집 사고 해서 살지, 뭐한다고 여기 외롭게 사느냐 그 생각만 가져본거 아니. (사례1)

사례1은 그때 당시 고향에 내려온 것을 무척 후회하고 있었다. 그가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온 것은 제주도 남자를 만나 재가를 하면서이다. 그는 “재가를 안 할려고 했는데 마음도 잡을 수가 없고 외로워서 고향에 가서 살자 해서” 했다고 하였다.

애기 아빠는 서울에서 만났주게. 만남은 무슨 만남이니. 나 13년 혼자 살았는데. 중매로, 중매로 만나도 도둑놈 만났주게. 중매로 만나도. 중매한 사람이 나쁘지 경허니까.....속인 것도 아니지만은 어떻게 경 속았더라게. 그러니까 난 일생 혼자 살았어. 다시는 남자 생각도 없고, 남편 얻을 생각도 없고. 우리 아들 하나 믿고 그냥 살았지. 그 남자랑은 같이 안 살았어. 고소하려고 했다. 몇 번 경찰서 문턱에 갔다가 왔다가 했다. 그래도 들어가지는 안하고. 참말로 가서 고소도 못하고, 아들이 커가니까 이제는 할 수가 없지. 나 속은 거는 바로 알았주게. 우리 아들 있어 가지고 한 여섯, 일곱달 된 때. 뱃속에 있어 한 대여섯달 된 때. 왜 자꾸 묻냐, 귀찮게. 묻지마. 이제는 묻지 마라고. (사례1)

그는 서울에서 중매로 만난 제주 남자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제주도에 와서 보니 그에게는 이미 아내와 어린아이가 둘씩이나 있었다. “아들 하나 낳은 것 뿐 살지도 않았어. 재가한 살림도 못했어, 속아가지고. 나 혼자 사는 거. 아들 키우며 혼자 사는거” 그는 자기가 혼자 살았음을 무척 강조하였다. 비록 재가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았음을 인정받고 싶어했다. 그리고 재가 경험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창피해”라며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사례1은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고 또 늘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는 재가경험에 대해서만은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재가란 지우고 싶은 오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가를 통해 그의 일생을 ‘믿고 살아갈’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호미’마을에서 연구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20 여명의 홀어명들 중 ‘4·3’ 이후 재가 경험이 있는 여성은 3명이었다. 여성들은 대체로 자신의 재가 경험을 숨

기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 3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가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재가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토지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믿고 의지할 관계가 없던 여성들이었다. 얼마큼의 토지라도 있고, 자녀가 있는 홀어머들은 재가를 선택하지 않았다. 재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의 수가 느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부양해야 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재가한 홀어머들도 '4·3'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만 아니었다면, 토지가 없더라도 샴노동이나 소작을 통해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4·3' 직후의 제주도 상황은 이재민들과 피난민들로 실업이 만연한 상태였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이들 여성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부 홀어머들은 재가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택하였다.

그러나 제주사회가 가지고 있던 정절 이데올로기와 여성이 생계를 담당하는 성별 분업 체계는 재가한 여성들에게 이중의 굴레가 되었다. 그들은 현실적 삶의 어려움에 대한 한 대응으로 재가를 택했지만, 실질적으로 재가는 그들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4·3'으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과 일부다처의 문화 속에서, 재가한 여성들은 대부분 후처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재가한 여성들은 결혼관계에서 아들을 얻게 되면 대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다.

3.4 친족사회의 여성 성원권 자격 : 아들

제주사회는 육지보다 유교적 의식과 규범들이 더 강하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남녀관계에서 육지와 구별되는 점들이 있긴 하지만 조상 숭배를 비롯한 유교적 의례와 규범들은 더욱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4·3'때까지도 이어져 여성들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여성들을 쉽게 폭력적 상황으로 내몰았다.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 사회규범과 성역할 기대를 수용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 방식으로 아들에 집착하였다. 여성들에게 아들은 자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여성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때는 오

직 아들의 어머니로서일 뿐이다. 아들이 없이, 여성은 어떠한 제도적 관계와도 연결될 사회적, 문화적 채널을 가지지 못한다(Kim EunShil 1998, 72-74). 그러므로 여성에게는 결혼관계마저도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로써의 의미가 더 크다.

중요한 건 아들이지. 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아들이 있어야지. 딸은 남의 집에 가버리면 그뿐이고. 시집을 가는 건 애기 낳으려고. 애기 낳는 게 제일 중요해. 남편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남편있는 여자 부러워할 겨를이 있었어? 일만 하지. 돈 버느라고 일만 했지. (사례2)

실제로 연구자가 '호미'마을에서 만났던 나이 든 여성들 대부분이 결혼과 남편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제주 '4·3'을 주제로 독립영화를 만들던 팀이 '호미'마을 노인회관에 찾아왔을 때, 거기에 모여 있던 할아버지 몇 분이 연구자를 시집보내야 한다면 독립영화 제작팀의 젊은 남자들을 붙잡고 얘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할머니들은 “시집 가면 뭐가 좋냐. 그저 혼자가 제일 편해. 시집 가서 자식만 낳으면 그걸로 그만이라”고들 말하였다. 할머니들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젊은 남자는 “결혼을 하면 그렇게 여자가 손해입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그렇게 싫어합니까?”라며 불만이라는 듯 할머니들에게 되물었다. '호미'마을 여성들에게 결혼은 남편과의 관계보다도 자녀, 특히 아들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아들이 있다면 재산을 뺏기지 않아도 되고, 친족관계에서 배제되지도 않으며, 가계 계승의 대의를 다할 수도 있다. 연구자와 동갑이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고○○氏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었다.

‘호미’는 남아선호가 강해요. 이 마을에 아들 낳으려고 11남매 둔 집도 있어요. 가운데 딸이 하나 죽어서 아들이 열번째가 됐지만. ‘호미’가 특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집도 아들, 아들 해요. 남자가 힘든 일 해서 그런 것 같지만, 일은 여자가 다 해요. 우리집에서도 오빠들은 일 안 시키고 나만 시켜서 내가 반항을 하죠. 제주말에 ‘동춘년 앓은 자리엔 풀도 안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동춘여자가 억세다는 말인데, 억센 게 다른 게 아니라 남자가 일 안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척이 되는 거죠. 제주도 남자는 육지 여자와 못 살아요. 육지

여자는 제주도 여자만큼 억척스럽지 못하니까. 제주도 여자는 애기를 낳아도 갓난애기 업고 일 나가서 그늘에다 뉘고 밭일 해요. 우리 언니도 그래서 얼굴이 까매요. (고○○, 27세, 여)

‘호미’마을에서 연구자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자식이 몇 명이나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아들의 수만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연구자는 그 수를 자녀의 수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중에 혼동이 생겼다. 그래서 재차 물으면 그래도 아들의 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딸은 없냐고 물었을 때에야 비로서 딸은 ‘몇 개’(제주도에서는 사람을 세는 단위가 ‘개’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들에게 자식의 개념은 아들이다. 딸은 다른 집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으로 계수되지 않는다. 아들만이 온전한 자기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4·3’ 당시 아들의 상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었다. 47세의 허○○氏가 들려준 시어머니 이야기는 이들 여성에게 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 시어머니는 큰아들을 낳아 가지고 ‘4·3’ 사건에 아들 죽어버린 후에 여덟 해를 애기를 못 가졌어. 우리 아주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죽었다고 연락이 오니까 며칠을 그냥 흠만 덮어논거 돌아 확인한 거. 그래 찾고 찾고 찾다니는 거지. 한번은 신, 옛날에 빨간 고무신 있었잖아. 신 신고 죽어부니까 그게 끝부분만 매주룩히 나온 거야. 경해 찾은 뒤 그 신발을 신고 우리 집 아빠 뒤편에 낳았어. 그 신발을 신고야 그 자식이 죽은 거 이제는 그냥 놔두고. 아들 시체가 다 썩어 없어지고 굴에서 다 타서⁶⁴⁾ 아들 옷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집도 다 타버린 상태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그 신발 하나뿐이었어. 딸은 넷이랐고 그 아들 하나인 게 죽었으니 속이 오죽했을 거라. 그 신발을 신고 와서 8년만에 우리 집 아빠 배에 낳았지. 임신이 안되다가. (허○○)

80세의 사례5와 78세의 사례4는 사돈관계이다. 이들은 ‘4·3’ 때 남편을 잃고 홀어머니 되었는데, 이후 서로의 일을 자기집 일처럼 같이 해 주다가 사돈관계가 되

64) 토벌대는 호미숲의 ○○물굴에 숨어있던 마을 주민들을 발견하자 이들 중 15세~40세의 사람들을 가려내 총살한 뒤 그 시신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버렸었다.

었다. 이들은 언제나 함께 다니며 서로 의지하여 지낸다. 연구자가 사례4의 딸인 김 ○희氏(53세) 집에 갔을 때, 사례4와 사례5는 한 방에 누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세명의 집은 모두 알동네에 있는데, 사례5는 김氏집 바로 옆의 큰아들집에서 살고 있으며, 사례4는 이들 집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집에서 밖거리를 임대해 혼자 살고 있다. 사례4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양자를 들였는데, 그 양자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해주고 자신은 정작 마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양자는 시에 살고 있었으며, 사례4에게서 상속받은 토지는 모두 팔아버렸다.

여긴 법이 지금은 몰라도 그전에는 꼭 양자라도 달아야 하지 아니 달면 안되는거라. 죽으면 누계가 팔아주질 않으니까. 에이, 딸이 해져? 남의 집에 시집가 버리는데. 남의 집에 간 사람이 해져? 식개[제사]나 소상 때문에 꼭 양자라도 달아야해. 이 할망[사례4를 가리키며]도 여기가 딸네 집이지만은 아프면은 아들[양자]집에 돌아가야지. 거기서 죽어도 좋고, 아들이 문밖 맡아 해줄테니까. 그러니 재산도 양자에게 다 주고. 딸은 안 쥐. 딸은 무신사 상관 있간? 남의 집에 가버리는데. 딸이지만은 남의 집에 간 사람이 무얼 해 져야지. 이녁[자기] 그 간 집의 일만 바쁘지. (사례5)

만약 이디서[여기서] 이 할머니[사례5] 죽고 나하고 둘이 죽으면 우리 딸이 이 할망 죽은데 가지 나 죽은 데는 절대 안 와. 친정어머니 죽은데는 아니 와. 그러니까 딸이 필요 없지. 이녁[자기] 어머니 죽어도 못가주게. 그래서 재산을 딸 안주고 양자 쥐도 아니 아깝주게. 원 발을 팔아먹어도 섭섭하지 아니하고 집을 팔아먹어도 섭섭하지 아니혀. 이제라도 내가 어디 나가 죽으면 그것들이 와서 찾아가거든. 식개 명절[제사]도 해 줄 것이고, 상[장례]도 해 줄 것이고, 벌초도 해 줄거. 딸은 그리 아니혀. 못해여. 시집가면 그집 걸 해야지. 그렇게 밖에 아니되어. 그러니 [양자가] 발을 팔아먹어도 섭섭지 아니하고. (사례4)

이처럼 ‘호미’마을에서 여성들이 아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부계 혈통 중심의 친족체계와 부계 조상 숭배의 유교적 제례 이행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사례4의 경우, 양자를 들였지만 입양의 목적이 제사 봉사와 가계 계승을 위한 것이므로 사례4의

노후봉양에 대해서는 양자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직 사례4가 죽고 난 후, 의례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자를 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사례4의 딸인 김○○氏는 불만이 많았다. 사례4는 남편 토지를 유산으로 상속 받은 후 “사태에도 살진 못해도 땅을 팔지는 아니했어. 아이구아이구, 그걸 팔아버리면 안되주게”라며 그 땅을 지켜왔었다. ‘4·3’ 이후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열살도 안된 김○○氏도 호미를 잡고 김매기를 했었다. 이 때 김○○氏는 손가락이 호미에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어린 나이부터 농사일에 참여했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양자가 모두 팔아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사례4는 “아깝지도 아니하고 섭섭하지도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로지 양자가 자신의 장례와 제사를 지켜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4·3’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사례4와 그의 딸은 경제적 빈곤과 고단한 노동의 고통을 모질게 이겨내면서 땅을 지키고 재산을 일구어 왔다. 그런데 여성들의 이러한 기여를 남성이 차지해 버리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자신의 명의로 가로채는 행위는 부계 조상숭배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된다. ‘호미’마을의 ‘양자제도’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산물이다. 우리는 ‘호미’마을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전통사회가 여성과 남성간의 차별을 이데올로기로 어떻게 정당화시켜왔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례4는 딸과 한동네에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딸의 집에서 보내고 있었는데도 “딸은 필요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현실과 인식 간의 격차는 ‘호미’마을에서 딸과 아들이 갖는 상이한 사회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계 혈통중심의 가족주의 사회에서 공식적 구성원은 남성이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가족에 종사할 때에만, 이 사회에서 성원권을 획득할 수 있다. 공/사, 안/밖으로 구분되는 남녀간의 역할 분담에서 여성 역할의 본질은 출산·육아라는 재생산의 실천이며, 이 활동은 생물학적이라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활동을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남근 중심적 사회질서가 변화되지 않는 한 ‘호미’마을 여성들의 아들 집착은 사회적응의 한 양식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제5장 마을의 재건

1. 복원된 마을공동체의 리더쉽 구조와 혼인 관행의 변화

농촌사회에 있어 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일상의례, 공동행사, 공동노역 등을 통해 결속된 오랜 전통을 가진 생활공동체로서, 그 자체 내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자치지역 단위가 되어왔다. '4·3'을 전후한 시기는 아직까지 중앙 중심의 행정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마을의 자치성이 더 두드러지던 시기였다. 따라서 마을의 '유지'로 대표되는 주도세력의 리더쉽이 마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마을의 제반 문제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쉽은 그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해 내려오는 본토박이들에 의해 주도된다.

'호미'마을은 안氏에 의해 설촌이 된 마을이었다. '4·3' 이전에는 읍이나 시에서 '호미'마을 하면 안씨촌(安氏村)이라고 하여 "안氏 말이라면 알아주었다"고 한다. 안氏는 마을 가구의 2/3를 차지했으며, '4·3' 당시 '호미'마을사람들이 소개되었던 해 안가 마을인 H에서 5km 떨어진 '호미'마을까지 올 때 안氏 땅을 밟지 않고는 오지 못할 정도였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나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후 입산한 사람들도 마을의 주도 세력이었던 안氏 집안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4·3' 이후 안氏 가계는 거의 몰락하다시피했다. 안氏 가문의 쇠락과 관련한 무속적 해석들이 존재하기도 했는데 '안氏 가문을 돌보던 수호신이 더 이상 먹을게 없어서 안氏집에 굶을 하러 왔던 심방[무당]을 따라 고氏 가문으로 옮겨갔다'(현용준 1975)고도 하고, 74세의 어느 할머니는 "안집하면 '호미'에서 제일 이거라. 저기에 조상 모시던 집도 있고 했어. 왜정 때 미신을 못 믿게 해서 그때 불타버렸지만. 거기가 불타버려서 지금 안되는 건가"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중산간 마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주4·3연구소 현장채록팀이 기술한 「한림면 현장조사서」(1991)를 보면, 명월리는 '4·3' 이전 오氏 집안이 당시 가호의 50%를 차지하며 마을의 주도 세력을 이루었고, 금악리는 박氏 집안이 주도 세력을 이루었는데 '4·3' 과정에서 입산자 가족에 대한 보복 학살을 당하면서 가계가 거의 몰락하였다. 이처럼 '4·3'은 마을공동체 내 권력구조의

재편성을 가져 왔다.

‘4·3’ 과정에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호미’마을에서는 현재 나이가 65세에서 80세까지의 남자가 거의 없다. 이 때 살아남은 몇 명이 전략촌인 창선동에서 민보단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고, 본동인 웃‘호미’의 재건과정에서 새로운 마을지도자로 등장하였다. ‘4·3’ 당시 10세 이하의 어린아이였던 남성들이 마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는 1980년대 전까지 이들은 마을 행정이나 마을 경제에서 지도자로서 리더쉽을 행사하였다. 반면 살아남은 남성들 중에서 산사람 편에 섰던 사람들은 마을 내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었다. ‘4·3’ 당시 토벌대에게 붙잡혀 수용소나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나온 사람들은 마을에 돌아와도 정착하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4·3’ 당시 15세였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사례6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4·3’ 이후에 삼분의 이도 못 돌아왔어. 다 탈출하고, 외래에 나가버리고. 삼분의 이 정도밖에 아니 왔어. 죽이고 죽고 하다보니까 감정문제가 있어서 ‘호미’ 오겠냐 이거여. 다 피해 살았지. 육지 가고, 시에 가고 안 왔어. 그저 일반 서민만 여기 왔지. 그렇게 기가 막혔다고. 제주도 실정이라는 게 딴 데는 몰라도 이 ‘호미’만큼은 기가 막혔다고. (사례6)

‘호미’마을에는 ‘4·3’ 당시 입산하여 ‘호미’곶에서 1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토벌대에게 붙잡혀 형무소 생활을 한 후 마을로 돌아와 살고 있는 84세의 오○○氏(남)가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거의 은둔하다시피 지내고 있었는데, 노인회 총회나 리민총회와 같은 공식적 장소에 나타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마을사람들이 부지런히 이웃집으로 마실을 다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는 가끔 혼자 집 주위를 산책할 뿐이었다. ‘호미’마을에는 진보적인 농민운동을 하는 3, 40대의 남성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가 예전에 노인회에 몇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봉사’와 관련한 것들이었다. “우리가 ‘4·3’ 극복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그의 제안은 노인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노인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은 ‘4·3’ 당시 경찰이었던 박○○氏와 특공

대장이었던 김○○氏인데 이들이 호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노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사례1이 말해주었다.

‘4·3’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의 리더쉽 구조가 바뀌면서 이에 따라 재산 소유의 변동이 일어났다. ‘4·3’ 극복과정에서 부氏 세력들은 안氏 세력 때문에 ‘4·3’ 때 마을이 당한거라며 안氏의 복귀를 막았다⁶⁵⁾. 이에 안氏들은 ‘호미’마을에 있던 집과 땅을 팔아 시나 육지로 옮겨가 버렸다. 이 과정에서 토지매매가 성행하였는데, 당시에는 몇 년 농사를 짓지 못한 땅인데다 소나 말이 없어 개간할 처지가 못되어 땅값이 아주쌌다. 『○○읍지』를 보면 과거에는 읍 내에서 ‘호미’마을의 땅값이 가장 비쌌다고 하지만, ‘4·3’ 이후 60년대까지 ‘호미’마을 땅값은 제주도에서 가장 싼 것으로 떨어졌다(제주도 1998). 부락복구위원장과 구장을 거쳐 면의원을 지낸 사례7은 면의원 시절 도에서 1정보당 1만원씩의 보조를 받아 30정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리고 ‘4·3’ 당시 무장대의 반대세력이었던 부氏들도 국가의 보조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였다. ‘4·3’ 이후 마을 내 재산변동에 대해 안○○氏(53세, 남)는 “시국 후에는 잘 살던 사람들은 못 살게 되고, 못 살던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다”고 표현하였으며, 사례6도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부氏는 경찰관에 협조해서 뭐하니깐 성공한 거라고 보지. 도움을 받았지. 그건 어떻게 돼냐하면 그걸 알아야해. 산에서 죽인 사람은 우익이 될꺼 아니니.

65) 이런 표현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었다. 1989년 지방정부에서는 ‘호미’마을에 분노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다. 정부에서는 외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호미2리에 분노처리장 공사를 시작하였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호미1리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소집하여 이 건에 대하여 강력히 저지하기로 하고 군청에 물려가 집단 농성을 벌였다. 정부에서는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터이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설사업을 강행하였다. 마을주민들은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자 마을개발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분노처리장 시설 설치를 묵인하기로 했다. 만약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되면 후대에 면목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호미마을에서는 분노처리장 공사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마을개발사업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들이 존재했는데, 어느 부氏 여성은 당시 마을 시위에 앞장섰던 안씨 사람에 대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혼자 잘난 척 한다. 그렇게 요망진[뚝뚝한] 척하면서 ‘호미’ 다 망해먹는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도청에서나 군청에서나 도움을 받을 꺼 아니니. 그때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그 부택[부氏 가문]은. 죽은 사람 가족은 보상을 받았다고. 그렇지만 그 보복으로 부氏들이 와서 죽인 사람은. 그러니까 거위가 시로 가고 부락을 떼어. 중간에 있는 부택만 지금 남아있는거지. (사례6)

이제 ‘호미’마을은 안氏촌이 아니라 부氏촌으로 변해 있었다. 현재 ‘호미’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 부氏들이며 가구수에 있어서도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제 이 마을은 고칩, 부칩이 많아. 안칩은 많지 아니혀. 안칩은 많이 나가 불고 더러 죽어 불고. 부칩과 고칩은 ‘4·3’ 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불었어. 막 하영[망이]. 안칩은 ‘4·3’ 전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4·3’ 이후로 불어나지 아니했어. (사례3)

‘4·3’으로 인해 마을의 권력구조가 재편성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정체성도 변화하였다. 안氏 집안의 며느리인 사례3은 ‘호미’마을을 떠나고 싶어한다.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친족들도 없고, 그의 자녀들에게 전망도 없다. 그는 ‘4·3’ 당시 소개하였을 때 그냥 거기서 머물 것을 괜히 ‘호미’마을로 다시 돌아왔다고 후회하였다. 그곳에 있었으면 예전에 아버지와 남편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식들 공부라도 더 시킬 수 있었을텐데, 괜히 마을로 돌아와 고생만 하고 빚만 쌓인다고 한숨 지었다. 그는 ‘4·3’ 과정에서 그 많던 토지들을 다 잃어버렸다. 예전에는 머슴을 부리며 살 정도로 부유했지만, 이제는 78세의 나이에 남의 당근밭에 가서 품팔이를 해야 할 정도로 빈곤하다. 그의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들도 모두 ‘호미’마을 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손자, 손녀들을 볼 때마다 너희는 이 마을을 떠나서 살아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다. 이에 반해 사례1은 ‘호미’마을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부氏 친족이 많아. 부氏하면 알아주지”라며 그 누구도 부氏 사람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했다. 그와 그의 친족들은 ‘호미’마을 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4·3’ 전에는 단지 500평의 땅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몇만평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집만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4·3’ 이후 마을 내 정치적·경제적 리더십 구조의 변화는 마을 내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호미’마을은 중매결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70년대까지도 연애결혼을 하면 흠을 보았다고 한다. 결혼은 보통 중매인⁶⁶⁾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문이다. ‘4·3’ 이전에는 ‘호미’마을에서 가장 성했던 가문이 안氏 집안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안氏와의 혼사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조선시대에는 제주도 명가문에서 안氏 가문의 사위로 본동에 정착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4·3’ 이후 ‘호미’마을에서 안氏는 리더십을 잃어버렸다. 특히 연좌제의 영향으로, 가족들 중에 토벌대에 의해 죽은 이가 있으면 남은 이들도 ‘폭도 가족’이 되어 두고두고 명에를 져야 했다. 이런 이유들로 ‘호미’마을 내에서는 서로 결혼하지 않는 관계들도 생겨났는데, ‘4·3’ 당시 산사람의 대표격인 안氏와 경찰세력의 대표격인 부氏は 중매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안氏와 부氏は 적 아니니. ‘4·3’ 때. 그 할머니 남편이 막 똑똑해. 그때 아팠다고는 해도 산활동을 했어. 그 집 큰아들 며느리가 우리 친척이야. 팔촌 조카. 그것도 결혼 안 시킬건데 지네 둘이 연애를 했거든. 결혼하기 전에 그 조카 아버지가 날 찾아왔어. 고민이 되니까 의논하려고 온 거 아니. 부氏와 안氏는 결혼 안 해. 그런데 지네가 좋다하니까 우리가 평생 원수질 것도 아니고 그냥 해주자해서 결혼시켰지. 그렇지 않으면 적 아니냐 적. 거기는 산활동하고, 우리를 맨날 죽일켜하고. 뼈라 붙이고. (사례1)

연구자가 ‘호미’마을에서 만난 안氏들 중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대부분 연애결혼을 하였다. ‘4·3’ 당시의 입장과 활동의 차이는 마을 내 서로 죽고 죽이는 감정관계를 일으켰고, 이러한 감정 문제는 반공체제 하에서 이후 마을 내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간의 인간 관계까지도 지배하였다. 그런데 ‘호미’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공공연한 비밀’로 침묵되어진다. ‘4·3’ 이후 파괴된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간에는 ‘4·3’의 갈등과 감정

66) 제주에서 중매인은 대개 남자이다. 육지에서는 여자가 중매인의 역할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데 비해 여성의 활동이 활발한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중매인이 될 수 없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문제를 내포하는 일체의 언설들은 공식적 장에서 발언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서로가 모르는 척 덮어두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공식적 이야기로 표면화될 때, 마을 내에 어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지 두렵기 때문이다.

2.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을 ‘역사’

본동에 올라온 후 재건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리지’(理誌)의 형태로 마을 역사서를 만들고자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과정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다.

56년도인가 역사를 만들려고 했어. 리지처럼 기록된 역사. [그런데] 왜곡된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서 데모났던 거, ‘4·3’ 사건 이런 걸 감추고 자기가 잘했다는 뭐만 할려고 하니깐. 그 때 이장이 말이야. 내가 반대해서 무산돼버렸어... 절대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내가 그랬지. 이런 것 기록해 두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 고역당했다는 걸 쓰려고 했는데 마을이 반대해서 무산됐어. (사례6)

‘4·3’으로 인해 ‘호미’마을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 마을이 불타버렸었기 때문에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가 없는 집도 드물었다. 53세의 안○○氏(남)는 “중산간 중에서도 [우리 마을이] 제일 피해가 컸을거우다. 위아래로부터 내통한다고”라고 얘기했으며, 사례7도 “억울하긴 한이 없고, 나도 억울하고, ‘호미’마을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집안에도 8명이나 돌아가셨는데”라며 ‘4·3’으로 인한 아픔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 토벌대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과 무장대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4·3’ 초기 무장대는 경찰, 서북청년단이나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원, 그리고 토벌대에게 협조하는 우익인사와 그들의 가족을 지목해 살해했다. ‘4·3’ 말기에는 무장대가 토벌대 편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한 일부 마을을 덮쳐 무차별 학살하고 식량을 약탈해 가기도 했다. 이런저런 형태로 무장대에게 희생된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약 1/10에 해당한다(김종민 1999, 372). ‘호미’마을에서도 토벌대에 의한

피해가 훨씬 크기는 했지만 무장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한 마을 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는 격이다보니 마을 내에 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4·3' 당시 아버지가 무장대에게 피해를 입어 보훈청으로부터 연금 수혜를 받고 있던 55세의 안○○氏(남)는 “마을이 화합이 안되는 이유는 이웃집끼리 서로 피해자이고 가해자이면서 한 마을에 같이 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호미’마을의 남성들 중에는 ‘4·3’ 당시의 상황들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해 둔 이들이 몇 명 있었다. 이들은 마을에서 ‘리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자신의 기록을 토대로 ‘4·3’에 관해 쓰려고 했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자신의 기록들을 모두 소각해버렸다. “내가 이만큼 뭘 썼다가 소각시켜버렸어. 역사를 못 만드는 바람에 그걸 트집잡으려고 해서 내 태워버렸어” 사례6은 ‘호미’마을이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까워하였다. “내가 잘한 건 잘한거고 못한 건 못한거고 그걸 써야지, 역사를 만들 바에야 왜곡된 역사, 거짓 역사를 만들어서 뭐하겠나”고 하면서 그 장본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4·3’ 당시의 초토화과정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사례7은 ‘4·3’ 당시의 피해상황을 두 권의 노트에 적어 하나는 향아리에 담아 땅 속에 묻고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다녔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그 기록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마을역사 만들기’를 둘러싼 갈등은 ‘4·3’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 무장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1은 “난 산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해. 너무 했어. 경찰하고 싸우면 경찰하고만 싸우지 왜 동네에 들어 사람을 그렇게 죽이냐 말이야. 많이 죽었다게 많이 죽었어”라며 당시 무장대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때는 사상이 지독하고 치열했어. 이북법은 형제고 부모고 다 죽이는 법 아니니? ‘4·3’도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일으킨 거야. 이 마을에도 주장하던 이들이 많았어. 다 동네 청년들이라. 그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지만 애기들은 다 [마을에] 있어”라며 ‘4·3’을 ‘사상’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호미’곳의 ○○물굴에 숨었다가 아버지와 형은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어렸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례6은 “원망하고 그런 건 없지. 그건 왜냐면 이건 운이라고 봐야지. 누가 주동이 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때 당

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호미’에 사상 가져서 뭐 공산당이니 민주주의니 사상을 판단해서 활약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여. 그런 얘기하면 내 한 번 묻고 싶은게 있는데. 이건 무의식 중에 단체적인 흐름에 따라 당해버린거여”라고 말하며 ‘4·3’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적인 흐름의 사건”임을 강조하였다. 아버지가 무장대 지원자로 혐의를 받아 토벌대에 의해 살해당한 안○○氏도 “산으로 올라간 게 폭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시국을 판단하지 못하고 마을 전체가 굴 속에 숨은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4·3’ 이후 30~40년간 지속된 반공 군사 정권체제 하에서의 ‘레드 콤플렉스’와 연좌제의 경험은 ‘호미’마을사람들로 하여금 ‘4·3’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호미’에도 지금 명백한 얘기를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얹히고 얹히고”, “‘호미’에서 뭐 하려면 만나는 사람마다 틀릴 꺼야. 왜곡해서 감추려고 하니까” 마을사람들은 ‘4·3’을 연구한다고 마을 내에 알려진 연구자에게 이런 말들을 하곤 했다. 사례6은 “우리 ‘호미’ 부락이 풀어나가야 할 일이 하도 많은데 가만 보면 바른말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 돼. 그건 왜냐하면 안 해도 될 걸 왜 하나[하는 거지]”라며 마을사람들은 ‘4·3’을 ‘거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마을사람들이 ‘4·3’을 덮어두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특히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어떻게든 남편의 무고함을 밝혀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고생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호미’마을에서 연구자가 만난 여성들은 ‘4·3’을 ‘시국’이나 ‘사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4·3’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4·3’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몰라. 그걸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아냐. 남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만이지....원망할 데는 시국 원망밖에 더 할 데가 있어게. 시국, 때를 못만나서 얘기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이다. 다시 이런 시국이 온다하면은 자살해 죽을 사람이 많을꺼야. 왜 터졌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생각을 해봐라. 죽은 사람들도 그런 걸 다 몰라. 육지로부터 이것이 일어난 일인디. 경[그렇게] 생각해지주게. (사례3)

‘호미’마을에서 만난 남성들은 무장대이든 토벌대이든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도

피자이든 간에 공식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4·3'에 관한 정치적 담론들을 접해 왔었다. 이들은 '4·3'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와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영역에서 배제된 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만 종사해왔던 여성들에게 '4·3'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도 알지 못한 채, 반공체제 하에서 어떠한 분노나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슬픔을 안으로만 삭이고 침묵하여야 했다. 특히 “여성은 자신의 고통을 발언해서는 안되며, 고통을 마음에 묻어야 한다. 그것이 여성의 미덕이다”는 가부장적 담론의 통제는 여성들을 무언의 집단이 되도록 강제했다.

사태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최소한 초하루 보름날은 곡해야 하는데, 곡도 제대로 못허영 숨 죽여 가명. 그때 잘못했던 사람들은 땡땡거리명 지금도 잘 사는데, 그때 물명지게[용렬하게] 죽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 소리 못행 지 내곡. (제주4·3연구소 1989b, 192)

지금 내가 제일 안타까운게 있고 아까운게 있다면, 본 신랑 시체 찾아서 못 물어준거. 그것이 제일 아쉽잖아. 생각해봐라. 그것이 철천지 원이라 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잘 해 줘야 하는데 못하니까 죄 지은거 아니니. 마음에 영영 남아. (사례1)

'4·3' 이후 50년간 이들은 분노와 좌절과 체념, 그리고 가슴 속 깊이 응어리진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다. 아픔의 원인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은 그 고통을 참을만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치유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던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그 광주사태 뭐시기[청문회] 하는거 우리 텔레비전 보면 김대중이네가 그걸 막 찾아낸거야니. 그토록해연 우리도 경헌거라도 찾아낼까 하여 시방 이리 죽은 사람들이 몇 천명 되는데 이녀 부락만씩 올린거야니. 올려 3·1절인가에 시에 가 [위령제] 하다, 탑동으로 가 하다, 이젠 어디 관음사 가 몬 한다허. 우리

는 그리 가 몇번 구경도 하고, 갔다오기도 하고 그토록해도 이제 지금이라도 표나게끔 요사람들 영영해 아무데서 몇사람 죽어 비석이라도 이름이라도 하나 썩을 세워줄께 하는 말이 시방까지 없어. 그러면 우리들은 막 부아가 나....그거 잘 해놔야 나라가 살지, 경 아니하면 안되여, 아이구. (사례4)

이들 여성들은 '나라'에서 남편이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4·3' 관련 행사들에 부지런히 찾아다니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만 하게 될 뿐이어서 또다시 '부아가 치미는' 분노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난 뉴스는 꼭 봐. 발에서 일하다가도 9시만 되면 들어와. 세상을 모르니까 우린 경 고생한거 아니. 연속극은 안봐. 그런 건 안봐도 돼, 그런 건. 그 뭐 사람이 그냥 하는거는 그런 건 안봐도 되고, 뉴스 같은 건 봐야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사례1)

억울한 한은 풀어야 할 게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면 뼈라도 건지고 하다 못해 그곳 흙이라도 담아오던데, 나는 남편이 묻힌 장소를 정확히 모르니 그조차 못해봤습니다. 난 텔레비전 연속극은 재미가 없어서 안 보지만 뉴스는 꼭 봅니다. 정치가 잘 돼 죽기 전에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김종민 1999, 405에서 인용)

여성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이라 생각하여, 이제라도 세상을 알기 위해 뉴스를 열심히 본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비교할 때 연속극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재미가 없다. 이것은 '호미'마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제민일보 4·3취재반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노인회관에 모인 여성들은 뉴스를 함께 보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고, 그들의 세상사에 대한 정보는 그들 자녀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다.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과 현신을 인정받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아래 세대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들의 경험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너무도 고생했으니까 살아온 걸 막 얘기 하고 싶어....난 우리 아들보고도 항상 그런다. ‘너희는 아직 고생할 날 멀고 어머니 고생한 거 모른다’. 그 얘기 항상 한다.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아들은 이렇다. ‘어머니, 그땐 그때고 이땐 이때 아닙니까’. 그땐 그때고 이땐 이때라고. 어머니 왜 그 옛날 말만 자꾸 하냐고. 그러면 섭섭하지. 생각해봐. 우린 죽을 고생해서 살았는데. (사례1)

우리 시어머니는 그 얘기 자꾸해. ‘4·3’ 얘기는 할머니들이 자기네가 겪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4·3’을 전혀 모르거든. 이제 또 우리가 우리딸들한테 우리 옛날에 했던 얘기를 하면 귀에 안먹혀 오는 식으로 우리도 부모들이 ‘4·3’ 때 자기네 이렇게 고생했다해도 우리는 뭐하게 생각을 안해. (허○○, 50세, 여)

‘4·3’을 겪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헌신에 대해 “아무런 보람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시국 밖에는 원망할 데가 없는, 철천지 한”으로 여기고 있다. 여성들의 ‘4·3’ 경험은 사회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조차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여성들의 경험을 표현하고 의미화하는 담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이제까지 '4·3' 연구에서 잃어버린 반이었던 여성을 '4·3'의 중심에 놓고 '4·3'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오랜 동안 금기의 주제였던 '4·3'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지만 정치사 중심의 역사학에만 그 논의가 한정되어 있었다. 이 연구들에서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시 항쟁을 주도하였던 제주 좌파조직과 극우세력이었던 서북청년단, 그리고 미군정이다. 1990년대 들어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4·3'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마을별 현지조사가 전개되었지만, '4·3' 연구자들이나 기록자들은 현지조사를 할 때 대부분 남성을 주요 증언자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인터뷰를 옆에서 지켜보는 여성들은 “인터뷰한 남성이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끝잘 하였다. 여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남성들이 공식적인 장에서 '4·3'을 이야기하는 방식 때문이다. 인터뷰를 할 때, 남성들은 자신의 무장대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거나 빼 버리고, 토벌대 활동에 대해서는 과장하거나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4·3' 당시 젊은 남성들은 무장대 편에서 입산하거나, 경찰 편에서 토벌대가 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도피하거나, 군대에 자원하는 길 밖에 없었다. 그런데 '4·3' 초기에는 무장대의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무장대 편을 들었다. 그러나 제주도에 응원경찰력이 대거 투입되어 대토벌이 시작되면서 무장대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향'을 택하였다. 현재 살아남은 남자들은 전향하여 토벌대가 되거나 군대에 가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삶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은 잊어버리고, 어떤 부분은 과장하는 것은 현실의 조건에 기인한다. 만일 현실의 조건이 변화하여 '4·3'이 정당한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반해, 여성들이 '4·3'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노동했는가, 그리고 돌아온 마을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성들의 이런 경험은 '4·3'

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과 평가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4·3'에 대한 역사 해석의 틀 자체를 바꿀 때에야 기록된 역사로 재구성될 수 있다. 즉 역사 서술에 있어 무엇을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4·3' 역사 서술에서 왜 군사적 사건들만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되고, 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그리고 마을 재건을 위한 노동과정은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가.

페미니스트 역사학자인 거다 러너(Gerda Lener)는 역사는 우리의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라고 설명한다(1997, 52). 기억하고 싶은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나머지는 남겨지며, 선택된 것은 집단 기억이 되는 것이다. 기존 역사개념 속에서 전쟁과 정치학은 자녀양육보다 인류 역사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집단 기억으로 선택되어 왔다. 반면 여성의 경험은 그 나머지로 남겨지게 되어, 결국 '망각'되어 왔었다. 한편 러너는 역사는 집단 기억 이상임을 주장한다(1997, 116). 선택된 기억은 의미를 가지도록 형성되고 표현된다. 이러한 과정, 즉 사람들이 과거를 보존하고 해석하고 다시 새로운 질문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 만들기'이다. 따라서 역사 만들기는 정치적이며 사회문화적인 과정이다.

역사 만들기는 형태를 부여하고(form-giving) 의미를 주는(meaning-giving) 것을 뜻한다. 우리가 '사실'(fact)이라고 기꺼이 부르는 것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표적 '4·3' 연구물인 『4·3은 말한다』⁶⁷⁾를 발간하고 있는 제민일보 4·3 취재반은 '4·3'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현대사 연구가 활성화되고 자료가 발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제민일보 4·3 취재반은 증언 채록과 자료 발굴·분석을 통해 모든 '4·3' 논의에 참여하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실'을 찾는 데 급급한 실정이라고 하였다(김종민 1999, 365, 367). 그는

67) 『4·3은 말한다』는 10년 동안의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4·3'의 원인과 전개과정, 피해상황 등을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4·3 항쟁의 진상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이를 집대성한 뛰어난 기획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4·3' 연구들이 『4·3은 말한다』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 또한 많은 부분에서 이 기획물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현대사 연구와 자료 발굴, 그리고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성 중립성’을 가장한 채 남성의 활동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4·3’ 연구와 ‘4·3’의 역사는 ‘4·3’의 부분적인 기록일 뿐이다.

역사가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동일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역사연구도 남성에게 제한될 수 없다. 역사의 총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과거에 대한 연구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4·3’ 역사의 총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콧(Joan W. Scott)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남녀간의 성별 차이가 계급이나 인종 못지 않게 중요한 역사 분석 도구라고 하였고(1988, 31), 한국 사회에서도 성별이라는 범주가 역사를 설명하는 한 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전통적인 역사 서술의 성에 대한 무지(gender-blindness)에 도전하는 개념들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정현백 1994, 이남희 1994, 최숙경 1994)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호미’마을의 ‘4·3’ 역사를 구성하면서 연구자가 담고자 했던 내용은 첫째, 비가시화되고 주변화되었던 여성들의 경험을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번째는 ‘4·3’ 경험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 두가지 개념들에 기초하여 연대기적 서술방식을 따라 글을 구성했다.

‘4·3’ 이전 해방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은 ‘호미’마을의 성별 분업 체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일에 종사해왔다.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김매기, 탕건 만들기, 물 길어오기, 동생 돌보기 등의 일에 참여하여 가족의 주요 노동력으로 일해 온 데 반해, 남성들은 서당이나 간이학교, 보통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다니며 유교교육과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4·3’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호미’마을에서는 토착 세력이었던 안칩의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인민위원회와 청년동맹, 부녀동맹 등의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활동들은 부잣집 딸이라 간이학교 등의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었거나, 부녀야학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빈곤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결혼관계 속에서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했던 여성들은 해방 후의 정치적 활동들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4·3’이 전개된 6년동안 좌우의 대립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남성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좌나 우를 선택해야 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양편에서 피해를 입었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이 없는 가정을 지키며, 남성을 대신해서 경찰과 서청의 폭력에 시달리고, 때로는 남성 대신 살해되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일하게 토벌대나 무장대의 직접적인 죽임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성적 폭력들을 더하여 겪었으며, 남자형제나 집안을 위해 토벌대와 강제결혼을 해야 했다.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집과 마을이 불타버린 후, 여성들은 남은 가족들을 이끌고 해안 마을의 소개지로 내려가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소개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그리고 피난민들과 이재민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노동을 팔아 “독하게” 일했다. 전락촌으로 올라와서도 여성들은 남성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축성작업을 하고, 보초 경비를 서고, 토벌대의 뒷바라지를 했었다.

‘4·3’이 끝난 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 폐허가 된 마을로 돌아와 재건 작업을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여성들간의 수눌음과 연대를 통해 남성 노동력을 대체하였고 사라진 마을을 다시 복원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있는 가구와 홀어명 가구 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였다. 부계 혈통중심의 가족주의 사회에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형성된 상속제도와 친족제도는 여성들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부가시켰으며, 남녀간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켰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계 능력과 경제권은 여성 지위 향상의 주요한 요인이며, 여성들간의 가까운 유대 관계와 협동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호미’마을의 경우, 이러한 가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호미’마을 여성들은 가족 생계를 담당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들간에 수눌음이라는 긴밀한 유대와 협동구조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만 제도적 관계들과 연결되는 사회적, 문화적 채널을 가질 수 있는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불안할 수 밖에 없음을 ‘호미’마을 여성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 '4·3'에 따른 남성들의 죽음으로 친족사회가 붕괴되고 마을 내 권력구조가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호미'마을 여성들은 여성 스스로는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가부장적 구조로 말미암아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잃게 되어 극심한 고통과 궁핍을 겪어야 했다.

'4·3' 이후 생존자로서의 여성의 삶은 '4·3'으로 생겨난 질곡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었다. 여성에게 '4·3'은 '4·3'이 끝난 후에도 오랜 동안 고통으로 현존하고 있었다. '4·3' 이후 여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단지 '4·3' 때문만은 아니었다. '4·3'이라는 폭력 상황은 일상에서 여성에서 행해지던 차별들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러한 차별들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호미'마을 여성들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세대의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볼 때, 전쟁과 폭력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를 통찰할 수 있다.

'4·3'을 겪은 '호미'마을 여성들은 '4·3' 폭력의 피해자이자 목격자이며 생존자이다. 이 여성들이 갖는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4·3'의 증언자로서 진술할 수 있는 정당한 위치(just position)를 부여한다. '4·3' 폭력의 행위자의 입장에서 '4·3'을 진술하게 되면 '4·3'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취하게 되지만, 폭력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4·3'을 진술하면 폭력의 부당성을 밝히게 된다. 물론 이 여성들이 누구(토벌대/무장대)의 폭력에 피해를 입었느냐 혹은 누구의 폭력을 목격했느냐에 따라 증언자로서의 위치가 달라지지만, 그들의 진술이 드러내는 폭력의 행위자가 누구이든간에 '4·3'의 폭력행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특히 폭력행위를 명령하고 정당화해주는 기구로서의 국가는 폭력이 불러일으킨 대량학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 여성들의 진술은 '4·3'이라는 무력갈등 상황에서의 폭력 뿐만 아니라 평화시 '호미'마을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가부장적 폭력들을 폭로한다. 평화시에는 '호미'마을 일상의 문화 속에 스며 있어 비가시화되었던 폭력들이 무력갈등의 상황 속에서 한층 강화되어 가시화된 형태의 폭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재생된 기억을 연구자가 편집하여 전체 제주사회와 '4·3'의 맥락 속에 위치하도록 재구성한 마을 역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호미’마을과 ‘4·3’에 대한 총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실일 뿐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로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하며, 연구의 관점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비판과 검토작업이 필요하다.

‘4·3’은 제주도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그러나 기존 ‘4·3’ 연구는 진상 규명이라는 당면 과제 아래 정치사 중심의 역사학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4·3’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을 통해 ‘4·3’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방법론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4·3’의 역사적 의미를 사회문화적으로 조명하여 ‘4·3’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우며, ‘4·3’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방부. 1967. 『한국전쟁사 I -해방과 건군』. 大韓民國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 김민규. 1975. 『○○읍지』. 제주: 제일인쇄사.
- 김봉옥. 1987. 『제주통사』. 제주: 제주문화.
- 김백일. 1994. 역사기행- 수난과 항쟁의 땅 제주도. 『역사비평』. 제25호. 여름. 역사문제연구소.
- 김성례. 1991a.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구술 생애사의 서사분석. 『한국여성학』 7집, 한국여성학회.
- . 1991b. 제주 무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 『종교·신학 연구』, 제4권, 서강대학교 종교·신학 연구소.
- . 1998.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 4·3을 중심으로.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1998년 8월 21일~8월 24일. [제주: 그랜드 호텔]
- . 1999. 근대성과 폭력 : 제주 4·3의 담론정치.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김순태. 1999.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김승윤 구술. 1990. 『사삼 사태로 반 죽었어, 반!』. 오성찬 편집. 서울: 뿌리깊은나무.
- 김영돈. 1982. 『제주도 민요 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은실. 1994. 민족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집. 한국여성학회.
- . 1998. 성과 문화.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서울: 일조각.
- . 1999.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비교문화적 논쟁.
- Kim Eun-Shil. 1998. "Studying My Own Culture as Feminist Practice".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4, No. 4.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김인화. 1963. 4·3사건 이재민 원주지 복구상황 : 2차년도 사업 계획. 『제주도』 제8호.
- 김종민. 1998. 제주 4·3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제42호. 봄. 역사문제연구소.
- . 1999. 4·3 이후 50년.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김진명. 1993. 『굴레 속의 한국여성』. 서울: 집문당.
- . 1994. 전통적 담론과 여성억압. 『한국문화인류학』. 제2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창후. 1993.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제20호. 봄. 역사문제연구소.
- 김혜숙. 1977. 『제주도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가정학과.
- 남석진. 1989.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9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문창송. 1995.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소위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주: 대림인쇄사.
- 박명림. 1988.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 1999.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 제주 4·3과 한국 현대사.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박은정, 한인섭 엮음. 1995.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서중석. 1999.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서형실. 1990. 『식민지 시대 여성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송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이해』. 제주: 제주문화.
- 신행철. 1989. 『제주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서울: 일지사.
- . 외. 1995.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

- 심영자. 1992.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 『탐라문화』 제1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아라리 연구원 편. 1988. 『제주민중항쟁 I』. 서울: 소나무.
- . 1989. 『제주민중항쟁Ⅲ-정기간행물·보고서 자료집』. 서울: 소나무.
- 양정심. 1999.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 4·3항쟁의 배경.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양조훈. 1994. 4·3취재 6년: 무참히 왜곡된 역사. 『역사비평』. 제25호. 여름. 역사문제연구소.
- 오금숙. 1998.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1998년 8월 21일~8월 24일. [제주: 그랜드 호텔].
- 오성찬. 1987. 『제주의 마을』. 반석.
- 유철인. 1998a. 잃어버린 마을의 살아남은 사람들.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서울: 학민사.
- . 1998b. 제주 4·3과 마을공동체. 『제주학, 세계와 미래로』. 제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제14차 전국학술대회. 1998년 11월 13일~14일. [제주: 제주대학교]
- 윤택림. 1994. 기억 속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 . 1994.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 : 여성주의 역사학에 대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10집. 한국여성학회.
- . 1995. 지방, 여성, 역사 :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사연구. 『한국여성학』 제11권.
- 이기욱. 1993. 환경과 제주문화-제주문화의 생태인류학적 연구 서설. 『탐라문화』 제13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남희. 1994. 서구 女性史 연구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 서울: 일조각.
- 이영훈. 1991.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과 사회경제구조. 『제주항쟁』. 창간호, 제주4·3연구소.
- 임대식. 1999. 제주 4·3항쟁과 우익청년단.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정현백. 1994. 여성사연구의 이론과 방법. 『역사비평』. 26호. 가을. 역사문제연구소.
- 정해구. 1999. 제주 4·3항쟁과 미군정정책.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조성윤. 1998. 잃어버린 마을과 4·3의 현재성.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서울: 학민사.
- 조혜정. 1981.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아세아여성연구』. 제20집.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 . 1988. ‘발전’과 ‘저발전’ :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4a. 『4·3은 말한다 1』. 서울: 전예원.
- . 1994b. 『4·3은 말한다 2』. 서울: 전예원.
- . 1995. 『4·3은 말한다 3』. 서울: 전예원.
- . 1997. 『4·3은 말한다 4』. 서울: 전예원.
- . 1998. 『4·3은 말한다 5』. 서울: 전예원.
- 제주도. 1993. 『제주의 무속 I』. 제주문화자료총서1.
- . 1997. 『제주실록: 1945-1996』.
- 제주도의회. 1997. 『제주도 4·3 피해조사보고서』. 개정 증보판.
- 제주4·3연구소. 1989. 『이제사 말함수다』 I·II, 서울: 한울.
- . 1991.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 최숙경. 1994. 한국 여성사 연구의 성립과 과제. 『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 서울: 일조각
- 최장집. 1987. 한국의 초기 국가형성의 성격과 구조, 1945-1948 : 정치 및 사회단체의 발생, 변화, 소멸을 중심으로. 『산업사회연구』. 제2집.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서울: 한울.
- 최재석.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서울: 일지사.
- 태혜숙. 1997.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 하위주체로서의 여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3권, 1호. 한국여성학회.
- 한림화. 1991. 『한라산의 노을』 상·중·하. 서울: 한길사.

- 한정운. 1986. 『전통적 여성역할 규범에 대한 제주도 여성들의 태도』. 석사학위논문. 아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 허춘. 1996. 說話에 나타난 濟州 女性考. 『탐라문화』 제16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기영. 1979. 『순이삼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1983. 『변방에 우짖는 새』. 서울: 창작과 비평사.
- . 1993. 내 소설의 모태는 4·3항쟁. 『역사비평』. 20호. 봄. 역사문제연구소.
- . 1994. 『마지막 테우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현길언. 1995. 『우리들의 조부님』. 서울: 동아출판사.
- 현용준. 1986.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 집문당.
- 황상익. 1999. 의학사(醫學史)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 4·3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Boven, Theo van. 1998. 무력갈등하의 여성의 인권. 『아시아의 여성인권 : 무력갈등과 성폭력』.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외 4개 단체 주최.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1998년 9월 16일~17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 Coomaraswamy, Radihika. 1997. "Violence Against Women , Its Causes and Consequences". *The Conference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and Armed Conflict Situations*, 1997. 10. 31~11.3 .
- Das, Veena. 1996. "language and Body: Transactions in the Construction of Pain", *DAEDALUS*. winter.
- Eisenstein, Zillah R.. 1996. *Hatreds: Racialized and Sexualized Conflicts in the 21st Century*.
- Geiger, Susan N. G. 1986. "Women's Life Histories: Method and Content". *Signs*. vol.11, No.2, winter.
- Haggis, Jane. 1990. "The feminist research process-defining a topic". L. Stanley(ed). *Feminist Praxis: Research, Theory, and Epistemology in Feminist Sociology*. Routledge.
- Jones, Ann Rosalind. 1985. 몸으로 글쓰기: 여성적 글쓰기의 이해를 위하여. 『여성

- 해방문학의 논리』.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1990. 서울: 창작과 비평사.
- Klein, Renate Duelli. 1983.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방법: 여성 해방주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여성학의 이론』. 정금자 역. 1986. 서울: 을유문화사.
- Lerner, Gerda. 1979. *The Majority Finds Its Past*.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 1997. *Why History Matter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Dougall, Gay J. 1998.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 Oakley, Ann. 1981. "Interviewing Women: A Contradiction in Terms". H. Roberts(ed.). *Doing Feminist Research*. Routledge and Kegan Paul.
- Olujic, Maria B. 1996. "Embodiment of Terror: Gendered Violence in Peacetime and Wartime Croatia and Bosnia-Herzegovina",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 Punch, Maurice. 1985. 『현장연구의 정치학과 윤리학』. 유재정 역. 서울: 교육과학사.
- Ramphela, Mamphela. 1996. "Political Widowhood in South Africa: The Embodiment of Ambiguity". *DAEDALUS*. winter.
- Reinharz, S. ed.. 1992. "Feminist Oral History". *Feminist Methods in Social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arcz, Vera. 1996. "The Pane of Sorrow: Public Uses of Personal Grief in Modern China. *DAEDALUS*. winter.
- Scott, Joan W. 1988. *Gender and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Routledge.
- . 1992. "Experience".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J. Butler and J. Scott. eds. New York: Routledge.
- Spivak, Gayatri.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he Personal Narratives Group. 1989. *Interpreting Women's Lives*. Indiana University Press.
- Warren, Carol A. B. 1988. *Gender Issues in Field Research*. SAGE Publications.
- Young, Allan. 1996. "Suffering and the Origins of Traumatic Memory", *DAEDALUS*. winter.

ABSTRACT

A Feminist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Women of Cheju 'Homi' Village : With a Focus on the '4 · 3' Experiences

Lee, Jung-Joo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make the history of '4 · 3'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with the help of Cheju women's oral testimony.

This study is also attempting to reveal how Cheju people's '4 · 3' experience differ from the nation's historiography which has degraded the accident as a mere communist riot, by re-presenting Cheju women's '4 · 3' experiences from victim's point of view. And by doing so, this work tries to challenge predominant interpretation of the '4.3' made by the governmental authority.

And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fact that women and men have experienced the same reality of '4 · 3' in a different way according to their gender, setting up gender difference as a main tool for the history analysis.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is matter have explained the '4 ·

3' by binding all the Cheju islanders, regardless of their gender, under the universal category, pretending gender neutrality. Such approach on this issue is, however, no more than an overgeneralization of men's case based on their experiences and perspective. Let alone its failure to deal with women's historical role, this approach even distorts the facts on women's experiences. So this study is to visualize women's experiences and activities which have been excluded and marginalized by the existing '4·3' discussions, and furthermore to question and challenge the stereotype on gender role as well as the androcentrism in the conventional '4·3' discussions.

To achieve these goals and to collect original sources of women's experience who underwent '4·3', a fieldwork was conducted in a mountain village. During the fieldwork, I kept the record of individual women's life history with a focus on the '4·3' experiences. And as supplementary materials, this study referred to the materials such as printed matter, literary works, and movies that dealt with related issues. And I participated in several symposiums and cultural performances held in Cheju and Seoul.

This content is constituted with 5 parts in its chronological order.

Chapter 1 deals with the issues at hand, the perspective and the method of the study, and the fieldwork process. The fieldwork process is described with an emphasis on the ethical problems which is especially sensitive issue in '4·3'.

Chapter 2 deals with the gender division of the labor system of researched village through the general ethnographic description about the field, and explains how traditional women's lives were like.

Chapter 3 remakes the rising 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4·3' with an emphasis on the women's experiences. And it shows how the conflict of the researched village was expressed in the liberated zone, and in what way it affect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4·3', and finally what role the women's took in that process.

Chapter 4 shows what kind of changes were made in the villages after the event, and how the survivals coped with such changes in terms of the women's experiences. Chapter 4 continues to analyze how the gender division in labor and the androcentric order were reorganized and sustain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whole village community was destroyed completely and unbalanced sex ratio began to appear due to '4·3'.

In chapter 5, I attempted to deal with the issue of how the leadership system of the newly built village was reorganized after '4·3' and to reveal how the history of a village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the people concerning '4·3'

'4·3' is the accident that has made a huge impact on almost every part of the Cheju society. The existing '4·3' studies, however, tend to give more weight to the political history pursuing historical facts because of the social need. At the present situation, this study tempts to expand the scope of '4·3' research and to grope for the possible many different accesses to '4·3' study by approaching the matter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Such work will help to get fuller understanding of '4·3' by including the 'lost half' in the previous studies, and it will also provide the experimental source that will help to make a new paradigm of history that uses gender difference as a major analytic tool.